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
060-700-1080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우리이웃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염원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한국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천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7월 13일(음력 6월 8일) 수요일 (주간) 제 534 호

▮ 특별기획 '맞춤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테마별 유기적 전략 절실

각 종단 예산·인력 10% 안팎… 거시적 안목 길러야

어지고 있고 문화 영역에서도 재능 있는 스님과 불자들이 무대를 넓혀 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복지 현장, 농어촌 지역과 해외를 향한 포교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군부대와 교도소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포교 원력을 세운 불자들이 분주히 뛰고 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했던 부처님의 자상함처럼 각계각층에서 포교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산사음악회의 경우 대표적인 '포교 상품'으로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 사찰이나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 등 관객들의 욕구충족이 될 때 성공하게 된다.

부처님 오신날을 '경건한 의식의 날'로 삼는 사찰과 '즐거운 축제의 날'로 삼는 사찰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해마다 등 켜는 신도가 줄어든다고 한탄하지만, 후자의 경우 다음해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 맞춤포교는 전형을 다듬는 단계도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인프라다. 포교현장을 뛰는 인력은 물론 성공담과 실패담, 분야별 노하우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때 포교전략과 비전이 생성될 수 있다. 사회는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분할되고 있다.

'맞춤 포교'가 다원화 다양화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포교현장의 타깃 혹은 테마별 인프라 구축은 불교의 미래다. 포교는 지금 이 순간 보다 치밀한 전략에 의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불교계 공동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 김원우 · 강지연 기자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독실한 불자인 이승은(42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씨는 최근 한 아파트 입주 설명회에 가서 몹시 가슴이 아팠다.

설명회장에 들어서기 무섭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들고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씨가 올 가을 입주 할 아파트 단지 인근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손에 커피와 교회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 어림잡아 다섯 곳의 교회가 '전도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이씨의 뇌리에 떠 오른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올 가을 한동안 극성스러운 개신교 신자들에게 시달릴 것이란 예감이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이었다.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번지 없는 현주소

한국 불교계 포교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 할 사람은 없다. 포교의 현주소에 '번지'가 부여되기 어려운 것은 종단마다 발표하는 소속신도의 수치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신도 수의 증감을 체크하여 포교 성과를 발표하는 종단도 없기 때문이다.

각 종단의 공식적인 포교 예산은 얼마일까? 포교원을 별원으로 독립시킨 조계종의 경우 올 한해 일반회계에서 포교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6.8%가 감축된 12.2%.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도 10~12% 선이다.

또 이들 종단의 중앙 종무기관에서 포교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의 10%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



그림 : 박구원

이 선발한 포교사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거의 없고 포교사들의 법문이나 의식집전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님들은 많다.

태고종도 전법사를 선발하지만 종단차원의 활동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는 미약한 실정이다. 각 종단의 한 해 포교 예산과 인력 현황, 즉 '1할 안팎'이라는 수치가 한국불교의 포교 마인드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이는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포교 없이는 불교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포교 현장을 뛰는 사람들은 "포교의 초석이라 할 '패러다임(이론의 틀)'과 '인프라(기반 구조)'가 다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왜 부족한가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포교에 관한한 한국불교는 아직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유는 있다. 그간 개인적인 원력에 의지 해 온 포교의 성과들을 통합하거나 현장의 시행착오, 성공사례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포교 전략의 이론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런 현실은 바로 포교에 대한 연구부재로 이어진다. 포교관련 강의나 서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타 종교에 비해 극히 드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는 전문 포교사에 대한 관리 소홀과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의 부재도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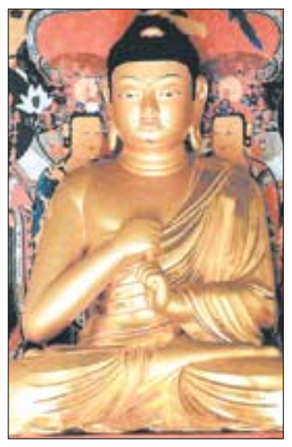
원력은 모을수록 '큰 힘'

이러한 가운데 '맞춤포교' 시대는 열리고 있다. 직장인들의 신행활동 마당이 해를 거듭 할수록 넓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현존 最古 통일신라 木佛

개금과정 833년 제작 명문 발견
보기드문 '등신상' … 4일 공개



통일신라 목불로 밝혀진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 좌상(오른쪽)과 그 안에서 발견된 묵서(왼쪽)에 '中和三年'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중화 3년 계묘년 금칠을 해 이 불상을 완성했다(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안에서 발견된 이 먹글씨가 미술사에 새 장을 열었다.

중화(中和唐 희종의 연호) 3년은 통일신라시대인 833년으로,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은 현존 유일의 통일신라시대 목불이 된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목불로 알려진 서산 개심사 아미타불좌상(1280년 보수)보다 400여년이나 앞선 것이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진홍섭 문화재위원(국보지정분과), 이화여대 강우방 교수, 홍익대 김리나 교수 등 문화재 전문가와 취재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4일 해인사 조사전에서 비로자나불좌상과 명문을 공개했다.

비로자나불의 내부 등 쪽에 선명하게 적힌 명문은 오른쪽 17자 誓願大角干主燈身○彌右座妃主燈身○(서원대각간주등신○미우좌비주등신○), 왼쪽 14자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중화삼년계묘차상하절칠금착성)로 돼 있었다.(○는 판독불가능한 글자)

2면으로 계속

남북 신도합동법회 22일 신계사서

분단 후 첫 남북 신도단체 합동법회가 7월 2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개최된다. 중앙신도회는 7월 1일 개성서 열린 남북불교 신도단체 합동법회 관련 2차 실무회의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이 같은 사실을 합의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중앙신도회와 조불련은 남북신도단체 첫 합동법회의 명칭을 '6 · 15 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기원 북남(남북)불교도합동법회'로 확정하고 이후 매년 개최하는 것을 합의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무료 홈페이지 제작 교육 16일, 불교단체 대상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는 7월 16일 오후 2~5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 본사 연수원 2층 사무실에서 제2차 불교단체 대상(복지/공익단체 우선) 무료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실시한다.

'웹페이지 빌더(Web Page Builder)' 교육을 원하는 단체들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02)2004-

푹푹 찌는 무더위?!
즐겁게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www.yosiamun.com

'할'



그림 · 조태호

묘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달라이 라마 동북아 사무소 한국지부개설 기념 티베트 샌드만다라 특별展
7월 15~21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현대불교 (02)2004-8281, 불일미술관 (02)733-5322

여시아문
화제의 신간
소설가 황석영 씨가 추천하는 화제의 책
잊혀진 우리의 가람터,
그 옛 주소로 가다!
시인 장지현의 전국 폐사지 순례기
잊혀진 가람 탐험
시인 장지현 씨가 강원도 양양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흩어진 폐사지 20여 곳을 직접 밟아 노래했다. 지금은 사라진 절터 답사기 '잊혀진 가람탐험'은 그가 지난 4년여 동안 발품을 판 흔적. 이제는 '철세들의 안거지'로나 쓰이는 스러진 사찰들의 현재 모습이 여운을 남긴다.
– 조선일보
글 · 장지현, 사진 · 고영배 | 4 · 6배판 변형 | 360쪽 | 가격 : 23,000원
온라인 · 통신판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연락처
02)2004-8200(代)
02)2004-8220(여시아문)
Fax:02)737-0696
여시아문

1면에서 계속

대각간 명문에 대해서 前 해인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성공 스님은 "해인사 창건 설화에 나오는 '대각간 위홍'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문은 6월 중순경, 개금불사를 위해 옻칠을 7번 한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명문의 발견으로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 목조 관음상을 만들었던 한국인의 예술적 기량이 9세기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높이 1.25m의 비로자나불좌상은 왼쪽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을 하고,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친(우견편단) 모습이다. 가사의 주름은 평행계단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모습이 유려하고, 반쯤 감은 눈과 어깨까지 드리워진 귀가 근엄하고 아름답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비로자나불좌상의 얼굴이 신체에 비해 크다"고 지적하며 "이는 8세기 후반 9세기 전반의 특징적인 양식으로서, 옷 주름이 유려하고 층단으로 돼 있는 것을 볼 때 9세기의 불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연대가 확인됨에 따라 경남 지정유형문화재 제41호였던 이 불상은 곧 국보로 승격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종분석, X레이 촬영 등 과학조사가 뒷받침 돼야 하고, 조성 당시의 원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인사는 9월 1일부터 보경당에서 100일간 친견법회를 갖고, 10월에는 목조불상의 학술적 예술적 연구를 위한 학술대회 및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관련

불교는 '민속관' 기독교는 '종교관'에

2005 세계박물관박람회, 불교관련 전시 거의 없어…관계자 "편향의도 없다"

국내외 110여개 박물관 · 미술관이 참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2005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에 '불교'는 없었다.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리고 있는 박람회는 국내사립박물관의 활성화와 박물관 문화 확산을 목표로 경기관광공사 등이 주최하고, 분당자연사박물관 등이 주관하고 있다.

개막 7일째를 맞은 7월 7일. 방학이 시작되지 않은 탓인지 아직 한산한 가운데, 22개국에서 총 110여개 박물관 · 미술관(국내 49개, 국외 65개)이 부스를 마련해 놓고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양한 문화' 가운데 불교문화를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불교와 관련된 전시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은 목아박물관과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부스가 유일했다. 때문에 '박물관' '문화'라는 명칭에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박람회를 찾은 이라면 낭패감을 느끼기 십상이다.

9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박람회에는 종교관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제성서박물관, 십자가박물관, 한국온누리선교회, 한국창조과학회 등 기독교 계통 부스 일색이다. 유일하게 불교문화를 볼 수 있는 목아박물관이나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부스는 종교관이 아닌 민속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만을 놓고 보면 이번 박람회에서 불교계가 소외돼 있고, 더구나 불교는 종교가 아닌 민속신앙쯤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박람회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사립박물관협회 등록된 모든 박물관에 공문을 보내 참가요청을 한 바 있다"며 "종교편향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종교관이 기독교 일색으로 꾸며진 것과 관련해서는 "기독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실행위원장 신을식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돼 '기독교문화선교관'이 마련됐으나, 박람회가 종교색을 띠는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종교관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이라며 "종교관이 박람회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한 관계자는 "국립박물관들이 참여하지 않는데다, 박람회가 상업성까지 띠고 있어 성보박물관들이 참여할 만한 성격의 행사는 아니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가 특정 종교 위주로 진행되면 결국은 박람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최자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니만큼 박람회 기획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진"

김재규 공단 이사장 공식언급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은 7월 5일 보도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입장료 징수 실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나 받는 조직이라는 오해까지 생겼다"며 입장료 폐지를 공식화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실무자도 "공단은 원칙적으로 입장료 폐지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도 "2006년 예산이 입장료 징수를 전제로 편성된 만큼 당장 추진하기보다 2~3년 정도의 기간동안 불교계 등과 협의해 세부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아직 공단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단이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추후에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통플스테이 함께가요~"

민추본 · 대불청 금강산서 '통일 심성계발…' 개최

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통일 심성 계발 프로그램 제1회 통플스테이'를 오는 8월 13~16일 금강산 건봉사와 신계사 일원에서 진행한다.

청년불자 108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통플스테이는 △통일 발원문 쓰기 △통일 기원 108염주 꿰기 △통일 명상 △광복 60주년 기념 남북청년불자 합동법회 및 통일기원 108배 정진 △남북 공동 산행 △통일기원 기념 식수와 탑 쌓기 등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통일 특강 △통일 3행시 짓기대회 △통일 골든벨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은 "통일은 민족의 본래면목을 찾는 일"이라며 "통플스테이를 통해 분열과 분단을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통일 에너지'를 키워나갔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2)735-3724

유철주 기자

조계종 국제사이트 자문위원 13명 위촉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회관 4층에서 불교계 석학 및 지식인 13명으로 구성된 국제사이트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현 조계종 총무원 국제특보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이 위촉됐다. 정범 스님(불교신문사 주간)은 국제사이트 총괄운영팀장을 맡는다. 화랑(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김봉래 회장(국제포교사회), 김상철 사무총장(한국외교협회), 김종걸 교수(하버드대), 박수호 책임연구원(사이버문화연구소), 브라이언 베리(국제포교사), 이동호 위원(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전헌 교수(뉴욕주립대), 조은수 교수(서울대) 등으로 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날 위촉식에 참석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은 그 자리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현재 자문위원은 총 13명이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 조언한다. 특히 문화나 정서가 다른 해외 네티즌에게 한국불교를 빠르고 쉽게 전달할 방법을 찾는 일은 오롯이 자문위원회의 몫이다.

국제사이트는 올해 11월 1일 오픈할 예정이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사이트로 구축된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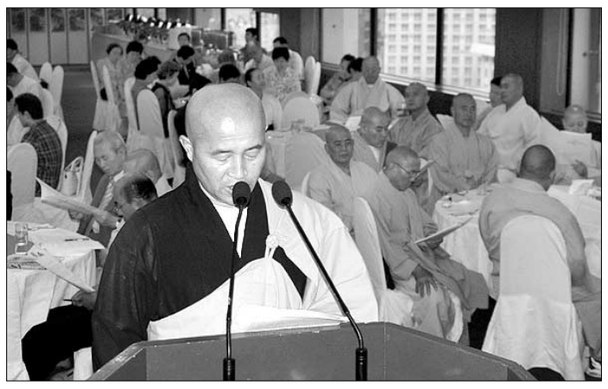
불교소송 잇따라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前 서산 간월암 주지 원융 스님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월 30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도 조계종 내부판정기관의 하나인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주지해임무효확인등 청구사건(운지사)'에 대해 6월 23일 '각하' 판결을 내리며 조계종 내부 결정을 존중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조계종 한 관계자는 "종단이 안정됨에 따라 종교 내부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동우 기자



10 · 27 법난 불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이 정부 당국자에게 보내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10 · 27 법난 진상 규명하라"

대책위 결성…위원장에 법타스님

5월 27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불교계 내부에서도 10 · 27 법난 진상규명 의지가 높은 가운데, 불교인권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7월 4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1980년 10 · 27 법난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타)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상임대표 법타 스님은 "2000년 한국불교사에 가장 처참한 수모를 안겨준 1980년 10 · 27 법난은 전두환 군부의 정치적 시나리오에 불교계가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과거사 청산을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진상규명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타 스님 인터뷰 14면

당시 정부 종무실장이었던 한영수 씨는 결성식에서 군부의 폭압적 불교유린행위를 증언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향후 10 · 27 법난연구소 발족, 불교피해자 진상조사(삼청교육대 포함), 각사찰 및 스님 탄압사례조사, 관련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국회 특별법제정 제안, 전국순회강연,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 · 사진=조용수기자

"대학 혼란 막아야" 東大 교수들 '고언' 발표

동국대 정용길 교수 등 '원로교수모임'이 최근 학내 문제와 관련, 이사장 현해 스님과 홍기삼 총장에게 드리는 고언을 발표했다. 학내문제로 교수회 차원이 아닌 중진 교수들의 성명서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내 전산망과 대자보 형태로 공개한 문건에서 원로교수모임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 연일 결의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교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학교 당국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며 "구성원들의 분열과 대학행정의 난맥을 바로 잡을 이사장과 총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동국대는 지난 1학기부터 정년보장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구강의평가와 그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도입을 강행해 왔다. 교수들은 이와 관련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수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며 반발해 왔다.

또 원로교수모임은 필동병원 매입과 관련한 재단내부의 검찰 고발사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사장과 총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수습할 일이 있으면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건에는 보광 스님 권기종 정용길 김상현 교수 등을 비롯, 30여명이 서명했다. 조용수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N-K NATURAL
묘향산 전 록 탕
최고의 건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동의학 박사 허 창 걸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의담당 동의학박사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771-2985 • 제조원 :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755-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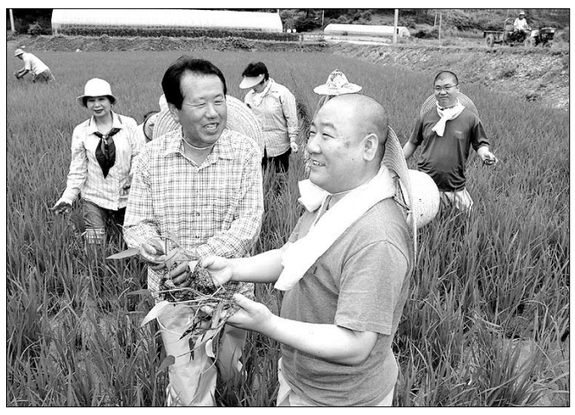
덕숭총림 수덕사
탁발체험과 함께하는
여름 禪 수련회
禪法의 기운이 충만한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불교전통 생활의식의 하나였던 탁발의식을 재현합니다. 수행자에게 아만과 아집을 타파하는 길인 탁발의식을 통해 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베풀고자 하셨던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크나큰 원력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일 정	기 간	프로그램명	수련비	참가인원	대 상
1 차	7월 20일 ~ 7월 22일 (수요일~금요일)	2박3일	동국대학교 수련회	5만원	100명	대학생
2 차	7월 27일 ~ 7월 30일 (수요일~토요일)	3박4일	禪 수련회	7만원	80명	일반인
3 차	7월 31일 ~ 8월 2일 (일요일~화요일)	2박3일	만일염불회 수련회			신 도
4 차	8월 4일 ~ 8월 6일 (목요일~토요일)	2박3일	禪 수련회	5만원	80명	일반인
5 차	8월 10일 ~ 8월 13일 (수요일~토요일)	3박4일	禪 수련회	7만원	80명	일반인
6 차	8월27일~8월28일 (토요일~일요일)	1박2일	교규신도수련회	2만원		교구신도

※ 궁금하신 사항은 수덕사 종무소로 전화연락 바랍니다.
※ 전화 041)337-6565, 011-1705-4828 / 팩스 041)337-0072
e-mail : tan002@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310060-01-005443 (수덕사 포교국)
※ 자세한 내용은 수덕사 홈페이지 (www.sudeoksa.net)를 참조하세요.

도심사찰-농촌 하나됐네

조계사, 결연마을 양양 기점리서 농촌체험
직거래장터 개설 등 도농공동체 구현키로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과 기정리 주민 김희우씨가 논에서 잡초를 뽑던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피(잡초)는 보시다시피 벼와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가 벼의 생활환경을 그대로 침해하여 번식하기 때문에 꼭 뽑아줘야 합니다."

조계사(주지 원담)가 '1일 농촌체험'을 진행한 7월 4일 양양 기정리 논에서 마을 주민 김희우(61)씨가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에게 피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직접 피와 벼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처음 논에 들어온 신도들은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신도들과 달리 출가 초기 논과 밭에서 온갖 농사일을 다 해본 주지 원담 스님과 부주지 도문 스님은 능숙한 솜씨를 발휘한다.

조계사 대중 50여명은 피를 뽑고 난 후 경운기를 타고 감자밭으로 향했다.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한 감자밭에서는 벌써 마을주민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작업을 하고 있다. 낯선 호미질에 힘이 들지만 실한 감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연숙 신도회장은 "요즘 농촌이 너무 어려워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체험에 참여했다"며 "이렇게 좋은 감자들이 왜 제값을 받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논고랑의 피를 뽑고 감자를 캐면서 조계사 대중과 기정리 마을 주민은 어느새 친자매보다 더 사이좋은 언니-동생 사이가 되었다.

조계사가 양양군 5개 마을과 자매결연한 것은 지난 5월 12일.

마을 주민 이순자(60)씨는 "지난 4월 산불 때 5개 가옥과 인근 야산의 70%가 소실됐었다"며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일손을 도와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앞서 원담 스님은 이진호 양양군수와 기정리 마을 이장 정연철씨에게 각각 20kg 쌀 100포대 구입 약정서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증서를 전달했다.

이진호 군수는 "최근에 조계사가 독도에 연등을 설치하고 종로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잔치를 여는 등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사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까지 관심을 쏟아 주시는 것이 불자로서 자랑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원담 스님도 "앞으로 매년 4차례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템플스테이와 팜스테이(Farm stay)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조계사와 기정리가 도농공동체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함께 땀을 흘리고 난 후 조계사 대중들과 기정리 주민들은 떡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가을 벼베기 작업도 같이 할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체험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글 · 사진/양양=유철주 기자

대광고, 예배 폐지 거절
종자硏, 교육청에 청원

강의석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대광고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요청한 '5분예배 폐지' 등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광고는 7월 1일 종자연이 요청한 5분 예배 폐지와 수요일 학년 예배 · 종교수업의 자율적 시행 등에 대해 "5분 예배와 수요 예배 등은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와도 면담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종자연은 서울시 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대광고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에 종교강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권 발동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천성산 조사 표류
시추 허가서 발급 지연탓

천상산 환경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2월 지율 스님이 100일 단식을 회향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가 환경조사실시를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가 시작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천성산 시추에 대한 공식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성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지자체인 양산시와 경상남도의 승인이 있어야 시추가 가능하다.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는 "철도공단이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킨다면 환경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철주 기자

교수불자대회 8월17~19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이하 교불련)는 8월17~19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중앙대 류종민, 중국 칭화대 루펭, 동국대 정병조 교수가 각각 '한국문화와 불교' '신앙의 위기와 생태의 위기' '불교의 신앙과 수행체계' 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다. (02)720-6618

박봉영기자


7월 2일 나눔의 집을 방문한 노리코 변호사(왼쪽)와 조배숙 의원(왼쪽 상단) 등이 이옥선 할머니(오른쪽)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日여변호사들 위안부 할머니 방문

"우리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위안부가 됐다니, 그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반기겠습니까."

7월 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

평소 온화한 얼굴이던 이옥선(82) 할머니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렸다. 할머니가 흥분한 이유는 이날 나눔의 집을 찾아온 일본인들 탓이었다.

이옥선 할머니의 열변을 들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침통한 표정을 짓는 방문자들은 '자유변호사회'라는 일본 여성변호사 단체 회원 25명이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세우고 '여성'이라는 동질감 속에 할머니들을 찾은 일본 여성변호사들은 그래서 더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국적을 떠나 피해 할머니들을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만남은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오모리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변호활동은 물론 서명운동까지 벌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지금 서둘러 여시아문에 들러보세요!
www.yosiamun.com

목탁소리

음악행사 날짜 왜 같을까

올 10월 14~15일은 불교음악계에서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 같다.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창작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이 무대에 오른다. 또 2005 대한민국 불교음악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불교합창 콩쿠르의 서울 · 경기 예선 역시 이날 열린다.

불교음악계 대규모 행사가 한날 동시에 잡힌 것이 의아스럽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행사 모두 전국의 불교합창단 없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전국의 불교합창단을 아우르는 불교합창연합회(종단협의회 산하기구)는 한 불교음악단체와 오페라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까닭에 행사에서 발을 뺄 수 없다. 그러나 연합회의 서울 · 경기 합창단들은 찬불가 경연대회 참여 역시 희망하고 있다.

사면초가의 난감한 현실 앞에서 양 주최측은 서로 "행사 날을 잡은 것은 우리가 먼저다", "모르고 그랬다, 알고 그랬다" 등의 얘기가 수없이 오가더니 "둘 중의 하나는 못하게 될 것"이라는 감정섞인 말까지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양쪽 불교음악 단체의 깊은 갈등의 골이 이번 건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논란 가운데 한쪽에서 경연 예선 날짜를 타지역 행사 예정일과 맞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많은 불자들이 '귀하게' 열리는 두 음악행사 모두 보고싶어 한다.

강신재 기자(취재부)

수경사 공정보도 논란
화상 아동학대 '사진 짜깁기' 의혹 등 제기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수경사에 대한 방송사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5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당시 충격적 영상 탓에 사회적 여론은 수경사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던데 반해, 7월 들어 방송사의 선정적 보도태도에 대한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개신교 굿네이버스 산하)가 방송사와 공모해 위장봉사자를 투입했으며, 촬영사실을 모르는 사미니 스님으로부터 진술을 유도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수경사 문제를 다루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보다 추측에 따른 정황이나 자원봉사자의 일방적 의견만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동의 화상 사진도 지난 1월 자원봉사자에 의해 입은 화상을 5월 취재 때 발생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계종 호법부가 수경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 측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에 종단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확인한 후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종단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모 암자로 피신했던 수경사 주지와 사미니는 은평경찰서로 연행돼, 현재(7월 8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김강진 기자

불교시설 위장 납골묘 말썽

불교계 시설로 등록된 납골묘 운영단체가 현행 법규정을 악용해 납골시설을 호화 · 대형화 하는 등 편법운영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7월 6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 합동으로 경기도 등의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장사시설 설치 ·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현행법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대규모 납골시설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종단도 불분명한 사찰을 매입한 후 사찰규모보다 큰 납골당을 설치 · 운영하다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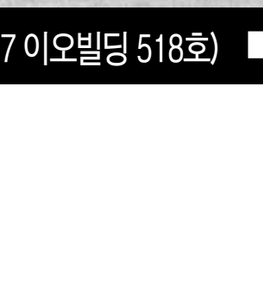
이들 가운데 3곳은 불교 종단인 것처럼 사찰을 창건하거나 명의를 빌린 후 납골당을 설치했으며, 5곳은 영리목적으로 지나치게 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다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였다.

이처럼 종교 시설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불교시설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불교계 차원의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강진 기자

최첨단 Thunderstorm 원리로 세계시장을 완전 석권한 - 리빙에어
EcoQuest
EPA Est. Reg. No. 065975-TN-001
스님, 불자님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無 필터 無 병균 無 악취 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산업공해 연구원(시험성적표) ◆고려대학연구소 측정확인서
◆캐나다 환경청 인증서 ◆미국환경청 인증서
미국 EcoQuest사에서 제작된 LivingAir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있는 세계적인 공기 청정기 시스템으로서 최첨단 신기술(Thunderstorm : 천둥.번개+RCI :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 광촉매방식)의 신산화작용(AOP)으로 악취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살균 효과로 언제나 숲속에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 리빙에어의 다양한 효능❖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분해
▶환경오염으로 오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등의 질병예방
▶애완동물의 털, 먼지, 음식냄새, 담배냄새 제거 탁월
▶곰팡이, 박테리아 살균 및 습기로 인한 악취제거
▶유해냄새및 담배연기로 인한 두통, 만성피로감에서 탈피

Breeze AT
· 공기청정기부분 미국 제1의 매출실적
· 소독기능 장치 / 리모콘 기능
· 소음이 거의 없음
· 오존발생 일시 제거기능
· 5평에서 70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XL-15Classic
· 제작 20년의 기술축적
·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
·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자유롭게 이동 설치
·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

Fresh Air
환과 정화를 위한 정확한 공간의 면적을 표시해 주며, 조정 가능한 살균방식에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새로운 SynAirG5 시스템은 광촉매 기술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에코테크 과정을 촉진합니다.
■ 오투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 TEL : 02)2055-0202 ■ FAX : 02)2055-0279 www.o2air.net

금-5:45)

지상중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10 · 끝>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일시 : 불기 2549년 7월 3일
■강사 : 최훈동 원장(한별정신병원)
■주제 : 바람직한 부부, 바람직한 가정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폭력을 평화로' … 나와 가정부터 실천해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가족 해체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보현도량 도피안사 구국구세법회'가 7월 3일 최훈동 원장(한별정신병원 · 서울대초빙교수)의 강연 '바람직한 부부 바람직한 가정'을 끝으로 회향됐다.

안성 도솔산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주최한 이번 구국구세법회는 5월 1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시작으로 서명원 서강대 교수, 조희금 대구대 교수, 옥선화 서울대 교수, 정현숙 상명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최훈동 원장은 부처님의 자기성찰 가르침을 통해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강연했다. 최 원장은 "구국구세의 본질은 폭력적인 세상을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나와 가정이 평화로움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원장은 정신의학적 관점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가정생활의 지혜를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그림 : 박구원

평화롭지 못한 원인은 폭력

구국구세라는 관점에서 가정이 중요한 까닭은 가정이야말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온갖 사회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되고 가정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하다. 가정이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형성하는 교육장이 돼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 원장은 사회와 가정의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을 '폭력'이라고 본다. 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부터 사회폭력, 정치폭력, 사이버 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폭력들 가운데 좀더 근원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뤄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상처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마치 독소와도 같다. 부모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신경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기도 하고, 급기야는 각종 범죄와 사회병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견지에서 "구국구세란 결국 이 같은 폭력적인 사회를 평화롭게 바꾸는 데 있으며, 그 출발점은 나와 가정"이라는 것이 최 원장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온 세계의 출발점인 나와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최 원장은 무아의 가르침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며, 오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무아의 가르침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으로부터 파생된 번뇌를 제거해준다. 또 폭력의 원인이 되는, 돈을 빼앗고자 하는 욕망이나 타인을 자신에게 순종시키고자 하는 욕망 등도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한다. 이 점에서 자기성찰은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나'를 비우고 대화를

최 원장에 따르면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유능한 상담치료자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사람이다. 상담치료자가 '나'를 앞세우면 내담자의 마음은 닫히고, 입도 닫히게 된다는 것. 이 같은 원리는 가족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 원장은 "나를 내세우고 너를 분리하면 분노와 좌절 · 무시 등 온갖 괴로움이 생겨나며, 자신을 고집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부정'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가 일어나게 돼 대화의 단절을 야기하고, 나와 너를 고립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무아의 체험은, 나를 내세우고 나의 욕망과 신념을 가족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가족간의 관계가 원활해지려면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함과 동시에, 좋은 일에 대해 칭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애어(愛語)도 좋은 요령이라 할 수 있다. 최 원장은 고트만 박사의 5:1법칙을 언급하며 "5번의 칭찬과 격려 뒤에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말했다. 끊임없는 지적과 훈계는 잔소리나 간섭으로 받아들여져 아이를 위축시키고, 심하면 피해의식을 유발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어 최 원장은 "욕구의 적절한 좌절과 적절한 충족의 조화가 건강한 자아의 힘을 키워준다"며 "자녀의 동기를 얼마나 유발할 것이며, 욕구는 얼마나 좌절시킬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같은 해결책의 중심에는 '무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 원장은 가족과 이웃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자애(慈), 고통 받는 가족에 대한 연민(悲), 가족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喜),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捨)의 사무량심을 무아의 구체적 모습으로 설명하며, "나를 비운 이는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의 기쁨, 상대의 칭찬과 비난, 분노까지도 차별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아에 이르는 자기성찰법-정념

그럼 이 같은 무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는 자기성찰은 어떻게 가능할까. 최 원장은 팔정도 가운데 '정념(正念)'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명상을 뜻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열반에 들기 전 "정념수행이 계발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래의 반열반 후에 참된 법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며 정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정념은 생각이나 이해가 아닌 수행을 통해 가능해지는 상태"라며 "눈뜨자마자부터 잠들기까지 순간순간 예리하게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정념을 일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 원장은 "미래의 미륵세계나 극락정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라며, "정념수행을 하고, 무아를 실천하면 구국구세는 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10차례의 구국구세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불교와 정신치료

'무아' 가르침은 정신치료 원리

신경정신과 교수며 정신병원장인 최훈동 원장은 강연 도중 몇 차례 불교와 현대정신의학을 견주어 흥미를 더했다.

최 원장은 불교와 정신치료의 고통해결 방법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교에서의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통찰해낸다는 점에서 정신치료의 원리와 동일하다.

이와관련, 최 원장은 "무아의 체험은 특정 견해나 관점에 입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투사나 왜곡 없이 사물(사람)을 바라보는 성숙한 인격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신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성과 관련 "정신의학은 인간을 생물학적-정신적-사회적 존재로 정의하며,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수조개의 세포들조차도 그물망처럼 상호 연결된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인간을 연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2600여년 전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과학의 성과가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념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기 마음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념은 현대 정신치료와 원리가 동일하지만, 정신치료에는 깊은 집중 상태인 '선정'이 없다"며 "부처님의 선법은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찬탄했다.

정신치료학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최 원장은 상담의 기본이 경청이라고 설명하며, "관세음보살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상담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상담하는 것 또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법당에서의 기도와 더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병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동 원장은



한별정신병원장 겸 한별심리연구소장이며, 서울의대 신경정신과 초빙교수, 이화의대 외래교수,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논문에 <불교의 유식사상과 심층심리치료와 비교고찰><불교 무아사상의 정신치료적 의미> 등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인간의 삶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 펼쳐지고 그 인과율을 인수분해 하면 사주팔자라는 답이 나온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전생의 성적표이고, 그 성적표를 읽어낼 수 만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길흉화복과 흥망성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리딩과목

-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 조상묘(음택)를 어디다 쓸까?
- 사찰의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 가족과 전생의 인연은 무엇이었을까?
- 재운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 미래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할까?
- 공부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 동업자와의 인연은 무엇이며 사업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을까?
- 결혼 할 사람과의 전생 인연은 무엇일까?
- 사업을 번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위한 수화법회

법당이 없어서…

도원 스님, 10년 동안 6곳 옮겨 다니며 '고투'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는 도원 스님(왼쪽)은 법회공간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통도사 옥련암에서 열린 청각장애인 수화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문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마음하나로 수화법회를 시작했는데 법회 공간이 없어 이리 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년 전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시작한 도원 스님은 청각장애인 포교의 아픈 현실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옮겨 다닌 사찰만도 6곳. 매월 첫째 · 셋째 주 두 차례 열리는 수화 법회는 스님이 부전 소임을 살고 있는 사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장애인 포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옮겨 다니길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찰 사정 · 이해 부족 이유
"불법 앞엔 평등" 관심 호소

법당 수리를 이유로 농아인 법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여섯번째 옮겨온 곳이 해운대 썬프라자 3층 여래선원. 이곳에 임시 둥지를 틀었지만 얼마동안 법회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법회 공간 마련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도원 스님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봉사모임 심여회가 열고 있는 수화법회는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일한 법회여서 불법을 알고 싶어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인기가 높다.

도원 스님의 수화 법회를 돕고 있는 농아 임희규(45) 씨는 "불교를 알고 싶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답답했는데 스님이 법회를 열어주니 부처님법도 배우고, 농아인 교류 공간도 되고 너무 좋다"며 "불교를 몰라 장애를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도원 스님이 청각장애인 포교를 결심한 것은 10년 전. 어느 사찰 법당 앞에서 "법문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다"는 메모를 쓰면서 울먹이는 보살을 만난 이후였다. 그 보살을 만난 이후 스님은 곧바로 청각장애인 포교를 결심했고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반에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수화를 배운지 1년 만에 단 2명의 청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연 것이 부산농아인불자회 창립으로 이어져 지금은 등록인원 120명, 평균 법회 참석인원 40여명을 넘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서울영등포교회, 성남수화교실, 농아인협회 등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 도원 스님의 열정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봉사모임 심여회의 든든한 후원과 자원봉사가 버팀목이 돼 왔다.

"전국 어디든 청각장애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수화 법회를 열어 불법을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도원 스님은 이렇게 호소했다. "불법의 세계에선 누구나 평등하다 했는데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7월 3일 불우농아인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기도 한 도원 스님은 7월 30일~8월 1일 건천 지장사에서 청각장애인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는 한편, 구화학교 농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를 계획하고 있다. (051)939-311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뜻 모아 산중화합 이룰 것"

경봉문도회 정식 출범 … 열반 23주기 추모법회도

통도사 극락암(도감 명정)은 7월 3일 경봉 스님 열반 23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사진)를 봉행하고 경봉문도회 정식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함께 열었다.

성수 스님, 초우 스님, 원명 스님, 명정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추모 법회는 문도 대표의 헌향,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경봉문도회는 이날 성수 스님을 증명, 원명 스님을 회주로 통도사 백련암 원산 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경봉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선풍 교학을 진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앞으로 경봉문도회는 전국에서 흩어져 수행정진 중인 경봉 문도들의 뜻을 결집하고 승가 화합의 모범을 보이는 한편, 경봉 스님의 선사상 재조명을 위한 법문 전집 발간, 선사상 선양을 위한 선(禪)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비구 · 비구니 38명에 장학금
법문집 발간, 선 세미나 계획

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경봉 문도들의 화합이 영축총림 산중의 화합과 나아가 한국 불교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문도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경봉문도회가 방장선출을 두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립,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장 선출은 합법적,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원칙적으로 승가 화합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중의 뜻을 모아 지혜롭게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추모 법회와 함께 열린 경봉장학회(이사장 원명)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박사 과정, 석사 과정, 선원, 강원 등에서 수학중인 스님 38명에게 총 2천 8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전문활동가, 재정독립 등 선결

부산불교발전 위한 세미나

7월 4일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가 주최한 부산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스님은 "한국불교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핵심 신도 1백만 명 양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정표 부산불교신도회 기획실장은 "부산불교신도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행과 수행에서 모범이 되는 지도자와 전문성을 갖춘 상근 활동가, 불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뚜렷한 사업목표, 재정 독립 등의 난제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존사 주지 장산 스님은 승가의 역할에 대해 "신도회 주지 스님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찰간 연대를 통한 신도회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류상영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장, 곽만연 동아대 교수 등은 지역 신도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여타 신행단체와의 유기적 연계 △ 사찰 재정 투명성 확보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한 신도의 사찰 운영 참여 등을 제안했다.

천미희 기자

리틀 야구단 생긴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창단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7월 2일 어린이 야구단 창단을 위한 예비모임을 갖고 창단 준비에 들어갔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포교국장 인허 스님과 리틀야구단 김헌자 감독, 예비 리틀야구단원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등번호 배정과 야구단복의 디자인과 연습계획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인허 스님은 "미래불교계의 희망인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리틀 야구단을 창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리틀 야구단의 창단을 앞두고 10세에서 13세까지 야구에 관심있는 남자 어린이를 모집중이다. (053)474-8228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단신

백련불교문화원 개원 8주년

백련불교문화원(원장 심전)은 7월 6일 개원 8주년 기념법회를 백련불교문화원 법당에서 봉행했다.

백련불교문화원의 참선, 3천배 기도 정진,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함께 공부해온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저녁예불, 대불정능엄신주 봉독, 회향게, 발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백련불교문화원은 해인사 백련암에 주석했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일반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개원한 이후 8년 동안 상임법사 심전 법사를 중심으로 참선반, 불교교리 입문반, 선문(禪文) 독송, 삼천배, 아비라기도 등의 수행방법으로 대중들의 정진을 이끄는 도심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051)253-0277 천미희 기자

해인사, 테마별 수련회 '눈길'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7월 4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9차에 걸친 수련법회에 돌입했다.

매년 참선과 묵언 등 엄격한 수행코스로 유명한 해인사가 이번 여름에는 '깨어있는 휴식'이란 주제로 참선, 염불, 주력 등 다양한 수행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목을 끌고 있다.

7월 4일부터 8일까지,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1, 2차 수련법회는 참선수행, 7월 18일부터 열리는 3차 수련법회는 염불수행, 25일부터 29일까지는 주력수행, 7차 8차, 9차 수련법회는 기초수행에 중심을 두고 있다.(055)934-3110 배지선 기자

장애인 위한 '계절학교' 열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여름방학을 맞아 실시하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인 '계절학교'에 참가할 장애 아동 및 장애청소년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7월 25일부터 2주간 열리는 계절학교는 미술활동, 음악활동, 견학 등 체험위주의 놀이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054)776-7522~5 배지선 기자

삼사관학교 군법사 임관 및 고불식

7월 1일 영천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거행된 군종사관 제 63기 임관식에서 군 포교를 이끌어갈 군승법사 16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9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마치고 새롭게 탄생한 해군 3명, 공군 3명, 육군 10명의 신임 군승법사는 임관식 후 삼사관학교 군 법당 호국사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한 은사스님과 사형, 사제, 도반, 속가 부모 친지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고불식은 부처님 전에 3배, 은사스님에게 3배, 전법칙령 합송, 발원문 낭독에 이어 도영 스님의 선물증정으로 진행됐다. 배지선 기자

e-book과 외국불서판매까지~
여시아문과함께독서로 즐거운 여름을 보내세요!
www.yosiamun.com

마하야나불교대학 강좌 개설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부설 마하야나불교대학(학장 무문)이 8월 2일부터 한달간 불교기본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화 ·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법회를 열며' '절을 찾아서' '불교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에 따라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과 운문사 학감 일진 스님, 마하사 주지 재원 스님 등이 강단에 오른다. 마지막 강의가 열리는 8월 26일에는 법혜 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이 진행된다.

마하야나불교대학은 사원주지연합회 부설교육기관으로 1988년 설립되어 지역불자들의 교육에 큰 몫을 담당해왔다.

백장선원 '한여름 밤 음악법회'
(053)629-0408 배지선 기자

21세기 새로운 불교수행공동체를 기치로 지난 5월 창립한 백장선원(이사장 원구)이 대구 능인선원과 함께 '한여름 밤 음악법회'를 개최한다.

7월 16일 오후 6시 대구 가창 허브힐즈에서 개최되는 음악법회는 1부 저녁공양, 2부 법회, 3부 음악회로 진행되며, 대구 능인선원 주지 혜장 스님이 법문을 하고 시명 스님, 이동원, 김경애, 최광철 등이 출연한다. 그 외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마하야나 합창단과 서봉사, 성화사 합창단이 출연 법음을 들려준다. 일반인 회비는 1만5천원이며 백장선원 정회원과 청소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5학년도 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서울 · 부산 / 2년제 4학기)

대원불교대학은 동국제강(주) 창업주이며, 불교방송 개국의 모태인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이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대중화의 원력에 따라 설립된 불교계 최초의 교양대학입니다.

교육목표
불교학은 불타의 교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불교적 인격과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학문으로서, 인간심성의 본질과 삶의 문제, 참다운 인간상과 이상사회의 실현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해명과 비전을 담고 있는 종교학이자 철학적 성격을 담고 있는 학문으로서, 교학으로서의 진리성과 수행으로서의 방법론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상체계입니다. 따라서 분석적 사고를 통한 냉철한 지성과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수행으로서의 실천이 요구되는 학문입니다. 이에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사상이 현재와 미래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비젼을 제시하고, 지혜와 자비의 불교적 인격을 갖춘 사회 지도자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둡니다.

체계적인 이수방법
대원불교대학은 입문과정, 대학과정, 대학원 과정의 단계적 심화 학습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문과정은 불교 초심자를 대상으로 불교기초교리 및 사찰예절, 문화사 중심의 강의로 보다 친숙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며, 이어서 대학과정으로 진학하여 본격적인 불교학의 기본적 이해로부터 체계적인 교학과 불교사 학습에 역점을 둡니다. 대학원 과정은 보다 심도있는 강의와 불교 원전 강독을 통해 불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게 합니다.

모집과정
● 입문과정 : 부산 / 불교입문과정 주 · 야간반 각 00명 (주1회 출석 오전11시)
● 대학과정 : 서울 / 야간반 00명 (주 2일 출석 · 5과목)
부산 / 주 · 야간반 각 00명 (주간 :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주 2일 출석 · 5과목)
● 대학원 과정 : 서울 / 야간반 0명, 부산 /야간반 0명 (주 2회 출석 오후 7시)
● 통신과정 : 00명

지원자격
● 입문과정 : 불교 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 과정 : 불교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포교사 자격 소지자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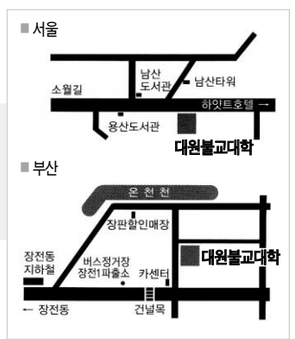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5년 7월 1일 - 2005년 8월 25일
● 원서접수 : 2005년 7월 2일 - 2005년 8월 26일 (대학원은 8월 18일까지)
● 대 학 전형 : 입문과정 및 대학과정은 서류 전형
● 대학원 전형 : 면접 및 구술시험일
서울 / 2005년 8월 20일 토요일 14:00 (2층 대학원 강의실)
부산 / 2005년 8월 21일 일요일 14:00 (4층 대학원 강의실)
● 합격자 발표 : 2005년 8월 23일 (개별 통보)
● 입 학 식 : 서울 / 2005년 8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큰법당
부산 / 2005년 8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입문과정 10,000원, 대학과정 20,000원, 대학원과정 50,000원
● 수업료 : 입문과정 1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불적답사 등 행사비 포함) / 대학과정 2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불적답사 등 행사비 포함)
(학기당) 대학원과정 25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불적답사 등 행사비 포함) ※2회 분할 납부 가능
●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서울 /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부산 /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TEL 02)754-1613, 773-9171
● 부산 : 부산대원불교대학 교학과 TEL 051)583-7700, 583-7811-2
※전화 신청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학업계획서 1부 (대학원 과정)

■ 서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TEL 02)754-1613, 773-9171 FAX 02)771-6796
• 지하철 : 1호선 서울역에서 하차하여 남대문 방면 출구 • 버스 : 서울역 4번출구 남대문 방면에서 시내버스 402번 0014번 승차 '후암약수터' 앞 하차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82-3 / TEL 051)583-7700, 583-7811-2
• 지하철 : 장전동 지하철역 1번출구에서 부산대 정문방면으로 도보 2분거리
• 버스 : 29, 29-1, 29-2, 49-1, 51, 51-1, 51-2, 77, 80, 80-1, 100, 121, 130, 130-1, 178 장전 1파출소 정류소에서 부산대 정문 방면으로 오시다가 카센터에서 좌회전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빌어먹으며 무소유를 배운다

수덕사, 탁발체험 선 수련회 개최

"걸식은 식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음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분별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하여 모든 것이 꼭두각시와 같은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걸식한 밥은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부처와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 먹어야 남의 보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번뇌를 버리지 않고서도 해탈에 들고, 집착을 끊지 않고서도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유마경〉'제자품'

부처님 당시 매일 아침 발우를 들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음식물을 받던 전통에서 유래된 탁발.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걸식을 하며 무소유를 실천했던 것이다. 경허 · 만공 스님 등이 근대 선풍을 진작시킨 선지종찰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가 이러한 전통을 되살려 탁발 정신을 접목시킨 '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7월 27~30일(3박 4일), 8월 4~6일(2박 3일), 8월 10~13일(3박 4일) 세 차례 걸쳐 실시되는 선 수련회에서는 각각 둘째 날(2박 3일)과 셋째 날(3박 4일) 오후 4시부터 수덕사 인근 사하촌에서 탁발체험하기 행사가 열린다.

인근 사하촌서 세차례 실시
108배 · 철야정진도 병행

이 때 참가자들은 자신의 발우를 들고 사하촌을 돌며 밥과 반찬 등을 보시 받으며 아집(我執)과 아만(我慢)을 다스린다. 또 보시자는 베품을 통해 공덕과 복덕을 쌓게 된다.

탁발한 음식물을 들고 다시 수덕사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발우공양을 하며 탐심을 버리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된다.

선 수련회에서는 탁발체험하기 행사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108배와 선(禪) 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한다. 또 매월 음력 그믐날 사부대중이 모여 철야정진을 하는 등 선지를 이어오고 있는 가풍을 바탕으로 참선과 행선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탑돌이 및 촛불의식과 차 한 잔을 나누며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가슴을 털어내고 진정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선 수련회 행사를 관장하는 수덕사 포교국장 지오 스님은 "선 생활화와 선풍진작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탁발체험하기 행사를 선 수련회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며 "남방불교에서만 이어져오고 있는 탁발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41)337-656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오송 분기점 결정에
사찰·환경단체들 강한 우려

계룡산 국립공원 뚫리나?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6월 30일 충북 오송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계룡산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을 시작으로 행정도시 예정지 충남 연기군과 논산을 거쳐 전북 익산으로 빠져나가면서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계룡산 국립공원은 현재 국도 1호선 관통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환경단체는 물론 인근 사찰들도 고속철도 관통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이용원 사무국장은 "오송 분기점이 확정돼 고속철 구간이 건설되면 계룡산 국립공원 파괴는 피할 수 없다"며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 갑사 주지 장곡 스님도 "전 국민의 안식처인 계룡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훼손돼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산을 훼손하고 수많은 사찰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이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9억1천4백만원 지원 약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낙산사, 지역민에 자비 실천

양양군이 책정한 복구 기금 "군민위해 써달라"

지난 4월 화마로 대부분의 전각을 소실한 낙산사가 양양군민을 돕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7월 2일 낙산사에서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양양지역 산불피해 복구기금 9억 1400여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했다.

원래 이 금액은 양양군이 낙산사 복구기금으로 책정한 것이지만 정념 스님이 오히려 양양군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이진호 군수에게 뜻을 전한 것이다.

정념 스님은 "낙산사의 피해도 적지 않지만 양양군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가 더 크다"며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호 양양군수도 "150여명의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이미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아주신 정념 스님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었다"며 "주민들이 산불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낙산사는 6월 24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방문객들에게 국수를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혜룡사, 담양 공수부대 위문

광주 무등산 혜룡사(주지 혜우)는 지난 7월 1일 담양 공수부대를 찾아 장병위문공연을 펼쳤다.

부대 창설기념일을 맞아 펼쳐진 이날 위문공연에는 가수 서우정, 배소연, 한태진씨 등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연예인 20여명이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혜우 스님은 "무더위 속에서 훈련으로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힘이 되고자 부대를 찾았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즐기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연에 앞서 부대장 박대섭 준장은 지난달 현충일을 맞아 훈련중 사망한 군장병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담양 부대내에서 봉행한 혜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봉은사, '효' 주제 법석 마련

지난해 수행일기를 작성하는 등의 독특한 우란분절 행사를 마련했던 서울 삼성동 봉은사가 올해에는 효사상을 주제로 큰스님 법석을 마련했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7월 8일 열린 묘허스님(단양 방곡사 회주)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큰스님을 초청해 49일 지장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어 7월 15일 우룡 스님(함월사 조실), 7월 22일 정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7월 29일 혜인 스님(단양 광덕사 회주), 8월 5일 원혜 스님, 8월 12일 정락 스님(화성 용주사 주지)이 계속해서 법석에 오르며, 회향일인 8월 19일에는 다시 원혜 스님이 법문한다.

특히 우란분절인 8월 19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봉은사 경내에서 영산재와 사경, 하안거 회향, 아름다운가게 1주년 기념식 등으로 구성된 '생명해방축제'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광주 동구청 불자회 수계식

광주 동부불교협의회(회장 지각)는 지난 7월 5일 무등산 동원사에서 '동구청 불자회 삼귀의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사 지암 스님은 법어에서 "계를 받고 진정한 불자가 되기를 발원했으니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 불자된 도리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동구청 불자회원 35명이 수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양주 지장사

주민과 함께 6바라밀 실천



양주 지장사는 5월1일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야보탑 낙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반야보탑 안 법당에서 진행된 낙성법회 모습.

경기도 양주 덕계동에 위치한 지장사. 지장사에 들어서면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당을 갖추고 있는 커다란 탑이고,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이다. 이 두 가지는 지장사가 어떤 사찰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장사가 창건된 것은 1965년. 현 주지인 대운 스님(선학원 재무이사)은 지장도량이자 지역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사찰을 가꿔보겠다는 발원으로 이곳 양주에 터를 잡고 불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지장사는 대운 스님의 발원대로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지장도량이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찰로 자리 잡았다.

반야보탑 안 법당 마련, 사경법회 등 활발
8년간 불우이웃돕기…지장전 건립 계획

지장사가 자랑하는 커다란 탑은 인도 아쇼카왕이 건립했다는 산치대탑을 본떠 만든 '반야보탑'이다. 건평 108평에 높이만도 19m에 달하는 큰 규모다. 돔 형식의 이 탑 안은 법당으로 조성돼 있는데, 내외벽은 불보살상을 양각으로 조성했으며, 법당 주불인 아미타부처님의 크기도 6m나 된다. 탑의 재질은 화강암 원석인데, 돌 하나 무게만도 12톤이나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하니 반야보탑의 위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원석을 하나하나 쌓으며 스님과 신도들은 7년간 기도했다. 반야보탑은 이렇게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으로 태어났다.

주지 대운 스님은 신도들에게 반야보탑에 깃든 초발심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늘 강조한다. 그래서 신도들은 일요법회는 물론이고 사경법회와 찬불가법회 등을 통해 활발한 신행을 하고 있다.

거사회와 합창단 등 각 신행단체들의 움직임도 활기차다. 오는 10월부터는 100일간 열 차례 진행되는 '천일지장경 독송 10회향 기도회'를 시작해 2008년에 회향한다. 입제식에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인 지관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지장사 신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신행지표가 있다. 바로 '6바라밀 실천'이다. 대운 스님은 '바라밀(바라밀)'이라는 글을 직접 써 넣은 부채를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운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보시 바라밀'. 이런 이유로 지장사와 신도들은 8년간 불우한 지역민돕기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지장사는 지금 반야보탑 옆에 지장전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의 뜻처럼, 마지막 한 중생까지도 성불로 이끌겠다는 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한명우 기자

삼매체험 참선 · 단식 수련회 안내

· 공부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루고, 간화선 이전의 선에 대해 접근한다.
· 초보자에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점검이 가능하다.
· 단식으로 체질과 사고의 틀을 바꾼다.

문답식 법문으로 정진과 점검을 반복한다. 의정이 돈발할 수 있는 동기를 갖도록 한다.
공부정도와 상황에 다른 구체적인 자세와 병통을 치유하는 법을 배운다.
수련기간에 생활속에서 참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든 구조 즉 나와 남, 정신과 물질, 있음과 없음, 높고 낮음, 빈부와 귀천, 행불행 등 갈등과 모순을 통해서 파생되는 부조화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다.

※**단식효과** : 수행을 통한 단식으로 단식에서 오는 정신적인 부분을 체험하여 단식차원을 높인 수행이다. 지혜와 인내심을 키우고 인간한계를 바라보는 기존관념에서 탈피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려운 단식이 아니며, 바꾸고자하는 생활폐턴의 변화를 기하는데 꾸준히 이어져오는 음식을 끊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체질개선의 효과와 체중감량 위장병 피부미용 피부질환(아토피)등 각종 질환에 부작용없는 치유법이다. 예비 단식과 단식후 보식기간 없이 가능한 단식이므로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이다.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당료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도 단식에 들어가며 약을 끊고 단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병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한 단식(예- 직장인이 출퇴근을 하며 가능함. 7일간 체중 6kg 빠짐)

홈페이지 www.wseon.com 원명선원.kr
대상및인원 · 성인남녀 70명
수련일정(6박 7일) ■ 1차 : 05. 7. 27 – 8. 2 ■ 2차 : 8. 4 – 8. 10 ■ 3차 : 8. 17 – 23
※ 가을, 겨울 수련이 있습니다.
접 수 · 05년 7월 25일 까지 선착순 마감.
접 수 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오현고교옆)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회 비 · 후원금으로 접수 (생계가 어려운 자는 고려함)

자성불 무차도량 원명선원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

‘움직이는 불교’ 변화바람 분다


봉선사 주최로 6월 12일 영종도 마시란 해변에서 열린 어린이 갯벌체험 행사 모습. 교종본찰인 봉선사는 각급 법회와 신행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복지에 나서면서 역동적인 사찰로 변모했다.

경기 남양주·구리·가평

남양주 봉선사 중심 법회·신행단체 활동 왕성

구리 기독교세에 밀려 침체…활로찾기 고심

가평 불교대학 잇따라 열고 신도교육 역점

남양주·구리

남양주와 구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각각이지만 두 도시의 불교는 한 몸체다. 두 지역 사찰들의 연합체인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체는 남양주 불교다. 사찰 수로만 봐도 구리의 30여 사찰에 비해 남양주에는 100여 사찰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봉선사가 자리잡고 있다.

남양주 불교는 봉선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선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다, 이 지역의 상당수 사찰이 봉선사 말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선사의 역량은 남양주 불교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요즘 남양주 불교 흐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봉선사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봉선사는 2003년 10월 철안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정적인 사찰’에서 ‘동적인 사찰’로 변신했다.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재개되고, 자원봉사단 등 각급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해졌으며,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해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신행과 사회활동으로 봉선사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남양주 불교가 최근 2년 새 상당히 바뀐 것도 바로 봉선사의 변화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평화·환경·인간’ 프로젝트는 향후 봉선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평화와 관련해 철안 스님은 화천군과 공동으로 이라크와 코소보 전쟁 참전국들과 중공군(한국전쟁 당시)의 탄피를 모아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이 보이는 곳에 ‘평화의 종’을 만들어 세계 평화를 다짐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환경 프로젝트는 이미 실행 중이다. 얼마전 소방차를 구입해 봉선사와 인근 수목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게시판을 경내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상’ 제정 방침도 세우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인간’ 프로젝트는 곧 인재불사이자 인간에 대한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다. 광동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운허 스님과 역경 및 교육에 평생을 바친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의 뜻을 이어 ‘어린이에게 꿈을, 어른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는 안심을’이라는 모토로 각종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남양주 불교가 변하고 있는 데는 지역불교를 발전시켜보겠다는 몇몇 사찰들의 노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대광사(주지 혜원)를 중심으로 한 남양주 수동면 소재 20여 사찰들이 지난해 11월 수동사암연합회를 결성하고 노인잔치와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거리탁발에 나서면서 ‘움직이는 불교’ 이미지를 심었다.

또 무량사(주지 금담)는 자원봉사단체인 천수천안 남양주·구리 지부를 결성해 봉사활동에 나섰고, 원명사(주지 대륜)는 불교전통풍물 강좌, 백천사(주지 무구)는 노인잔치, 해원사(주지 해동법사)는 군 포교, 원적사(주지 남은)는 청소년 장학사업 등의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의 대부분 스님들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외 없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봉선사 주지이자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 회장인 철안 스님이 포교경험이 풍부한 무량사 주지 금담 스님을 사원연합회 공동회장으로 받아들이는 등 화합무드를 조성하면서 사원연합회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물론 남양주 불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 많은 사찰이 ‘발전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아파트와 교회 등이 계속해 들어서고 있는 급속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뜻있는 스님들은 말한다.

남양주 불교가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구리 불교는 기독교세에 밀려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3년 구리사암연합회 결성이 좌초되면서 사찰들 간의 교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평

남양주와 마찬가지로 가평 불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가평 불교를 대표하는 현등사 백련사 대원사가 자리잡고 있고, 가평의 상면과 하면에 위치한 사찰들의 연합체인 상·하면 사암연합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가평불교 1번지인 현등사는 가람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신행과 포교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사찰을 지역민들의 휴식처로 가꾸는 등 ‘다가가는 불교’ 이미지를 심으면서 지역불교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백련사는 불교교양대학과 경전학교, 일요법회를, 대원사는 구역법회와 불교교양대학을 통해 신도교육과 신행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상·하면에 위치한 사찰들이 단합해 연합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면서 지역 불자들의 자긍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가평불교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가평은 100여 개의 사찰이 있는 전통적으로 불교세가 강한 곳이다. 하지만 사암연합회가 없는 데다, 일부 사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통일교 본부와 에덴 선교센터가 자리 잡으면서 불교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의 사찰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가평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사암연합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고, 군청 불자회와 경승 구성도 준비 중에 있는 등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추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평화·환경·인간’ 포교 모토

철안 스님 (봉선사 주지, 남양주·구리사원련 공동회장)



“젊은 마인드와 과감한 결단력으로 남양주 불교의 새 시대를 열었다.”

남양주 스님들은 한결같이 봉선사 주지 부임 후 1년 9개월 간의 철안 스님 활동을 이렇게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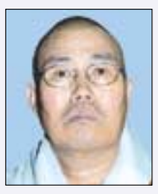
최연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로 불교계 안팎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철안 스님은 2년도 안돼 봉선사를 역동적인 사찰로 변모시켰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를 모토로 사이버법당을 열고 영어학당을 개설하는 등 포교 활성화에 나섰으며,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모내기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봉선사’라는 이미지를 고양시켰다. 일주문과 대웅전 현판을 한글로 바꾸고 경내에 있는 유치원을 리모델링하는 등 친근감도 높였다.

이와함께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장을 맡아 지역 사찰들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천수천안 남양주·구리 지부장을 맡아 지역복지에 적극 나서면서 남양주 불교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철안 스님은 ‘평화·환경·인간’을 추구하는 새로운 봉선사 이미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한일교류·복지사업 ‘구슬땀’

남정 스님 (남양주 수진사 주지, 총화종 총무원장)



15년째 총화종 총무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종단협의회 상임이사, 경찰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고문으로도 활동중이다.

22년 전 수진사를 창건, 지역불교 발전에도 기여했다. 현재는 남양주 경찰서 경승실 고문, 남양주·구리사원연합회 고문, 천수천안 남양주 지부 고문 등을 맡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남정 스님은 독거노인을 돕고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생각이다.

수동면 20여 사찰 화합 주도

혜원 스님 (남양주 대광사 주지, 수동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2년 전 대광사를 창건, 남양주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 소재 20여 사찰의 연합체인 수동사암연합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주도하는 등 연합회를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 수동면 사찰들과 함께 불교회관을 마련해 교양대학을 운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지역포교에 나서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박차

금담 스님 (무량사 주지, 남양주·구리사원련 공동회장)



올해 초부터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다. 고양사암련 회장을 맡았을 당시 자원봉사단체인 천수천안 창립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6월 천수천안 남양주·구리 지부를 창립, 봉사단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 경승으로도 활동중.

금담 스님은 지역여건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불교문화를 통해 지역정서를 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신이 확고하다.

교양대학·경전학교 문열어

승원 스님 (가평 백련사 주지, 상·하면 사암연합회장)

승원 스님은 5년새 백련사를 가평 불교의 중심사찰로 가꾸어 놓았다. 교양대학과 경전학교를 개설해 신도교육에 나서는 한편, 군 및 교도소 포교활동도 하고 있다. 또 상·하면 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일반에 분양하는 사찰 납골묘와는 달리 신도와 그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도탑을 조성해 놓았으며, 약수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도 돕고 있다.



‘스노보드 수련회’ 이색 포교

가산 스님 (남양주 보광사 주지)



가산 스님은 1989년 미국에서 미주현대불교를 창간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불교방송을 설립하는 등 해외 포교활동을 벌이다 1998년 귀국, 지금까지 보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봉선사 총무국장 소임을 두 번째 맡고 있을 정도로 종무행정에도 밝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남양주·구리사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남양주 시청 불자회인 ‘보리회’ 결성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정기적으로 ‘스노보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이색포교를 벌이고 있다.

진입로 개설 등 사찰 재단장

초격 스님 (가평 현등사 주지·조계종 중앙종회의원)

4년 전 주지로 부임한 이래 현등사를 확 바꿔놓았다. 전각 보수불사와 진입로 개설 등 외형은 물론이고 불교대학을 통한 신도교육 등 내실도 다졌다.



가평군 상·하면 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군법당을 방문하는 등 군 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초격 스님은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월1일부로 민주평화통일정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불교대학 통해 교육 체계화

도일 스님 (가평 대원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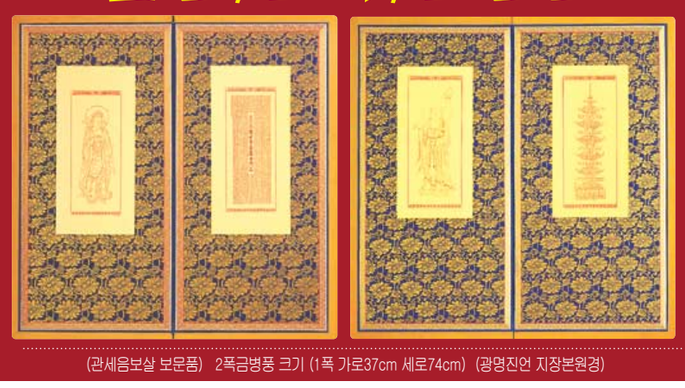
도일 스님은 40대 초반의 젊은 스님답게 대원사를 활기차게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대원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불교교양대학을 개설, 신도교육에 나섰다. 공무원 교양대학 수강자들의 편의를 위해 읍내의 신도 사무실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대원사 대웅전 아래 위로 시민선방과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영가천도 소장용 호신용 불사 상량식 복장의식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홍가사 소유권 어디?

열반종, 특허 등록…태고종 "권리 인정 곤란"

'홍색 가사는 누구 것일까?'

불교 전래와 함께 들어와 2천 년의 전통을 이어온 홍색 가사를 두고 때 아닌 소유권 논쟁이 일고 있다. 대한불교 열반종(총무원장 해곡)이 전통의 홍색 가사를 특허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홍가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상황파악에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발간된 <한국의 가사>(빛깔있는책들). 해곡 열반종 총무원장은 책의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 "책에서 태고종의 특징적인 가사로 서술된 가사는 이미 열반종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이를 확인한 결과 열반종은 수년 전에 붉은 빛 가사 색상, 삼족오·토끼로 나타낸 일월(日月) 문양, 모서리의 天자와 王자 문양 등을 수용한 전통 가사를 특허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복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열반종이 특허 등록을 낸 홍가사는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현재까지 계승돼 온 불교 복식의 전통적인 형태다. 따라서 불교계 안팎에서는 열반종이 불교계의 동의없이 종단 차원에서 전통 가사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곡 총무원장은 "태고종을 비롯한 다른 종단이 홍가사를 입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으며, 특허료를 받겠다는 의도도 아니다"라며 "단지 타종교인들에 의해 침해받을지 모르는 불교 전통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수단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유권 문제의 발단이 된 <한국의 가사>에 실린 전통 홍가사.

또 "특허 등록한 가사에는 얇은 금사를 입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태고종의 가사와는 다른 형태"라고 덧붙였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앞서서 특허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열반종이 특허 등록한 가사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본 이후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불입종 창종 40주년 기념법회

불입종(총무원장 경암)은 6월 30일 제천 송화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경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구원본불(久遠本佛)의 종지와 창종조 태허 홍선대종사의 종지(宗旨)가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내리는 꽃비는 천지에 고이지 않고 스쳐가는 세월은 영겁에 더함이 없다"는 게송을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경암 스님은 봉축사에서 "금년을 제2의 창종 원년으로 삼아서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놓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불입종은 본말사 주지 간담회를 갖고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신 기자**


창종 40주년 기념법회에 참가한 종정 경조 스님(앞줄 왼쪽부터 다섯번째)과 종단 주요인사들.

"강원 현대화·선원 개방 총림 위상 높일것"

선암사 주지 금용 스님 4일 진산식 봉행


순천 선암사 주지 진산식이 7월 3일 대웅전 앞에서 봉행됐다.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26대 주지 금용 스님 진산식이 7월 4일 대웅전 앞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세 사람 이상이 모여 수행하는 것이 화합이니 항상 나를 살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격려사에서 "종단 유일의 총림이 자리한 선암사는 태고종단은 물론 한국불교의 근간이다"며 "신임 주지를 중심으로 선암사 대중과 종도들이 화합단결하자"고 대중에게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선암사 신임주지 금용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1500년 선암사 전통을 살려 후대에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원을 현대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선원을 모든 종도들이 정진토록 개방해 선교 양종 총본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주지 금용 스님과 부주지 승조 스님이 총무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금용 스님은 1941년생으로 55년 성환(석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59년 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후 선암사 재무, 광주전남 종회의장, 태고종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2001년 종

동방불교대 현대미술대전 5명 입상

김희정 교수 우수상·정선 스님 장려상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 교수와 학인 등 5명이 제26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선묵화 부문에 불화 작품을 출품, 전원 입상했다.

1회 졸업생이면서 지금은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희정 교수가 '아미타 삼존도'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선 스님은 '관음 42수'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1학년에 재학중인 박복자 학생은 '벽화', 이양재 학생은 '대량초 가리개', 노혜선 학생은 '용·봉황 가리개'를 각각 출품하여 모두 입선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김희정 교수와 정선 스님은 '수상작 중 특선 이상의 성적을 낸 작가들은 유럽화단에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수상 조건에 따라 유럽화단에 동방불교대학과 한국불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다.


현대미술대전에 입상한 정선 스님, 김희정 교수, 노혜선·이양재 씨.(사진 왼쪽부터).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취임



태고종 제15대 전북 종무원장에 고창 용화사 주지 법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전북종무원은 6월 27일 지방종회를 열고 종무원장 법운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혜명(탑사 회주), 진성 스님(도광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신임 종무원장 법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도화합과 교육, 문화 포교를 통해 종단과 불교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은 7월 9일 전주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준엽 기자

천태종, 교원 수련법회

천태종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논산 금강대에서 전국교원불자 하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백제 불교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법회는 강의와 관음정진, 찬불가배우기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원.

이와 함께 제 40회 천태학생회 하계수련법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개최된다.

학생회 수련법회는 적멸궁 참배, 큰스님 친견, 스님과의 대화, 체험학습, 남천계곡 물놀이, 물속에서 OX 퀴즈, 추억의 보물찾기, 캠프파이어, 관음정진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 (043) 423-7100

김원우 기자

총지종, 여름 학생수련회

총지종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수련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총지종은 7월 25~27일 충남 보령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10회 어린이 여름 학생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과 바다와 함께하는 마음수련의 장'이란 주제로 열리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개별 세면도구, 여벌의 옷, 물놀이 준비물 등이 필요하다. 참가를 원하면 7월 19일까지 총지종으로 연락하면 된다. 총지종은 또 27~29일 같은 장소에서 제15회 청소년 여름 학생수련회를 개최한다.(02)552-1080 **강유신 기자**

불교군종병 선발시험 금강대생 4명 합격

지난 1월 미달사태를 보였던 불교군종병 제도가 금강대 재학생들의 적극 참여로 더욱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

9명을 선발하는 군종병 선발시험에 금강대 김진현(불교문화학2·7월 18일 입대), 이민기(불교문화학2·〃), 서은호(불교문화학2·8월 29일 입대), 유휘종(중어통역2·〃) 등 4명의 학생들이 응시해 5월 17일 최종합격통보를 받았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수행법 연구' 발간

불학硏, 주력·염불·간경 등 체계적 정리

불교 제반 수행법을 한데 묶은 〈수행법 연구〉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가 발간한 <수행법 연구>는 총 97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절, 주력, 염불, 사경, 사불, 간경독경, 계율·참회, 위빠사나, 대승불교의 지관수행, 티벳 수행 등 종단의 대표적인 수행법 10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혜능 스님(해인총림 율원장)을 비롯해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동국대 객원교수), 지창규 교수(동국대) 등 교육원 수행체계 실무연구위원 및 불교학자 40여명이 참여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간화선을 비롯한 절, 염불, 주력 등 수행을 해오면서도 각 수행법에 대한 정리나 수행법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적 연구가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이번 연구의 계기가 됐다. 책은 각 수행법의 경전적 근거와 실제 종단 현실에서 행해지는 현황, 수행의 방법과 절차,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불학연구소장 화랑 스님은 "수행법의 연구는 각 수행법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해 제반 수행법의 정수를 담고 있음을 자신한다"고 밝히고 "종단의 수행풍토 진작은 물론, 간화선 수행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절, 주력, 염불, 간경 및 독경 등 각 수행법을 재편집한 수행지침서를 올 연말까지 발간한다. **조용수 기자**

종무행정 원스톱 서비스

태고종, 당일 처리·담당직원 책임제 도입

태고종 총무원 종무행정업무가 당일 처리 시스템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태고종은 6월 15일 민원행정업무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실무 종무직원 회의를 열고, 종도에게 서비스민원을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종무행정 원스톱 시스템은 모든 민원업무를 종도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민원은 당일 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한 번 맡긴 민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걱정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는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종무직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처리하는 '담당 종무직원 책임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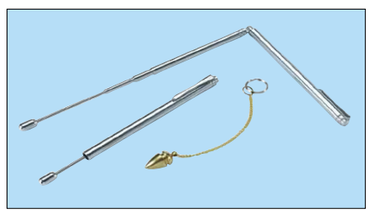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면 유망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안정


그림1


맬토차단캡


모아짐
그림2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어수맥감정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있으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보편적인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엘로드가 오작동을 하므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수맥파 차단 카드

아침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가족 건강위해 인기



(크기 8.5cm×5.5cm)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 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동판을 깐다. 병상밑에서 발산되는 수맥파로 인해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맥파는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중증질환과 중풍, 치매, 만성피로, 수면부족, 오십견, 집중력 저하, 불면증등에 시달리고 수험생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정리를 못하고 짜증을 낸다. 수맥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발표가 있따르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맥파 차단카드 설치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 과학자가 발견한 멜토에너지는 모든 유해파를 중화시키는것으로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 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켜 20평APT나 주택은 완벽하게 차단된다. 수맥파차단카드는 6개월에 한번씩 햇볕에 3시간 충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대단히 가뿐해진다. 가격7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02)741-4477

농협입금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불경에 입각해 부처님법구제작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들어낸 영험의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관세음보살 수진언 영험중 1번으로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은 보화가 들어오며 땅을 소유하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지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영험의 불력으로 금은 보화를 들어오게 하는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부착해 자신감을 갖게했다. 여성용장지갑에는 귀금속 장신구 지퍼주머니가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신분증을 꽂는 창 3개와 신용카드 11개를 꽂을 수 있으며 지갑 뒷면에는 동전 지퍼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복지갑으로 안과 밖이 고급 천연소가죽으로 최고급 지갑이다. 축원불공을 마치고 판매하고 있는 관세음 복지갑은 출시 100일도 안되어 신비의 영험이 나타나, 안돼던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도직전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벌고, 되는 노릇이 없던 가정이 잘되는 등 윤년이 끝나고 관세음보살 축복 시대의 문이열리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보화와 보물을 모은다는 뜻에서 보라색으로 여성이 보라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보화가 끈이지 않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남성용중지갑 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이다.

■문의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대구불교방송
캐나다 공립학교 영어연수
7.26 - 8.21(4주간)
선착순 15명 모집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마곡사·본사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1차 치유명상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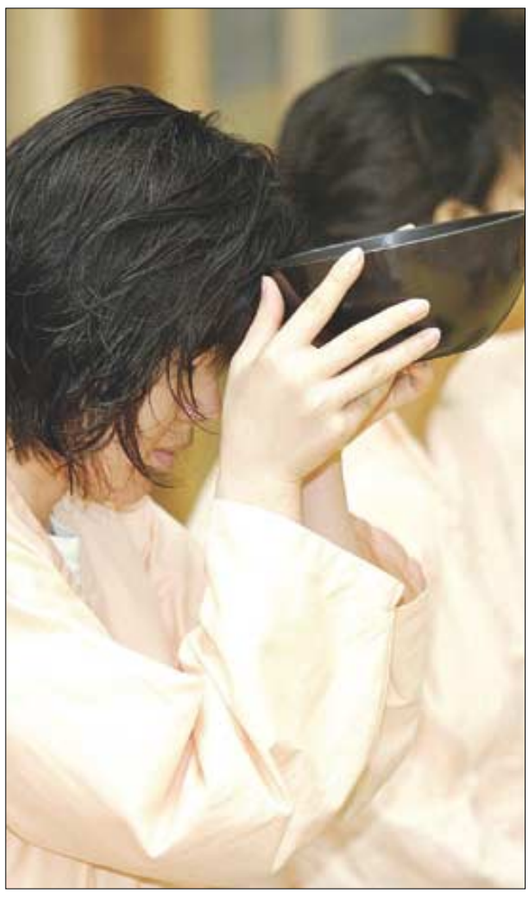
자기마음 들여다 보는 순간 상처는 용서와 자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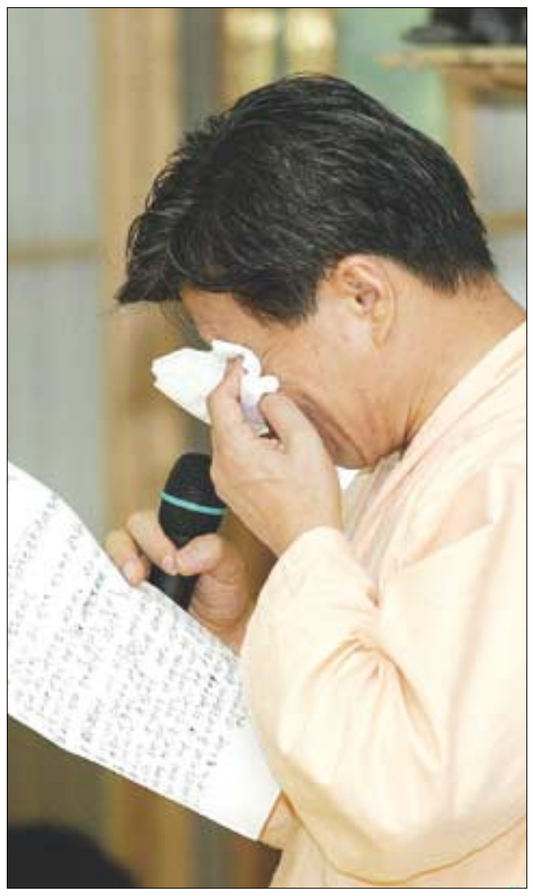
"당신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준 상처, 그 상처로 인해 생겨난 미움과 분노, 증오…. 몸에 난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옭아매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처럼 상처를 다시 마음 한구석에 담아 둘 것인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본사와 공주 마곡사(주지 진각)가 공동 주최하는 '마곡사 여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는 이처럼 나의 상처를 바로 보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1차 '치유명상' 템플스테이가 처음 시작된 7월 1일, 장맛비를 뚫고 28명의 참가자들이 마곡사로 모여들었다. 제각기 안고 있는 상처는 다르겠지만, '불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였다.





매일 먹던 밥 한끼가 내 몸을 지탱하는 약이 되고, 매일 부대끼며 상처를 주던 가족이 내 삶의 바탕임을 우리는 깊은 산사에 와서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내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된다. 발우공양(왼쪽)과 가족명상(오른쪽).

첫 번째 날-마음열기

눈 감은채 상대의 손을 잡고 걸으며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꺼낸다 쑥스러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열린다

처음 본 사람에 묻는 첫 질문은 대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다. 법복으로 갈아입고 연화당에 모여 앉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역시 상대방의 이름표를 힐끔힐끔 쳐다보느라 여념이 없다. 진행자 마가 스님(마곡사 포교국장)은 호기심에 찬 눈길을 거두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 지어보도록 함으로써 '마음열기' 첫 발을 내디뎠다.

'물망초' '무념무상' '허공' '초야' 등 나름의 사연과 서원이 담긴 이름표를 달자, 자신과 타인의 이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렸다.

곧이어 진행된 서로의 장점 말해주기, 바닥에 마주 앉아 손과 발을 맞대고 서로 일으켜주기, 서로 엇갈리게 잡은 손 풀어보기 등을 통해 참가자간의 거리감을 조금 좁히는 데는 일단 성공.

저녁 공양과 예불 후 다시 법당에 마주 앉은 참가자들에게 마가 스님은 참가자들을 두 줄로 눕힌 후 '김밥말기'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오늘 처음 만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몸 위를 구르라고?' 한동안 적막이 흐른다. 몇 번의 재촉 끝에 할 수 없이 어정쩡한 자세로 구르기를 시도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덧 쑥스러움과 낯설음은 저만치 물러나고, '김밥말기'는 신나는 놀이가 된다. 어떤 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뒹굴고 웃고 울게 만들었을까?

어슴푸레 어둠이 깔리자 스님은 참가자들을 절 밖으로 내보낸다. 두 명씩 짝지어 절 근처 반환점까지 다녀오라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상대의 손을 잡고 걸으며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지만 참가자들은 눈을 꼭 감고 발걸음을 옮긴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 내 발길을 상대에게 맡긴다는 것이 마음을 더 움직인 탓일까? 아니 어쩌면 어떠한 편견이나 기대 없이 상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 시간에 걸친 산책이 끝나자 첫째 날 일정이 마무리됐다. 남은 이틀간의 일정 동안 어떻게 내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와 설렘을 안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두 번째 날-상처 드러내기 · 치유하기

거짓된 나를 내려 놓으니 자유롭고 새로워진 자신을 만난다 괴로움은 눈물과 함께 화해로

산사의 하루는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시작됐다. 여느 때 같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이제 막 잠들기 시작할 무렵이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새벽 예불을 마친 참가자들이 넘어야 할 산은 '자신을 위한 108배'. 묘운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한 배 한 배 절을 올린다. 자신을 위한 절.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자 용서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108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위해 절을 해 본 기억이 없네요. 그런 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절을 했습니다."(초야)

땀으로 젖은 몸을 이끌고 컴컴한 새벽 숲길을 걷는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땐 볼 수 없었던 고사리며 반딧불이며 머루를 눈에 담으며, 어슴푸레 밝아오는 길을 되짚어 온다.

발우공양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가족 긍정 명상'이 이어졌다.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떠올리는 시간이건만 참가자들은 못해 준 일,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깊은 상처를 내고 마는 가족을 생각하며 모두가 눈시울을 붉힌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들은 가족을 떠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있었다. 산길을 맨발로 걸으면서도, 툇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마곡사를 바라보면서도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한때 거식증으로 너무 고생했어요. 그때 저보다 더 많이 울고 마음 아파하셨던 어머니가 생각나요. 이제 가족들을 더 사랑할 거예요."(여름)

저녁 공양 후, 이제 드디어 내 상처와 마주할 때가 됐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거짓된 나'를 내려놓는 것.

노래에 맞춰 온갖 몸짓을 선보여야 한다는 마가 스님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다소 난감한 표정이 스쳐간다.

"아직 '하면 안돼' '나는 못해'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보리밥집이라, 쌀밥도 없고 자장면도 없어요. 보리밥이 싫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괜히 왔다'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여기 오기 전의 나와 달라질 수 없어요. 새로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스님의 독려에 힘을 얻은 참가자들은 '뱃노래'에 맞춰 마음껏 망가져(?)본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몸이 열리자 마음도 함께 열린다.

"그동안 왜 이렇게 망가지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외로운 연꽃)

한 바탕 공연이 끝나고 이제는 '유서'를 써야 할 시간이다. 20분 후에 죽음을 맞게 된다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남기게 될까? 그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상처는 '죽음' 앞에서 눈물과 함께 용서와 화해로 바뀌어 간다.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 유서를 태워 보낸다. 새로운 삶을 살면 꼭 해보고 싶은 일도 정리해 본다.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정도 상처로 힘들어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새 삶을 얻었으니 좀 더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야지요."(하늬바람)

세 번째 날-다시 일상으로

지금 여기에 있기에 내가 존귀하다 상대방도 귀하다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준다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니다. 죽음 체험으로 이전의 나와 상처는 사라졌고, '지금 여기'의 내가 있을 뿐이다.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세상 단 하나의 존재인 나. 때문에 나는 존귀하다. 내가 존귀하니, 상대방도 존귀하다. 그런 상대에게 삼배를 올린다. 존경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며 서로를 안아준다.

나를 괴롭히던 상처쯤이야 없어지지 않은들 어떠랴. 이제 그 상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으니, 그것은 이미 상처가 아니다.

"상처는 누가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더라고요.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관음)

마곡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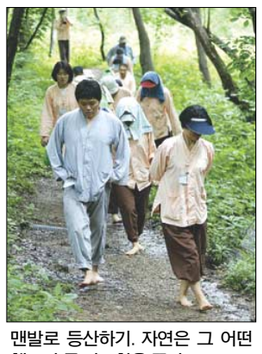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서로에게 삼배를 한 후 존경의 마음으로 안아준다.



손으로 사진찍기. 손으로 만든 틀에 따라 바라보는 대상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내가 만든 작은 틀로만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을까?



엇갈리게 잡은 손을 하나씩 풀어가면 내 마음의 응어리도 함께 풀린다.



맨발로 등산하기. 자연은 그 어떤 책보다 큰 가르침을 준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죽음 명상. 죽음 앞에서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은 눈 녹듯 사라진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요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창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요양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이 883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7월 4일 밝혀지면서 불교계와 미술사학계가 흥분하고 있다. 석불을 통해서만 대략 짐작하던 통일신라시대 목불의 양식이 처음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미술사를 새로 써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사'를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왜 지금까지 통일신라 불상이 조선초기의 것으로 간주돼왔는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착오의 원인을 개금(改金)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부처님 얼굴을 바꿔(?)놓기도 하는 개금에 대해 살펴본다.

'신라' 불상이 왜 '조선作'으로?

계속된 '개금불사'가 원인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의, 개금불사를 위해 칠을 벗겨낸 상태(왼쪽). 얼굴표정이 예전의 개금상태(오른쪽 아래)의 것과 달라보인다. 오른쪽 위는 현재 개금불사를 위해 옻칠된 상태.

개금 시대따라 얼굴 조금씩 달라져
신앙 · 예술 · 과학성 조화된 전통불사
불상 보존에 치명적인 카슈칠 막아야

부처님의 몸빛이 황금색이라고 하는 경전적 근거를 따라 불상에 금박을 입혀 장엄하는 전통이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 금박이 탈락하고 변색되기 때문에 금옷을 다시 입힐 필요성이 생긴다. 이를 개금이라 한다.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 경우에도 개금에 개금을 거듭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조선시대 불상으로 둔갑하게 됐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금불사가 이뤄지는 각 시대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른다. 불사 참여자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개금불사까지 시대의 산물로 치부하며 넘어가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요즘 시행하는 대부분의 개금불사는 개금에 담겨야 할 불심은 물론, 장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외면한 채 진행돼 불상 보존에 치명적인 위기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판명된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이 단적인 예다. 2000년 개금한 불상을 불과 5년만에 다시 개금해야했다는 것은 이전 개금이 엉터리였음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금불사의 핵심-옻칠

개금작업하면 금박 입히기를 떠올리기 십상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작업은 옻칠이다. 옻칠은 목불을 병충과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옻칠을 잘 해야 금박도 잘 붙고 오래간다.

개금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존의 금박과 칠을 벗겨내는 작업이다. 목재가 드러날 때까지 칠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1~2회에 걸쳐 생칠을 먹인다. 칠은 목재로 스며들어 바탕을 단단하게 한다.

다음에는 삼베를 씌우고, 찹쌀과 생칠을 섞은 호칠을 바른다. 이는 목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삼베는 목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삼베를 씌우고 나면 토분과 생칠을 섞어 만든 재료로 삼베 실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고, 사포질을 해서 오톨도톨한 부분을 다듬는다. 이를 눈메우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토분과 생칠, 물 등을 섞어 칠(토회칠)하고 사포로 다듬기를 3회 가량 반복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목재의 면은 더욱 고르게 다듬어지고, 견고해진다.

토회칠을 마치고나면, 다시 생칠을 먹인다. 토회칠 과정에서 물을 섞어 표면에 생긴 모공에 생칠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모공이 생칠로 메워진 목재는 더욱 단단해진다.

토회칠 다음에는 초칠 · 중칠 · 상칠이 기다리고 있다. 상칠은 아주 고운 칠로, 먼지 하나 들지 못할 밀폐된 곳에서 작업하게 된다. 상칠 작업을 고운 칠로 하는 까닭은 이 바탕 위에 금박을 입혀야 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생칠 작업부터 상칠 작업까지 두 달 가량 소요된다.

금박은 상칠이 완전히 마르기 직전에 붙인다.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박 붙이기 또한 밀폐된 곳에서 작업해야한다. 먼지가 붙으면 표면이 깔끔하게 되지 않고, 바람이 불면 금박이 날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금박은 주로 불상의 의복 부분에 사용되는 반면, 피부부분에는 금가루를 붙인다. 금가루는 무광 효과를, 금박은 광택 효과를 내는 데 이용된다. 금박 붙이기가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나면 불상에 눈썹, 입술, 눈동자 등을 표현하는 '점안'이 가능하다.

장인정신 실종 … 원형 훼손도

옻칠을 사용한 개금불사는 이처럼 까다롭다. 한 마디로 정성과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다보니 별로 선호되지 않는다. 카슈칠이라고 하는 훨씬 '간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카슈칠은 열대지방에서 재배되는 카슈(Cashew)라고 하는 견과류에서 액체를 추출하고, 여기에 화학물질을 첨가해 만든 칠재료다. 카슈칠은 일제시대 '서양 옻칠'로 소개돼 도입됐다.

이후 비싼 천연 옻칠을 대체하며 각광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교자상은 대부분 카슈칠을 쓴 것이다.

카슈칠은 옻칠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옻칠로 두 달 가량 걸릴 일을 10여 일만에 끝낼 수 있어, 카슈칠은 비용절감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는다. 하지만 불상 보존의 측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다. 즉, 카슈칠은 기름이 많이 섞여 있어, 옻칠이 갖고 있는 자동 습도 조절이나 통풍 등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카슈칠 안쪽에서 부식이 나타나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칠의 수명이 짧아 금박의 변색과 탈락이 쉽게 나타난다는 것도 약점이다. 전문가가 아니면 카슈칠과 옻칠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카슈칠의 눈속임 사용을 부채질한다.

문화재청, 카슈칠 사용 조장(?)

해인사측이 일부 공개한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개금불사 사진에 따르면 이 불상 역시 예전에 옻칠이 아닌 카슈칠이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확인한 이종헌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문인서화학과)는 "의복부분에 나타나는 붉은 빛이 카슈칠의 흔적"이라고 단언했다. 개금한 지 불과 5년만에 다시 개금해야 하는 원인이 카슈칠에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근래의 개금불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칠을 쉽게 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학소재를 불상 표면에 두껍게 올리는 경우도 많다. 금을 아끼기 위해 굴곡을 메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화재청도 카슈칠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 도금공 분야에서 카슈칠 사용을 전제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금이란 부처님 옷을 새로 입히는 불사다. 제대로 하면 그 금빛이 50년 이상 유지되고 불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이유로 엉터리로 개금을 하면 불상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불심마저 병들고 만다. 이종헌 교수는 "개금불사는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는 불사인 만큼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작업 과정을 꼼꼼하게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보고서도 남기게 해 작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도움말=이종헌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인서화학과)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8>

브라운 운동과 인연

지난해 <타임즈>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선정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세 개의 위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것들의 주제는 '전자의 광효과' '상대성이론' '브라운 운동' 등이다.

브라운 운동이란 물 속에 잉크가 확산해 나가는 것과 같이 불규칙한 운동을 말한다. 향을 사를 때, 공기 중에 향 연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 또한 불규칙한 브라운 운동이다. 아인슈타인은 잉크의 불규칙한 운동이 물속에서 수많은 작은 물분자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향 연기 분자 또한 공기 중의 작은 분자들과 부딪치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임의운동이라고 부른다.

향 연기 분자 하나하나의 임의 운동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은 확률이라는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즉 향 연기의 집단적인 움직임의 평균과 평균을 따르지 않고 퍼져있는 정도를 편차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이 편차가 우리가 느끼는 열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기나 물 분자의 열이 높으면 그만큼 불규칙한 운동이 많아져서, 잉크나 향연기가 퍼져나가는 편차를 크게 만들 것이다.

TV나 전축에서 소리나 화상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내부의 전자의 운동 또한 비슷한 임의 운동을 하고 있다. 심야에 TV 신호가 끊겼을 때, TV 스크린에 나타나는 불규칙한 점들은 바로 전자의 임의운동이 화상으로 바뀐 것이다. 브라운 운동과 같은 불규칙한 운동은 실제로 우리 생활 도처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맥박이 뛰는 신호 역시 일정한 규칙성(평균)과 함께, 편차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떨 때는 평균보다 늦게, 어떨 때는 평균보다 빠르게, 예측할 수 없는 임의성을 가지고 뛰고 있다. 어린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은 어머니 심장 박동의 임의성 때문이라고 한다.

생물이 태어나는 모습 또한 부모 측이 만들어 내는 임의의 DNA 조합이다.

생명은 부모가 생성한 임의의 DNA 조합
분자가 한순간 존재하는 방법은 하나뿐

따라서 생물학에서 발현하는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서 우성과 열성의 비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긴 모습, 살아가는 모습 또한 공기 중을 불규칙하게 떠다니는 연기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기가 공기 분자에 의해서 임의로 움직이듯이, 나의 모습 역시 과거의 임의성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향 연기 분자 하나를 따라가면, 그 분자 하나가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분자를 있도록 한, 과거의 수많은 공기분자들의 부딪힘 또한 한가지 밖에 없다는 놀라운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다. 비록 인간이 불규칙한 임의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말이다. 내가 가끔 작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나를 있게 한 알 수



그림 : 문병성

수신토종오가피
禮獻人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수/신/토/종/오/가/피/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쁠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회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개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학 인 모 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범음·범패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무보시 학인을 모집합니다.
바라, 사물 다루는 법, 49재, 의식 및 전통교육
문의처 055)381-1199

눈
• 밝은눈, 맑은눈, 천연한방차
• 눈건조, 컴퓨터 눈건조, 시력향상
하루 3잔드세요 02)478-6262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720-5682

연꽃그림에 부처님말씀 담아 드립니다
한지에 한국화(미표구)
● 크기 : 소, 중, 대,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선물용, 판매용
● 전화주문 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 착수 등기 속달
● 입금 계좌 :
농협 150039-56-064426 이상근
연꽃화가 018-588-5698
안동 하회마을 입구 한지마을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주2회(화,금요일) 2시간씩 5개월간
초보(입문)에서 예행, 연수까지 책임완성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6호선 망원 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빙의 신들린 영가로 인한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전문상담
031)251-5778
010-3033-5770

①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를 찾습니다.
→ 천일기도 후 수계함(40세 미만)
② 사찰에서 생활할 노부부를 모십니다(보시금 없음)
③ 총무 소임으로 사찰을 관리할 비구나 비구니를 찾습니다
011-9803-6301
041-566-0722
033)334-0730

사찰운영같이 할 분 모심(스님, 처사 보살)
1. 위치: 경주, 사찰규모 패쿰 환경교통 좋음
2. 소자본필요(사찰소유 부동산 등기 같이 함)
010-7228-4817

수행할 도반를 찾고있음
남은 인생을 시골에서 함께 수행적 삶을 살고저 하는 사람
50대 초반 혼자된 보살님
불교적 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함
011-9458-40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서울 구로동)
011-9123-3770
019-369-0453

공양주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사무직보살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40~50대)
011-828-3618

부전스님 모십니다
유서깊은 도심사찰
금법당 수국사 사부대중 합장
02)356-2001,
011-746-8698

천일기도 하실 스님, 기도하실 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경북
011-561-6644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32-4885

40세 이상 부전스님 구함
031)641-6311

총무보살님 구합니다
▷ 40~50대 이상
031)978-9782

평생도반 모십니다
법당, 요사채, 용궁, 대지, 전답, 임야 3천평 소유.
고통에 시달리는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 마음편히 살아가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동참금 3천만원)
018-406-3073

신심있는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50대 이상
사찰생활 하시면서 농사 지으실분 연락주세요
011-483-5639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6-9730-3003

행자(18세~29세 이하)님과공양주 보살님(50~60대)을 모십니다
▷조계종 전통사찰
031)826-3573
017-503-3573

공 양 주 구 함
▷부산 사하구
011-509-012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영천
054)336-1575
010-4854-15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출퇴근 가능한 분)
서초구 양재동 도현사
011-9269-8445

서울시내 조용한 조계종 사찰입니다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6-9755-8988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구 직
60대 중반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도량관리하며 남은생을 봉사하며 살곳을 찾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공 고
● 승적번호 329 ● 주민번호 : 530510-1465128
● 성명 : 박종대 ● 법명 : 명진
상기인은 본종 상벌법 제15조 2항 4항에 의거 체탈도첩 하였음을 공고함
불기 2549년 7월 7일
대한불교본원종 상벌위원회
위원장 : 윤자광 위원 : 박지우, 박보경, 변대웅, 박법훈, 이혜공, 안자관, 구원각, 강정오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눈
★충혈,눈물,피로,눈곱,눈이 뻑뻑함
★침침함,눈부심,안구건조,가려움 등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일본특허 2790212 식약청HSK 2106909099
미국특허 5382714 KIST승인 KDAR03G-3K
일본 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제조 : 日本(株)MERCURY-MK
눈밝은 세상 : (02)2234-8004
항암 특보
각종 암,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뚜렷한 치유의 기쁨을 확인시켜드리는 일본제품을 소개합니다.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에서는 참 자아를 찾고 이 세상의 불국토를 실현코저 하는 원력을 가진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세이상 남·녀 2. 1인 1실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한국생활불교조계종임원 공고

승정원 원장 지철
종의회 의장 무송
호법원 원장 대원
교육원 원장 구진
연수원 원장 도명
총무원 원장 도법

●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두
교육부장 무초
문화부장 도심
연수부장 법연
비구니부장 혜광
※ 각부국장
문화국장 시행
연수국장 지우
의전국장 원명

● 포교사단
서울포교국장 보현
부산포교국장 혜현
대구포교국장 혜원

● 포교단특별자문위원
청암스님 진명스님
광운스님 법정스님
청강스님 진광스님

●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기종무원 원장 법화
경북종무원 원장 태룡
제주종무원 원장 의공
충남종무원 원장 수암
경남종무원 원장 원타
대구종무원 원장 성진
대전종무원 원장 혜각
사서실국장 성보
수행특보 성덕 성혜 성수

■ 서울총무원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3동 266-76(2층)
대표전화 02)3217-4611 팩스 02)391-8583

한국생활불교조계종
경남법사단종무원
법사승단종무원 원장 도혜 대법사

종무원.총국장 혜명법사
종무 1국 청송법사
수진법사
종무 2국 혜연법사
혜진법사

※ 실습지도교사 : 해월법사

●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성법사
부산지부 051)865-7975
● 충남지부종무소
지국장 성각법사
충남지부 041)547-1442
● 강원지부종무소
지국장 덕경법사
강원지부 033)553-6653
● 포교사단
태성법사, 법정법사, 혜경법사
목암법사, 개안법사, 자은법사
혜정법사, 덕운법사, 성안법사

■ 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2층)
대표전화 055)241-0253

한국불교의 요람, '재단법인 선학원'이 유능한 불교인재를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성별	인원	근무형태	업무내용
대졸 이상	무관	남	1명	정규직	장학사업 및 전산 (홈페이지 관리) 관련 업무

● 우대조건
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웹마스터)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면접자에 한해 최종 면접 시 제출함)
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중 면접자에 한해 최종 면접 시 제출함)
다.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해당자중 면접자에 한해 최종 면접 시 제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중 면접자에 한해 최종 면접 시 제출함)
※ 이력서에 긴급연락처, 희망연봉 기재
※ 사진 필히 첨부바람
●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접수기간 : 2005년 7월 7일 ~ 7월 22일
◆ 서류접수 : (110-240)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재)선학원 총무과
◆ 문의전화 : (02)734-9654~6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
가. 근무지역은 서울 종로구
나. 급여는 본 재단의 규정에 의함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강북구
- 임법당: 40평
- 부지: 61평
- 가액: 3억5천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25평
- 요사 : 실 90평
- 부지 : 672평
- 가액 : 4억

- 위치 : 전북 순창
- 법당 : 17평
- 요사 : 2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시내 큰사찰 45억
- 강원절 1억2천/2억/5억5천
- 경기절 7천/2억2천/4억3천/9억/11억/14억
- 여주 명당터 평당 5만원~원하는 만큼
- 경기 광주절 7만평 10억
- 충청절 3억/8억

♦전국사찰다량보유, 공양주부전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기와단청), 삼존불, 약사전, 신중단, 각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삼성각(5평기와), 요사채 20평, 방3칸, 입식부엌(정화조 유), 산신지지가 응집된곳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6440-306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2억 8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신 축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목조) 요사채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의 촌락의 끝이면서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비구니스님께 적합
- 가액: 1억1천만원

011-9405-8186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도심속 사찰 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대지 8×6미터 코너 112평 건평 120평 1층상가 4개 2층법당 최고시설 완벽함 1층상가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 가액 4억 8천중 상가보증금 융자금 빼고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께서 답사하시어의논바람
- 주차 80%.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010-3166-8483/032)667-84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용문
- 부지 : 5,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가액 :12억
- ※ 계곡 및 산세좋음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6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임법당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단독. 법당,방1,거실, 주방,욕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352-9810

포교당안내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가능)
- 즉시법회. 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02)2208-6098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 대지 68평, 건평 3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269-8688
052)223-8617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북 예천 (중앙 고속 예천 IC 40분)
- 평수 : 건물 2동 50평
- 경작가능 농경지 : 2,500여평 (추자, 감, 유실수 수확)
- 해발 600고지, 청정지역.수행기도처
- 답사상담 후 결정

054)652-4728
010-9239-8357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수원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주택밀집지역 도심포교최적지
- 가액: 5억8천

011-9916-2820

- 부산 북구APT밀집지역 산 밑에 있어 주택지와 바닷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경관지임
- 가액: 4억2천만원

011-9916-2820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대 지하철역 부근
- 법당 35평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7181-1878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당진 신도시 시장통
- 평수: 28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00만원
-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011-9762-2286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 법당, 방3개, 주방 전체 평수 30평 (옥상전체 사용가능)
- 가액: 전세 6500만원
- ※ 즉시 입주 가능

011-9952-1413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포교당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새말 I.C부근
- 법당1, 방5, 건평 55평 대지 및 종교부지 620평
- 진입로 포장, 심야보일러 시설완벽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사정상 급매

011-723-0289

사찰안내

- 위치: 괴산 증평
- 법당 목조형 콘크리트 20평 요사채 2(15평, 30평)
- 대지 : 680평
- 문화재 돌부처 있음.
- 가액 : 상담 후 결정

043)836-9149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 대지: 86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교통편리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평수: 3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약간
- 몸만오시면됨 교통편리 즉시법회가능

016-621-3267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산
- 대지: 240평 텃밭 70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 가액: 1억5천

010-3131-5842

포교당안내

- 위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 평수 : 22평
- 삼존불, 각단탱화, 에어콘 및 집기일체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세+시설비포함 3500만원

011-380-5611
031)251-5615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불광 터미널 앞 위치)
- 평수 : 약 23평
- 최고의 시설,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850만원, 월 45만원

010-8963-9983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 평수(대지): 466평
- 법당 26평(2층), 요사 26평, 창고 30평
- 가액: 1억6천만원

016-467-5822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중구 반구2동
- 총 45평 법당, 방2개, 거실1 삼존불, 영단절도
- 가액: 상담 후 절충

018-205-5979
019-9020-5508
월명스님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 20-30평, 방4개, 부엌,욕실
- 실내1, 실외2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 시설비2500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전남 순천시 부근
- 대지 250평, 건평 25평 완전목조, 대웅전, 신축건물, 화장실, 교통편리
- 가액: 2억5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61)742-8977
017-875-671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합천 매화산 입구
- 대지: 300평 건물 법당 요사채 2동(황토방) 다용도 1동 40평,현재 전시실
- 특징: 명산 등산로 접
- 가액: 전세 2천(월세가능) 시설비 1500만원

055)931-7280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층건물중 2층
- 평수: 45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9-477-6674

사찰(전세)안내

- 위치: 충북보은
- 법당(인법당), 방7개, 주방, 욕실, 화장실 등, 창고, 하우스, 텃밭, 선방, 기도나 수련 등으로 사용가능.
-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고 뒤로는 산이며 앞으로는 냇물이 흐르며 지하 암반수가 나오며 난방은 심야전기보일러 입니다.
- 전세를 구하는 스님은 연락바랍니다.

011-763-1080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시장내 2층 70평
- 방3개, 시설A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9798-8460

사찰안내

- 위치: 천안역에서 10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62평, 법당 18평 산신각 3평, 요사 2동
- 주차시설완비
- 가액: 7300만원

011-209-5506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6-640-8133

사찰 (급) 안내

서울시내 강변 최적의 요지에 위치한 1백년 역사의 사찰로써, 급박한 사정에 의해 매매코자 하오니 사찰운영을 본의로 하는 원매자가 있으면 상담을 요합니다. 중개인의 개입은 사절합니다.

- 대지 : 1천평
- 건물 4동 (대웅전, 요사채 등 대형건물)
- 주변 환경이 뛰어남.
- 매매즉시 등기 이전 가능 함.

연락처
010-2559-9487
011-573-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주 산내면
- 대지: 임야 250평
- 교통편의: 경주에서 산내면간 (버스 40분간격)
- 법당: 인법당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암벽과 냇물이 흐름
- 가액: 3000만원

011-540-8431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서면 중심지
- 법당 실평수 30평
- 법당 요사채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월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834-2118
051)818-1028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동
- 평수: 6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585-7521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2,5호선 까치산역 근접)
- 2층건물중 2층 평수:22평
- 유동인구많은 사거리에 있음 목좋음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1300만원 월 40만원

010-8527-8747

포교원 안 내

- 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 평수: 30평. 3층건물중 3층
- 시설: 사존불외 일체 후불,지장,신중,산신 탱화 방1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에어컨 시설완비
- 유동인구 많음, 배 300여척 드나듬
- 가액: 보증금+시설비 3500만원 월 30만원
- 역술하는분 환영

010-7181-7569

포교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좋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7324-5115

천고비전 「월영도(月影圖)」 드디어 베일을 벗다

■ 「월영도」 활용 CD를 내며

지난 수백년간 토정(土亭)이 쓴 「월영도」는 우리 술사(術士)들 사이에서 「비전중의 비전(秘典中 秘典)」으로 알려져 왔으나, 누구 한사람 떳떳하게 밝히고 나오지 못했었다. 「월영도」를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자들도 어째서인지 후학들에게 전법시키는 일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정통성」 여부는 의심 될 수 밖에 없었다. 확실히 알면 정정당당 한 법이다. 좋은것과 나쁜것, 맞는것과 안맞는것, 진액과 거품을 가려내서 천하의 검증을 받아야 했었다.

이번에 박영창 교수와 내가 음지에서 곰팡이가 필대로 핀 「월영도」를 양지로 끌어내서 그 맹독(猛毒)을 없애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서로 요해(了解)한 자료를 합치시켜 일제시대 판 「월영도」 원전에 대조하여 이를 펴내기로 했다.

보라! 「월영도」는 이제 더이상 비전이 아니다. 몇천만원씩 갖다 바치고 배우는 술법도 아닐 것이다. 떳떳치 못한 방술을 익혀 혹세무민하는 사례들은 바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로지 오행철학(五行哲學)에 진지한 학구자들만이 지금까지 월영도가 지닌 허구성을 발견하고 사계(斯界)의 온당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수 있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 「월영도」를 진부한 학습서에서 탈피해 몇 차원 높은 단계의 활용서로서의 CD화 작업까지 완료한데 대해 박영창 교수와 나는 이 시대의 하늘이 준 소명완수로 이해하게 되었다.

-고복자 효사-

■ 내방자의 생년월일시만 치면 아래 내용의 해당부분이 화면에 뜹니다.
■ 출생 연월일시가 양력이든 음력이든 「음력」과 「양력」 표시 중 어는 것을 클릭한 후 입력하면 됩니다.
■ 본 「월영도」 활용 CD판매 대상은 월영도의 「진정성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각 대학 · 대학원, 오행철학 교수 및 재학생 • 각 사찰 스님(종단 승적자) • 역학 상담 오행가(소속 단체의 수료증 · 인증서 소지자) • 신명제자(소속단체가입확인자)

■ 구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입가격 : 1백 9만원(1,090,000원) · 육임학회원 79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 접수마감 : 2005년 7월 30일 까지
- 배본일시 : 2005년 8월 2일까지 한진택배로 도착시킴
- 정 가 : **1백 30만원(1,300,000원)** (위 선입금 기간이 경과하면 정가 판매 합니다)
- 신청전화 : **02)993-8680**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 입금통보 : **02)996-3335** (입금후 입금자 성명만 통보하십시오)

■ 「월령도」 활용 CD 구입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① 내방자 본인 성씨 아는법 ② 내방자 모친 성씨 아는법
③ 내방자 배우자 성씨 아는법

- 강의 장소 : 육임학당 「효사숙」 서울 강북구청 왼쪽 첫 옆건물 4층 (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출구)

오는 8월 10일(水요일) 오후3시부터 3시간 동안 위 ①~③까지 서비스 강의를 순차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 CD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제시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月 影 圖 解

一. 知 性 法

1. 본인 성씨 판단
2. 모친 성씨 판단
3. 남편 성씨 판단
4. 처 성씨 판단
5. 도움받을 길성씨 판단
6. 피해 받는 흉성씨 판단
7. 애인 성씨 판단

二. 肉 親 法

1. 부모판단
• 부선망 여부 • 모선망 여부
• 모친 多 여부 • 부친 多 여부
• 유복자 여부
• 부모 무덕 초년 고생 여부
• 양자 여부 • 타향살이 여부
• 계모 여부 • 부모 재혼 여부
• 부모 질병 액운 여부
• 부모 직업 여부
• 부모 사망시기 여부

2. 형제판단
가. 형제자매 숫자 여부
• 독신 • 형제 • 두남매
• 세남매 • 사남매 • 오남매
• 육남매 • 칠남매
나. 이복형제 여부
다. 형제화목 여부
라. 형제무덕 여부
마. 형제 질병 액운 시기 여부
바. 형제 사망시기 여부

3. 부부화합 판단
가. 남자
• 부부화합 • 부부불화
• 처재난 • 처손재
• 처첩유무 • 국제결혼
• 처액 • 상처시기(年)
• 처불량 • 현모양처
• 처질병 • 해로
• 사별 • 이별
• 후처대길 • 二妾 유무
• 본처무자 후처유자
• 처바람 • 처도망
• 연애결혼 • 만혼 • 처 음란
나. 여자
• 奸夫 有 • 중년과부
• 노처녀 • 여장부
• 청상과부 • 남자조심
• 사업성공 • 해로
• 노년과부 • 무자식
• 二夫 • 치성득자
• 창녀 216-6, 172-6
• 다복녀 • 병자
• 구설 • 남편 多
• 사별 • 독수공방
• 여사장 • 기생
• 무당 • 喪夫
• 초혼실패 • 남편우매
• 겁탈 • 이민
• 처녀동정 • 喪夫시기(年)
• 남편바람 • 연애시기(年)
• 밤강간
다. 배우자 직업여부
라. 배우자 질병 액운시기 여부

4. 자녀 판단
가. 자녀유무 여부
• 무자식 • 늦자식
• 양자 • 1자 • 2자 • 3자
• 이형제 • 생이별 • 사별
나.장자 장녀 여부
• 첫 아들 • 첫 딸 • 서자
다.이복자녀 여부
라. 자녀 효성 불효 여부
마. 자녀복
• 아들성공 • 자녀 시험운
• 자녀학당 • 자녀 낭비
• 패륜아 • 극자 • 비방아
바. 자녀 질병 액운 사망시기 여부
사. 자녀직업여부

三. 疾 病 法

1. 수술 유무 여부
2. 건강 여부
3. 불구 여부
4. 질병부위 여부
• 치아병 • 해소병
• 수술 • 폐병 • 어깨
• 중병 • 안경 • 귀신병
• 신경통 • 의처증 • 광증
• 암 • 족상 • 비후
• 소아마비 • 교통사고
• 간암 • 낙태 • 당뇨
• 관절염 • 연주창 • 목병
• 자궁병 • 다리병 • 허리병
• 마귀살 • 성병 • 위암
• 천연두 • 안질
5. 발병시기 여부
6. 사고, 사망시기 여부
7. 수명 여부
가. 단명 나. 복수

四. 貧 富 法

1. 부자 등급 판단
가. 거부 나. 부자
다. 상업치부 라. 타향득세
마. 일시부귀 바. 선빈후부
사. 중년후득재 아. 노년성공
자. 중년말부
2. 빈자 등급 판단
가. 조업탕진
나. 거지 다. 빈자 라. 말년 망
3. 자수성가 판단
4. 부자되는 시기 판단
5. 망하는 시기 판단

五. 職 業 法

1. 월급자 판단
2. 사무직 판단
3. 노무직 판단
4. 특수직 판단
5. 직업변동 시기 판단
6. 실업자 되는시기 판단

六. 性 格 法

1. 유순 2. 태강
3. 능수능란 4. 고지식
5. 간사 6. 편협
7. 진실 8. 음험
9. 활달 10. 허욕
11. 열화 12. 불량
13. 강유겸비 14. 춘풍
15. 인색 16. 탐욕
17. 호주 18. 호색
19. 방탕 20. 청빈
21. 가해 22. 실언

七. 流 年 法

1. 吉年지적판단
• 갑을 吉年 • 병정 吉年
• 무기 吉年 • 경신 吉年
• 甲년 吉 • 乙년 吉
• 丙년 吉 • 丁년 吉
• 戊년 吉 • 己년 吉
• 庚년 吉 • 辛년 吉
• 壬년 吉 • 癸년 吉
2. 吉月지적판단
• 寅月 吉 • 卯月 吉
• 辰月 吉 • 巳月 吉
• 午月 吉 • 未月 吉
• 申月 吉 • 酉月 吉
• 戌月 吉 • 亥月 吉
• 子月 吉 • 丑月 吉
3. 1년 運 지적 판단
• 배우자 이별 • 자손공직진출
• 처자 액난 • 괴이사
• 중년 喪夫 • 동업패망
• 회갑 吉運 • 가족상성
• 부부질병 • 아들병 • 우환
4. 흉운 지적 판단
• 칼 조심 • 물불 조심
• 뱀 조심 • 관재 구속
• 도난 • 손재 • 구설
• 수술 • 요절 • 실직
• 이사손해 • 화재
• 여난 성병 • 집터살
• 효복상복 • 타국살이
• 원생금지 • 동업손해
• 여자손해 • 인간패
• 喪妻 • 身厄 • 문서
• 가액 • 실물수
• 근친조심 • 동업금지
• 관재 • 형처 • 낙상
• 객사 • 산소이장권유
• 개명권유 • 이사권유
5. 재물 득실 판단
6. 애인 배우자 만남 이별 판단
7. 직업 성공 판단
8. 시험 성패 판단
9. 육친 가족 상황 판단

八. 風 水 法

1. 득이 되는 지관(地官) 성씨 판단
2. 吉한 산소 가택 좌향 판단
3. 凶한 산소 가택 좌향 판단
4. 吉 방위 이사 판단

九. 秘 方 法

1. 칠성기도 적합자 판단
2. 산신기도 적합자 판단
3. 용왕기도 적합자 판단
4. 관음기도 적합자 판단
5. 지장기도 적합자 판단
6. 신장기도 적합자 판단
7. 厄을 물리칠 인연 성씨 판단
8. 아들 낳는 비방 판단
9. 첩 떼는 비방 판단
10. 질병 퇴치 비방 판단
11. 소원성취 비방 판단
12. 송사 비방 판단
13. 방액 비방 판단
14. 비방 안화명 망하는 판단

十. 본 CD 구입자 서비스 講義 受講 으로 아는 비법

1. 성씨 확실하게 아는 활용법
2. 모친 성씨 아는법
3. 배우자 성씨 아는법

역학도서출판 · 운세컨텐츠개발전문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일주문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상임이사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 법장 스님은 7월 26~27일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주석사찰인 김해 관음정사에서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한다.



'간화선 수행의 길' 주제 특강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7월 7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불교서울전문강당 초청으로 '간화선 수행의 길' 주제의 특강을 했다.



남곡 스님 22주기 추모재
고창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은 7월 23일 오후 2시 석문당 남곡 큰스님 22주기 추모재를 봉행하고 문도회 모임을 연다.(063)561-1422



가릉빈가 합창단 창단 19주년 행사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6월 30일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합창단인 '가릉빈가 합창단' 창단 19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도선사 실달학원 9기 졸업식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7월 1일 호국참회원 2층 교육관에서 불교교양대학인 도선사 실달학원 9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수국사 주지 취임법회
서울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은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수국사 법당에서 신임주지 취임 법회를 봉행한다.(02)356-2002



강운태 前 내무부장관 초청 법회
광주 덕림사 주지 무이 스님은 7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 초청 '지역발전과 불교지도자의 역할' 강연회를 개최한다.(062)362-2091



어린이 한문학당 개설
대구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7월 24~30일 룸비니유치원 법당에 어린이 한문학당을 개설한다. (053)621-1003



워싱턴서 연꽃그림 전시
수증 스님(강동구 금화사 주지)은 미국 연방수생식물원 초청으로 7월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AM 아트센터에서 연꽃그림 전시회를 연다.



서울사랑시민상 수상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 회장은 7월 8일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서울시가 시상하는 제2회 서울사랑시민상(여성부문)을 받았다.

대한불교진흥원 제5대 이사장에 홍승희씨 유임



(재)대한불교진흥원은 7월 6일 신라호텔에서 제112차 이사회를 열고 홍승희 현 이사장(사진)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홍승희 이사장은 "올해 설립 30주년과 설립자이신 장경호 거사 열반 3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진흥원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재도약과 이미지 쇄신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승희 이사장은 故 서돈각 이사장의 타계 후 지난해 10월부터 잔여임기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3년동안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성보관리의 처음과 끝은 정성"

유물포장 1인자 김홍식씨 7월부터 조계종 성보전문위원 맡아

유물포장의 독보적 존재인 김홍식(61 · 사진) 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32년간의 국립중앙박물관 생활을 마치고,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탁연)로 자리를 옮겨 7월 1일부터 성보전문위원(상근)으로 근무를 시작해 화제다.

김홍식 위원은 1973년 국립중앙박물관(유물계)에 입사해, 정년퇴직한 6월 30일까지 줄곧 같은 유물관리부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국보급 유물에 대한 포장과 이동을 전담해왔다. 그의 포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3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문화재를 다루면서 실수 한번 하지 않을 정도의 치밀함과 작은 흠집 하나라도 날까 조심스럽고도 안전하게 포장하는 그의 손길, 그리고 샘솟는 듯한 포장 아이디어는 놀랍기까지 하다. 그런 그가 총무원 문화부로 왔다는 사실은 성보관리에 있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계종 총무원에 성보전문위원으로 부임한 계기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스카웃 제의를 몇 건 받았다. 그 중에는 연봉 13억을 제시한 해외 박물관도 있었다. 하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 보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조계종이나 사찰과 맺은 인연이 깊다. 성보박물관 전시가 있을 때 가서 도와주기도 했고, 관리 방안을 조언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늘 아쉬움이 있었다. 마침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이곳에서 일하면, 불교중앙박물관과 성보박물관들의 유물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끌렸다.

▲성보전문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유물 포장 · 이동 등 관리 측면에서 연구자들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이 주가 될 것이다. 유물 관리자에게는 유물에 쌓인 먼지 한번이라도 더 닦을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안목이 없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 박물관이 13억 연봉제안 거절
불교계 연구자 뒷바라지 선택

▲세계 최고의 유물포장 기술자가 되기까지의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정성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자연히 나오게 된다. 유물을 다루며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고가 나지만, 강한 애착을 갖고 정성껏 일하면 사고가 날 수 없다. 일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술 · 담배도 끊었다. 이 같은 자세는 처음 입사했을 때 상사로 모셨던 이난영 前 경주박물관장으로부터 배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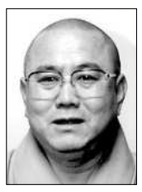
-1996년 올림픽을 기념해 열린 애틀랜타올림픽문화교류전에 한국이 유일하게 출품한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을 포장했던 일이다. 무게가 115kg이나 되는 금동반가사유상을 360도 회전해도 안전하게끔 포장하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연구 끝에 대좌와 불상을 밀착시키고, 불상의 무릎에 로프를 걸어 묶고, 서랍식의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시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 포장으로 안전하게 미국에 갈 수 있었다. 이 포장을 본 미국의 박물관 관계자들은 조그만 나라에 이런 포장 기술이 있느냐며 놀라워했다. 한국의 포장기술로 국위선양한 셈이었으니, 기쁨이 컸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34개 성보박물관이 운영 또는 계획 중이다. 이들 박물관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살피고, 협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불교중앙박물관이나 성보박물관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박물관들과 달리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교중앙박물관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10 · 27 법난불교대책위 상임대표 법타 스님 "묻힌 역사 되찾을 터"



"10 · 27법난은 부도덕한 신군부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입니다. 이제 진실을 규명해 반드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7월 4일 출범한 10 · 27법난불교대책위 상임대표를 맡은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 사진)은 불교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10 · 27법난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 27법난 당시 정읍 내장사 재무국장 소임을 보다가 군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던 법타 스님은 "당시 낙산사 주지 원철 스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적지 않은 스님들이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시다"며 "피해 스님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

역촌노인복지센터 7월 1일 개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 산하 역촌노인복지센터가 7월 1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성운 스님, 인덕노인복지회관 관장 도광 스님과 노재동 은평구청장, 서울재활병원 정동화 원장, 구상목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거사림 창립 33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배호암)는 6월 28일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창립 3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초청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소림사 회주 정일 스님,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을 비롯,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교사불자련 대구지부, 교직원 명상연수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지부(회장 신연섭)은 7월 2~3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초, 중, 고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제3회 교직원 명상요가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연섭 회장은 "명상과 요가로 내면을 돌아보고 가다듬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자"고 말했다.

제1회 노인복지프로그램 공모 시상식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7월 7일 센터 3층 강당에서 제1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지정공모 부문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노춘예찬 팀이 자유공모에는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일광스님의 신행수기, 기도발 이야기

기도발 祈禱發

〈〈출판기념법회〉〉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탑사(塔寺)
· 날짜 : 2005년 7월 14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전화 : 02)2635-2611

부처님의 가피력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불자에게 발현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지만 해가 번 바다에서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지극히 기도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의 기도발이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사바세계 자력(自力)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여기에 자력이란 실로 어리석음의 극치요 무지의 소산이다.
겸손과 하심을 배워라. 불보살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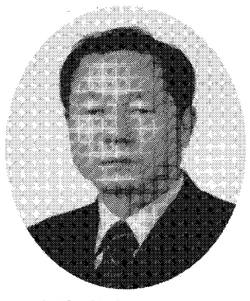


신광사 홈페이지 : www.kidobal.com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용은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구입문의 : 일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051-442-6556)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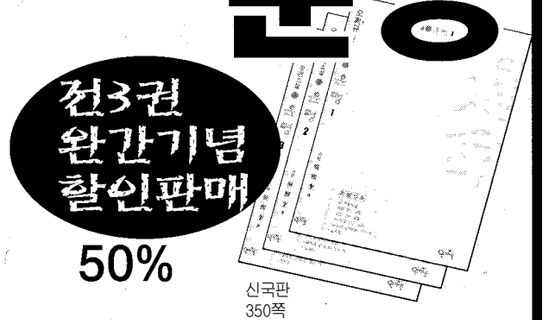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불자 세상보기

이 종 옥
동국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인터넷의 비극 '여론몰이'

'떨녀'나 '개똥녀'를 혹시 알고 있나? 최근 조성된 이 단어의 인지 여부가 네티즌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르르 떨듯이 춤을 추는 동영상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여학생을 '떨녀'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20대 여성을 네티즌들이 괘씸녀로 지목하여 얼굴사진을 공개하고 '개똥녀'라는 별명과 함께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던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떨녀와 개똥녀의 광풍이 휘몰아친 이후, 떨녀는 스타 만들기를 위한 기획사의 의도된 '인터넷 여론몰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마녀사냥식 '사이버 테러'를 당했던 개똥녀의 경우에는 주위의 비난에 너무 당황해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현장 증언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 이후의 반성과 자정에도 불구하고 떨녀는 이미 의도된 '인터넷 여론몰이'에 의하여 스타가 됐으며, '사이버 테러'를 당한 개똥녀의 인격체는 돌이킬 수 없도록 망가져 버렸다.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빗대어 '네티즌'과 '메카시즘'을 합친 신조어 '네카시즘'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여론을 주도하는 소수와 충동적이고 부화뇌동하는 인터넷 군중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특정인을 인민재판식으로 비난하며, 당사자는 아무런 해명조차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인터넷의 순기능은 많다. 특히 인터넷이 공간과 시간의 격차를 해소해 주고,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알 권리가 신장되어지고, 국민 참여정치가 활발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인터넷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경쟁 격화에 따라 기사는 점점 더 선정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특히 기사를 전달하는 포털 기관에 의하여 선별된 기사만 부각되는 등, 정보의 편식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또 다른 여론몰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참여정치란 누구나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소수의 여론몰이에 따른 여론의 왜곡이란 역설을 낳고 있다. 최근 부결된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되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 법의 재상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의 여론몰이가 급기야는 '국회는 없고 네티즌 정치만 있다'는 자조의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네티즌들의 인터넷 여론몰이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문명의 이기라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는 개인의 인격 또는 사회 · 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인성(人性)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흉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편리한 문명의 이기임에는 분명하나 운전예절과 법규를 지키는 양식이 우선해야 하듯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규제성 인터넷 실명제란 신호등만으로 모자라서 또 다른 감시 장치를 부가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어떠한 통제장치도 이를 지키고자하는 양식을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여론몰이의 부작용을 정보기술이나 법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인성을 기르고 심성을 닦도록 하여 인간화를 이루는 것이야 말로 원천적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불교가 인터넷 세상에서 해야 할 과제가 인간의 근본인 심성을 되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1975년 대원 장경호 거사의 원력을 바탕으로 불교 발전을 통한 국민정신 계도라는 취지로 설립된 지 30주년을 맞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그간 설립취지 구현에 노력해 온 진흥원이 최근 홍승희 현 이사장을 제5대 이사장으로 유임시켰다고 한다. 제4대 서돈각 이사장의 타계 후 지난해 10월부터 잔여임기를 수행해 온 홍 이사장은 명실상부한 새로운 이사장을 맡으며 "올해로 설립 30주년과 설립자 장경호 거사 열반 3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진흥원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재도약과 이미지 쇄신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한마디의 다짐에서 불교 발전의 다양한 코드를 읽는다. 홍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진흥원의 30년 역사는 불교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마인드가 충분히 성숙된 시점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게 한다.

진흥원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또 설립자의 정신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진흥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흥원에서는 군법당 건립지원, <불교성전>의 간행과 보급 등 포교 사업에 공헌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역경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불교계 유수의 종단과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불사를 지원하고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신행을 견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진흥원은 눈을 더 크게 뜰 때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발전을 위한 더 큰 길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포교를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해 진행할 때다. 세계는 좁아지고 있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사소통은 빨라지고 있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작아지는 세상에 더 커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각종 범죄일 것이다.

진흥원은 이제 한국이라는 무대를 벗어나 세계 인류의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도 그간의 원력을 다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앞으로의 30년을 보다 알차게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진월(동국대 정각원장)

이렇게 들었다 독서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들에서 쟁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찔지라도 지혜는 늘지 않는다. 〈법구경〉

미국의 다국적 여론조사기관인 NOP월드가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책과 신문, 잡지 등의 활자매체를 읽는 데 할애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3.1시간으로 조사대상국 중 꼴찌였다고 한다. 이는 30개국 평균인 6.5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인도는 15%의 문맹률에도 불구하고 10.7시간을 독서에 할애해 조사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데카르트의 명언대로, 영상매체가 득세하는 현대에서도 독서는 가장 훌륭한 지식 습득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독서가 여전히 사고력과 상상력, 통찰력, 분석력 등을 길러주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출판업계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우리 국민은 책과 담을 쌓고 있다. 불교계 출판사들 역시 자력방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학생들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느라 교양서적을 읽는 것은 등한시하고 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7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능력이 '국어'였다는 답변이 나올 만큼 우리 사회의 교양 수준은 전체적으로 하락돼 있다.

독서를 소홀히 하고서는 교양인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지적 수준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올 여름 휴가에는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벗 삼아 독서에 몰두해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넷과 TV는 잠시 꺼두어도 좋을 듯하다. ■이은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도피안사 구국구세법회 참가기

내가 다니는 절인 도피안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구국구세대법회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가 7월 3일 회향했다. 처음에 주지 송암 스님이 구국구세대법회 법석을 열겠다며 도피안사 신도들의 의견을 물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조금 황당하고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도피안사 내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금방 성과도 얻을 수 없는 법회를 하려는 스님의 생각에 전면 수긍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1회 미산 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여러 강사 분들의 값진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니, 이 법회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다. 보현도량의 보현 행자로, 실천하며 교화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첫 번째 의무를. 현대 우리사회 가정과 가족의 문제점들이 다방면의 전문학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들로 다가왔다.

역동적인 30여년을 살아온 50대 초반의 나.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자부심도 있지만,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해결사이기도 하다.

탁월한 해결사가 되려면? 역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방법이다. 여러 강사들이 말씀하신 연기와 중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측량 못 할 인연으로 만난 나의 남편, 자식, 부모님을 부처님으로 받드는 것. 힘들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폭력은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작은 모임, 작은 무리,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新 노년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할 50대 불자인 입장에서 열번의 모든 강의를 들은 나는 다음과 같이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살아야할 30년은, 지혜로운 자부심으로 구국구세의 용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권오영(도피안사 신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뜻 제대로 알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세상에 잘못 활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물론 백과사전에서도 잘난 척, 생명의 존엄성, 부처의 위대함 등으로 잘못 해석되어 있다.

백과사전에는 '우주만물 중에서는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하는 말이며, 석가의 탄생이 속세로부터 성스러운 세계로의 초탈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석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존엄하다, 잘났다, 우주만물 중 인간 자체가 가장 존엄하다 라는 어리석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주만물(나를 포함하여)은 자아의 학습에 의한 존재인식에 의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석가의 단일 존재, 생명의 존엄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다. 각 백과사전 및 교육 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1019210(붓다뉴스)

달라이 라마 한국에 왔으면

달라이 라마 한국사무소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척이나 반가웠다. 몇 해 동안이나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기다렸지만 성사될 기미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올 초 일본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의 소식을 언론으로 접하며 부럽기 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사무소가 생기면서 모래만다라 전시회도 열리고 티베트가 한층 우리나라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기쁘다. 이런 민간 교류로 활발해지면 달라이 라마의 한국방문도 멀지 않은 미래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정치적인 문제를 벗어나 불교의 대성인으로 달라이 라마를 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홍지석(서울 노원구 상계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움직이는 禪의 숨결 템플스테이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 ·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언 제 :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 동참금은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수련내용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 회화를 원어민(외국인 행자님)이 지도합니다.(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어강사 1명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우산 · 운동화 · 운동복 등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울력 (도량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여름방학·휴가 테마는 '나눔'

각 종단·사찰,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뭔가 나눔을 실천하면서 더운 여름을 이기는 방안은 없을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연주(26)씨는 6월 말부터 방학을 즐기고 있다. 시간이 많이 생기다보니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도, 평소 못 읽었던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저런 계획으로 들떠 있을 때 우연히 발견한 인근 노인복지관의 봉사자 모집 광고. 이씨는 자신의 이번 방학 테마를 '나눔'으로 잡았다.

7월, 방학 시즌을 맞았다.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에 들어갔고, 초·중·고등학생들의 방학도 곧 다가온다. 늘어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면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훌륭한 피서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직장인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여름휴가는 물론이고,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5일 근무제 때문이다. 주말을 이용해 부부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 자연스러운 '나눔 학습'이 된다.

그러나 유흥대신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려는 사람들의 고민은 따로 있다. 나눔을 실천하고는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각 종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 소식만 눈여겨 봐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02-723-5101)은 지난해에 이어 '1사찰 1자원봉사단' 운동으로 자원봉사자를 자연스럽게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각 교구본·말사 180여 사찰에 자원봉사단 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태종복지재단(02-575-3467)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위한 '니르바나 호스피스 교육'의 확대 실시와 전문가 과정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일반 봉사자들에게는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7월 26일~28일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각복지재단(02-942-0144)은 일반봉사자들의 경우, 현재는 산하 복지관에 연결해주고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사무실 교육 보다 현장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8월에는 종단의 지원으로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16명이 스리랑카 네곰보 지역으로 협력 봉사를 떠난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번 위덕대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지켜본 후, 종단 해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봉사자 파견을 정례화 시킬 예정이다.

종단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기 이전부터 사찰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나눔'을 실행하는 곳도 있다. 마산 정법사(주지 지태, 055-246-8393)의 경우 무료급식 및 결식아동 돕기, 지역 독거어르신 지원 등을 통해 몇 해 전부터 사찰 봉사단을 꾸리고 있다. 또 천축사(주지 현공, 02-954-1474)도 '불교사회봉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경우다.

한편 '사찰 복지관'을 표방하고 있는 수효사(주지 무구, 02-313-3060)는 수효복지대학 수강생과 법회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시설 어르신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권유하면서 꾸준히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방학으로 주5일 근무로 휴가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따라 각 종단과 사찰이 나눔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시흥장애인복지관 인형극으로 '웃음잔치'

"어흥, 배가 고파 할머니를 잡아먹겠소."

시흥장애인복지관 강당 무대 위가 환하게 비춰진다.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팥밭을 매는 할머니를 위협하자 객석에 초대된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응시한다.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6월 29일 지역 장애아동 및 부모님, 장애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삐에로 인형극회가 공연하는 '팥죽할멈과 호랑이'를 펼쳐냈다.

이번 공연은 그 동안 문화 공연을 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시흥장애인복지관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기도 했다.

학부모 고정연(35)씨는 "우리 아이가 즐



'팥죽할멈과 호랑이' 공연을 관람하는 시흥장애인복지관 어린이들.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 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어르신들의 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연꽃팀. 7월 6일에도 연꽃팀의 봉사 원력이 활짝 피어나 어르신들을 기쁘게 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발마사지 봉사 연꽃팀

"할머니 시원 하시죠?"

7월 6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이윤학) 물리치료실 앞. 인근 지역 어르신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나타난 주인공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발마사지 봉사회 연꽃팀(팀장 김효심)이다.

소아마비로 고생하다 얼마 전 다리 골절상까지 입어 거동이 불편한 박동자(78·가명)할머니도 일찌감치 대기하다 봉사자들이 나타나자 반색한다.

"처음에는 이런 내 발이 부끄러워 여기 나오지도 못했어요. 지나치는 사람까지도 '징그럽다'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발마사지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데요."

이 할머니의 말에서 연꽃팀의 인기 비결이 드러난다. 바로 봉사의 당연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기도 한 '진심'과 '정성'이다.

"'마음'이 문제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르신들 건강도 좋아지세요. 그것을 아니까 더 잘 해드리고 싶죠."

한 어르신의 종아리를 지압하면서 김효순(48) 팀장도 '정성'이 연꽃팀의 최대 장점이라는데 동의한다. 거기다 즐거운 마음까지 더했다. 늘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정기준(53) 보살의 경우 자원봉사 원을 세우고 스스로 찾아 나서다 어르신들의 발 마사지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꽃팀의 '청일점' 장상문(49) 거사도 봉사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눈에 띈 복지재단의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서 인연이겠거니, 봉사를 택했다고 한다.

정성으로, 봉사를 즐겁게 하는 이들답게 일상생활도 취미생활도 즐길 줄 안다. 3년 넘게 한결같이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즐겁게 살고는 있지만 '딱 하나'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박광순(50) 보살은 말한다.

"발마사지 팀들이 좀 더 양성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스킨십을 통해 외로움도 덜 느끼시고 볼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기쁨이 참 크거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이런 느낌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장애인 재활 후원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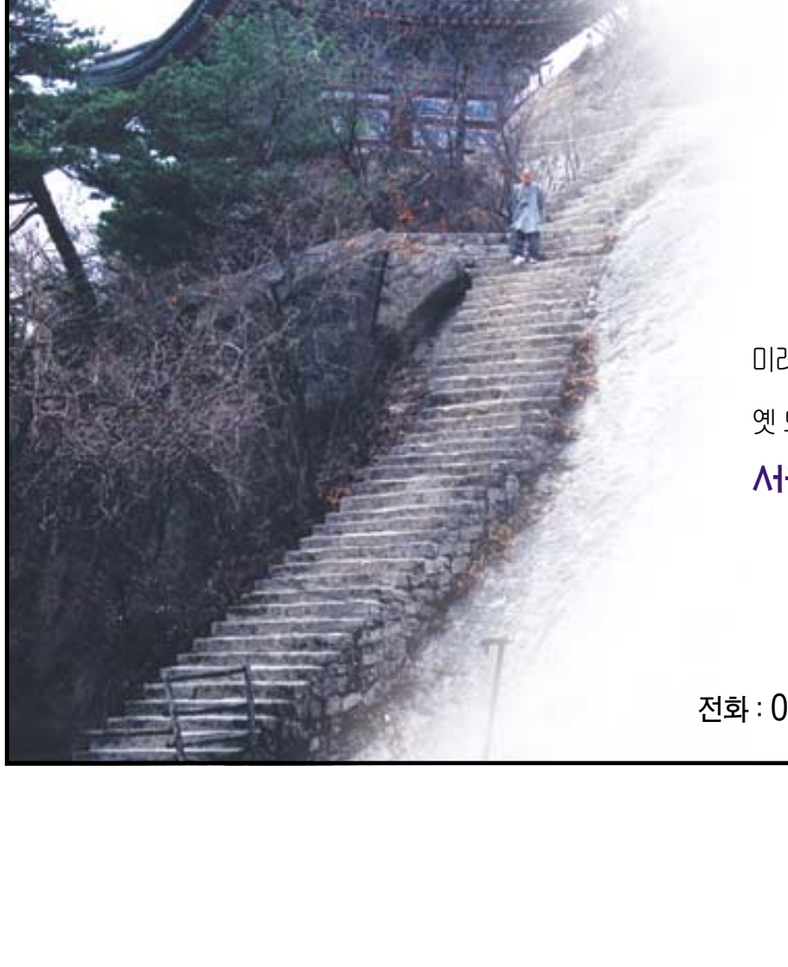
북부종합복지관 근처는 강북 재개발 지역이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여건을 가진 이웃들과 지역 성인 장애인들이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성인장애인은 재활 가능성이 높음에도 결연 후원이 잘 되지 않는 대상자들. 연꽃팀 봉사자들은 "힘든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직접 봉사 못지않은 훌륭한 일"이라며 후원을 호소했다. (02)934-7711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사찰건축 전문시공업체

사찰, 단청, 문화재, 건축, 토목...

불교문화재 보존과 완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면 과거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렇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옛 도시 ..

서원경에서 문화재 공사의 새로운 기운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瑞都建設株式會社 代表 曺奉鉉

忠北 淸州市 上黨區 龍岩洞 1558 1층

전화 : 043)294 - 6700 / 전송 : 043)294 - 5434 / H·P : 011 - 463 - 1718

제과점 운영하며 고아, 외국인 근로자 등에 매일 아침 빵 보시

1975년 겨울 어느 날, 경기도 파주시 궁전제과. 그곳에는 따뜻한 우유와 롤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 단팥빵을 쌓아 놓고 미팅하는 고교생 언니 오빠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그 뒤에는 7살 배기 남자 아이가 성에 낀 유리창 밖에서 손을 호호 불며 애처로운 눈으로 진열된 빵이며 도너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한 달 간 푼푼이 모은 주머니 속 5백원을 연신 만지작거렸다. 이 돈이면 먹고 싶은 왕단팥빵이며 크림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덥석 거금 5백원을 내고 빵을 사먹기가 아까워서였다.

이 비망록의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서 '케익하우스 쉐프'를 운영하고 있는 이군성씨(37)다.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장애인 복지단체 '사랑의 집', 가출 청소년과 고아들을 돌보는 '쉼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2년째 매일 아침 '사랑의 빵'을 보내주고 있다. 그가 하루에 공급하는 무료 빵의 양만도 무려 30인분. 돈으로 환산하면 20만원을 훌쩍 넘는다. 유년시절 맛난 빵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이씨. 이런 그의 어릴 적 꿈은 '슈퍼마켓 주인' '제과점 주인' '기계화된 농기계로 양복입고 농사짓기' 등이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군성씨.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혼자만 달려가지 않고 이웃과 함께 걸어 온 그의 '세 가지 꿈' 이야기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랑의 빵' 아저씨

이군성

향기 도반의





호밀빵, 식빵, 단팥빵, 바게트 등 갖가지 빵을 사랑과 함께 쟁반에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하는 이군성씨.

이웃과 함께 꿈 이뤄요

꿈★1막 - 슈퍼마켓

 # '부모은중경' 읽고 노인 위한 삶 발원

23살에 군을 전역한 이씨는 아내와 함께 과일과 채소 행상을 2년 간 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떼와 밤늦도록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열심히 돈을 모았다.

장마철이면 트럭에 쪼그려 앉아 빗물에 젖은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여름이면 신선도가 생명인 야채와 과일을 다 팔기 위해 모기떼와 싸우며 장사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경기도 파주에 작은 슈퍼마켓을 차렸다. 개업한지 4년이 되던 해 6평짜리 구멍가게가 40평짜리 대형(?)슈퍼로 변할 만큼 장사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잘됐다.

"슈퍼를 시작 한 후 5년 동안은 먹고 살기 바빠 남을 챙긴다는 건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우연히 <부모은중경>을 접하고부터는 생각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 후 5년간 이씨는 인근 노인정 세 곳을 정해 놓고 명절이면 만두와 가래떡 20상자씩을 보내드리며 온정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투른 칼질로 아내와 함께 가래떡을 써느라 지금도 이씨의 손은 여기저기 베인 상처투성이다. 하지만 "자네 덕에 떡국 맛있게 잘 먹었네"라며 건네는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에 언제나 그의 얼굴엔 웃음꽃이 핀다. 이런 이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노인분들의 표현방식도 다양했다. 봄이면 산나물이며 쑥, 냉이 등을 캐다 주는 할머니며 사군자를 그려주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1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해 번 돈보다 5년간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깊은 정을 나눈 것이 훨씬 큰 행복이죠."라고 말하는 이씨. 두 번째 꿈을 위한 그의 1막은 그렇게 영글어 가고 있었다.

꿈★2막 - 제과점

 # 정성스런 밀가루 반죽, 웃음 가득담은 단팥

10년간 잘나가던 슈퍼마켓을 접고 지금의 '케익하우스 쉐프'로 전업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씨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숫타니파타> 구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에서 찾는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처럼 저 또한 그토록 소망했던 어릴 적 꿈을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벌이가 괜찮았던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경기에 민감한 제과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힘들게 번 돈 다 날릴 생각이냐"며 극구 말리는 어머니며,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망하기 쉽다"고 재고를 바랐던 큰형님. 이 같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 이씨는 마침내 제과점을 차렸다.

당초의 슈퍼마켓보다 벌이는 녹록지 않았지만 어릴 적 꿈을 이뤄 창업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씨의 가슴은 여전히 벅차다. 요즘 그는 한 가지 행복이 더 생겼다. 슈퍼마켓을 하며 무료만두 · 떡보시 바통을 이어 2년째 '사랑의 빵'을 장애인, 가출 청소년과 고아들을 돌보는 복지단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보내주고 있다. 그것도 단순히 밀가루 반죽해서 그 안에 단팥을 넣어 만든 인스턴트 빵이 아닌 쉐프만의 자랑인 '비엔느와즈'를 준비했다. 보시도 최고급 빵을 하고 싶어서였다. 이것은 반죽해서 반나절 동안 숙성을 시켜 다른 재료들과 다시 반죽해 오븐에 구어야 할 만큼 손길과 정성이 많이 간다. "부처님도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접해 줬으니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이만큼 받아야지' 라는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진짜 봉사죠."

하루에도 수 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때론 짜증 낼 법도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시질 않는다. 위생이 생명인 빵을 손으로 덥석 집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손님에게까지도 말이다.

"중국 속담에 장사를 하면서 웃지 않으려거든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음 속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지 않을까요? 허허허."

꿈★3막 - 양복쟁이 농사꾼

 # '농업기술보급센터' 건립 좋은 쌀 개발 원(願)

그의 마지막 꿈은 양복 입고 농사짓는 것이다. 양복입고 농사를 짓는다? 그것은 농업의 자동화 · 기술화 · 현대화를 일컫는 말이다. 이씨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간단하다.

아버지 혼자서 쟁기로 논을 갈고 땡볕에서 피(잡초)를 뽑는 모습에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이다. 이씨는 향후 10년 안에 현재 대학에서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큰형 이문성씨(44)와 함께 고향인 파주에 '농업기술보급센터'를 세워 도시의 젊은이들도 시골에서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시대가 오도록 만들고 싶다는 게 생애 최대 목표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외국 쌀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 쌀, 특용작물, 시설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기계의 과학화가 최우선입니다." 세계 최강의 농업국을 만들겠다는 이씨의 포부다. 어릴 적 소중한 꿈을 차곡차곡 이뤄왔던 것처럼 그의 세 번째 꿈도 기대해 본다.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게 품질 좋은 우리 쌀을 보시하겠다는 것도 세 번째 꿈속에 포함돼 있다.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며 그 속에서 보시행도 펼쳐가는 이씨의 꿈들이 진정 아름다워 보이는 까닭은 '자타불이(自他不二)'를 실천하는 그의 향기 때문이 아닐까.

글=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대구 BBS 광복 60주년 기념 – 국토사랑 순례

금강산 · 신계사 순례 및 통일기원 대법회

● 기 간 : 2005년 8월 13(토)일 –15일(월) 2박 3일

● 일 정 :

8. 13	오전 07:00	대구불교방송 앞 출발
	오후 14:00	집결지 도착(현대 금강산 콘도)
	오후 16:00	남측출입사무소 출발
	오후 16:30	북측출입사무소 도착
	오후 17:30	저녁 식사
	오후18:00	자유시간(교예공연 옵션)
8. 14	오전 08:00	아침식사
	오전 09:00	금강산 관광(구룡연 코스)
	오전 11:30	점심식사
	오후 13:00	신계사 통일기원 대법회
	오후 14:00	금강산 관광(만물상 코스)
	오후 17:00	온천욕(옵션)
	오후 18:0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8. 15	오전 07:00	아침식사
	오전 08:00	금강산 관광(해금강 · 삼일포 코스)
	정오 12:00	점심식사
	오후 13:30	북측출입사무소 도착
	오후 15:00	남측출입사무소 도착
	오후 22:00	대구불교방송 앞 도착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과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도법사 :** 대구BBS 본부장 장적스님

■ **출발일시 :** 2005.8.13 오전 7시 ■ **출 발 지 :** 대구불교방송(건들바위 네거리) 앞

■ **비 용 :** 55만원 / 1인당 ■ **준 비 물 :** 3×4크기, 또는 여권 사진 2매 준비

■ **포함내역 :** 현지 2인1실 호텔숙박비, 현지 관광지요금 및 교통비, 식사비, 대구 ↔ 집결지 교통비

■ **불 포 함 :** 개인 온천욕, 교예공연등 개인 관람비 ■ **입금계좌 :** 대구은행 172-05-000087-8 (예금주 : 대구불교방송)

■ **신청마감 : 2000년 7월 18일**

■ **문 의 : 053)427-5114**(대구불교방송), 서울 경기지역 신청 연락처 **1544-0408, 011-844-6715**(담당 : 배병태)

■ **소지금지 품목**

① 10배율 이상의 쌍안경 / 망원경, 160미리 이상의 망원렌즈가 달린 사진기, 24배줌(광학기준) 이상의 줌렌즈가 달린 비디오카메라
② 개인의 치료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한, 상표와 설명서가 없어 그 성분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품 및 상품
③ 관광객의 문화생활 및 편의목적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수량을 제외한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화테이프
④ 위조지폐
⑤ 의료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한 독약, 마약, 그 밖의 유독성 화학물질

■ **준 비 물 :** ① 여행가방 또는 배낭 ② 지갑용 벨트 ③ 등산화 ④ 모자

BBS 대구불교방송



나의 수행법

이미화 (下)



사경수행자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영광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수 작업 중에 고려 사경들과 복장물들이 나왔다. 이 기회에 고려사경을 재현하는 의식을 거행한다는 사경연구회장 김경호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곧장 난 의식 제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사경복, 도구, 체본 등이 일사불란하게 갖춰졌다. 서울에서도 사경수행자들이 내려오고 하여 여법하게 진행이 됐다. 부처님의 가피력과 사경 수행의 힘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연등을 든 청의동자와 홍의동자가 앞장을 서고 번(幡)이 뒤를 따르며 악단이 그 뒤를 따랐다.

고려사경 재현 법회에 참여 '환희'
사경으로 많은 변화…늘 사물과 대화

사경지는 연(輦)으로 이운되고 스님들과 사경수행자들이 그 뒤를 따라 행진을 했다. 향수와 꽃을 뿌릴 때, 마치 고려 시대로 되돌아 간 듯 했다. 여법한 사경이 재현됐다.

그 순간 난 생각했다. '이곳에 모인 사경수행자들은 아무래도 고려 때 인연인 것 같다' 고. 사경수행자 모두는 환희심 속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연발했다.

108명의 사경수행자들이 모두 법복을 갖춰 입고 법당에 단정히 앉아 고려 사경 법회를 재현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뿐만 아니라 난 사경하는 동안 법당에 부처님의 법력이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그 후로 난 욕심껏 사경을 했다. 너무도 열심히 하다 보니 허리와 어깨가 아파왔다. 그럼에도 난 '아픔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합천 해인사로 찾아가 3보 1배도 했다. 이렇게 끊임없는 수행을 하다보니, 난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느끼게 됐다. 사경을 할 때는 항상 부처님께서 옹호 해주신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이렇게 해온 사경수행은 내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는 뜻이 늘 함께 했다. 모든 사물과 대화를 하게 됐고, 그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물의 마음과 일치됨을 경험했다.

사실 사경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눈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고서 부터는 아주 맑고 깨끗한 눈으로 바뀌었다. 또 묵은 병이 재발해 치료를 했는데, 사경수행으로 말끔히 나았다. 특히 많은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뤄져 환희심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난 사경수행을 통해 증득한 것이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정성을 다해 사경을 한다면, 누구든지 본묘각(本妙覺)을 덮고 있는 억겁 생사의 망령을 떨치고 청정 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중변불변론 무상승품>의 십종수지(十種受持), 또는 십종전통(十種傳通)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경은 부처님 이치대로 글귀와 뜻을 취할 수 있게 했고, 바른 마음으로 듣고 외워 조용한 데에서도 이치대로 헤아릴 수 있게 했다.

난 늘 '부처님, 사경수행을 통해 얻게 된 이 모든 환희심과 감사의 마음을 당신께 정중히 바치옵니다'라고 발원한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경수행의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

禪病 경전·어록에서 찾은 원인과 치료법

'뼈마디에 불꽃이 인다. 대장과 소장에도 불이 일어난다. 선정에서 나올 때는 머리가 아프고, 모든 맥이 부딪쳐 쪼그라들어 눈은 붉고 귀는 멍멍 해진다.' 이른바 '상기병(上氣病)' 증세다. 선수행자라면 반드시 한번쯤 겪는 '선병(禪病)'이다.

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잘못된 수행으로 이 같은 병을 얻는 일이 늘고 있다. 재가자들에게 있어, 선병으로 인한 증세는 '선의 생활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떻게 선병을 치유해야 할까? 최근 법성 스님(前 조계종 포교국장)이 <대승선경-선수행법과 선병치유법>을 펴내는 등 경전과 선어록에서 선병치유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선병은 왜 생기고 그 치료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경전과 선어록에서 알아본다.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병 부른다



장시간의 좌선은 선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상기병 발병의 주원인이 된다. 때문에 적당한 선체조로 수행자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광주 마하연 선원 신도들의 선체조 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빨리 깨닫고자 하는 조급함이 깨달음 방해
<선병요설>, 억지의심 등 6가지 병통 경계

무엇이 괴롭히는가?

가장 큰 선병은 상기(上氣)다. 상기는 기운과 열기가 머리까지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화두를 급히 든다든가 혹은 억지로 들 때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증세가 나타난다.

'어서 빨리 이뤄야지' 하는 속효심(速效心)은 상기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성급한 마음만 키워 신경을 날카롭게 하기도 한다. 속효심이 생길수록 화두공부는 더디게 된다. 속효심을 내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른 발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빨리 깨닫고자 하는 조급함이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한다.

또 화두를 빈틈없이 챙기지 못해 오는 '혼침(昏沈:정신이 몽롱한 상태)'과 '도거(徒居:마음이 산란해 들뜨는 상태)'도 선병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종류와 양, 수면시간 등을 조절하지 못하면 얻게 되는 병통이다. 또한 지나친 수마(睡魔)와 색욕(色慾)도 선수행을 방해하는 병통으로 보고있다.

선병은 왜 일어나는가?

가장 큰 요인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다. 중국 선종의 2조 혜가 선사가 앓던 선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혜가 선사가 스승 달마 선사에게 "마음이 편치 못하니 편안케 해달라"고 묻자, 스승은 "그 마음을 갖고 오라"고 말한다. 혜가 선사가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자, 달마 선사는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다"며 '안심(安心)법문'을 내린다.

이처럼 '깨달음에 대한 집착'은 '견성(見性)'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이 된다.

대한불교보림회 성상현 법사는 "수행자가 모양도 없는 불성을 보려고 하거나 그 현상을 기다리거나 얽매이다 보니 상기병 같은 선병이 발병한다"며 "불성의 자리를 본다는 '견성'을 '각성(覺性)'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심하지 않는 선수행도 선병의 한 원인이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 "의심 없는 참선은 죽은 공부"라고 단언하면서 "간절하게 의심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초수행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기본원리도 모른 체 하는 선수행이 선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의심하기 위한 의심을 하기에 선병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고 선에 대한 정견(正見)을 갖춰야 선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병 치료 방법은?

선병치료법을 담고 있는 경전과 선어록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치선병비요법경(治禪病秘要法經)>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 <선병요설(禪病要說)> <선경어(禪警語)> 등이 있다.

우선 진각혜심 선사의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은 선수행시 주의해야 할 10가지 병통(十種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있다·없다'로 이해하지 말며 △이치로 이해하지 말고 △분별의식으로 헤아리거나 알아맞히려 하지 말며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에 알음알이를 두지 말고 △말과 글의 틀로 살림살이를 짓지 말며 △아무 일 없는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화두를 들어 일으키는 곳을 향해 알려고 말며 △문자를 끌어와 증거 삼지 말고 △유무를 초월한 참된 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고 강조한다.

운봉 선사의 <선병요설(禪病要說)>에서 "참선공부하는 이가 조사의 공안상에 실답게 참구하지 못하고 병마에 끄달리면 본참공안(本參公案)을 투탈(透脫)하지 못한다"며 6가지 병통을 경계했다. 가령 수행자가 '억지 의심'을 일으키다 갑자기 마음이 초조·답답해지면, 이를 선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화두공부가 일체 조작을 떠난 것도, 조작하면 할수록 공부는 더 멀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선병요설>에서 적시하고 있다.

또 <좌선삼매경>에서는 수행자의 근기와 특성에 맞게 5가지 수행법을 제시, 사전에 병통을 예방하고 있다. 음욕이 많은 수행자는 '부정(不淨)법문'을, 성냄이 많은 수행자는 '자심(慈心)법문' 등을 설하고 있다.

특히 <치선병비요법경>은 선수행 할 때 몸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병과 마장에 대해 치유법을 12종류로 나눠 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기병 등의 치유법은, 선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두통이 심한 수행자에게 '온갖 색의 물과 갖가지 보배로운 꽃이 피어난 유리 항아리'를 관상하게 해, 상기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정(灌頂)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와 맥이 막힌 경우, 선수행 때 일어나는 음탐의 치유, 파계, 하체질환 등의 치유법등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선문화연구원장 성본 스님은 "선병에 대한 자가진단 능력이 없다면, 올바른 수행과 지혜가 나올 수 없다"며 "경전과 선어록을 정확하게 공부해 선에 대한 안목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 043-647-2378, 011-467-1472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매매 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TEL. 053)426-1037
H P. 011-527-1037
(서서열 전무)

‘대승기신론소’ 뜻 새겨 무명 걷어낸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⑧ - 부산 아미타도량 원효학당

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그것은 부처가 어떻게 중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갠지즈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공덕과 복덕을 갖춘 부처가 어떻게 했길래 이토록 볼썽 사나운 중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능가경>에서는 이것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설하고 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중생이 생기고 난 뒤, 가장 희망적인 통로가 열렸다.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중생이 부처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우선시 해야 할 일이 있겠는가? 이 길을 찾아 나선 공부 모임이 있다. 바로 원효 대사가 쓰신 걸작 중의 걸작, <대승기신론 해동소>의 지도를 따라 부처의 세계로 환원해가는 부산 아미타도량 원효학당 구도자(求道者)들이다. 원효학당의 <대승기신론소> 강의가 열리는 날, 강원에서 사용되는 한문본 교재를 사용해 스스로 문장의 뜻을 새기고, 부처님 말씀을 되살려 내다보면 불경은 어느덧 생동하는 언어가 되어 가슴을 울린다.


부산 원효학당에서 공파 스님이 <대승기신론소> 강의를 하고 있다.

강원서도 듣기 힘든 원효의 해동소 강의
‘경전은 어렵다’는 편견 깨고 믿음 뿌리내려

6월 30일 목요일, 대승기신론소 1기생들의 수업은 4권을 마무리하고 5권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소승의 여러 수행법에 마음을 뺏겨 대승의 바른 믿음에서 물러서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시작한 강의가 생멸문 끝자락에 와 있었다.

“진여의 자체상은 대지혜광명과 변조법계와 진실식지, 자성청정심, 상락아정과 청량 불변 자재를 완벽하게 구족해 있는데도 중생은 늘 궁핍과 모자람으로 허덕이고 있다. 중생은 부처의 성품인 진여와 함께 행주좌와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즉 부처와 더불어 자고 부처와 함께 일어나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슬픔과 고통에 점철되어져 왔다.” 5권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대승의 체대(體大), 상대(相大), 용대(用大)를 통해 진여의 공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런 중생들을 부처님께서는 ‘황제의 아이를 임신한 거지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지 여인이지만 황제의 아이를 낳아버리면 바로 거지 신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여자성이라는 씨앗만 발현시켜 그것을 훈습해 버리면 우리는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갖춰져 있는 내 진여자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훈습하느냐가 문제겠죠?”

출·재가자 함께 공부

스님은 다이아몬드의 예를 들었다.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빛을 내진 못해요. 다이아몬드를 덮고 있는 구름, 즉 무명을 걷어 냈을 때 한줄기 빛이 들어가 다이아몬드를 비추게 되고 그러면 나와 세상을 두루 비추고 남을 빛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원효학당 1기생들은 무명이라는 어두운 굉도에서 공파 스님이 치켜든 횃불을 따라 가며 진여자성의 실체를 확인해 가고 있었다. 원효 스님의 절절한 풀이와 공파 스님의 시대감각이 살아 있는 언어가 ‘생사윤회의 긴 잠에서 깨어나라’고 수강생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한문 경전 속으로 파고들어갈 듯 열중하고 있는 수강생 중에 스님 5~6명이 눈에 띈다. 모두 강원과 동국대학교를 마치고 선원에서 수년간 수행 정진한 스님들로 강의를 해도 손색이 없을 법하다. 재가자들의 면면도 예사롭지 않다. 원효학당이 생기기전인 5~6년 전부터 공파 스님의 경전 강의를 찾아서 들은 이도 있고, 기독교, 천주교를 두루 섭렵하다 공파 스님의 강의를 듣고 불법의 방대함에 매료돼 불교 공부를 시작한 이도 있다.

대승기신론소 1기생 강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벌써 1년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한 논장으로 이렇게 알뜰하고 끈기 있게 강의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효 스님의 해동소를 배우는 곳은 더더욱 드물다. 강원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강의로 한국 제일의 경전 공부 도량을 자부하는 원효학당에서는 공짜 법문에 익숙한 풍토에서 제법 비싼 강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한번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게 강의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공파 스님의 주옥같은 경전 해설이 수강생들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이다.

이미 강원에서 <대승기신론소>를 배운 스님들까지 다시 들을 만큼 공파 스님의 강의는 경전이나 논장이 결코 어렵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매혹적인 언어들로 진리의 길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30여 년을 경전 연구와 번역으로 이미 <부처님의 유언> <극락세계 ⅠⅡⅢ> <천수경의 원본경전> 등 여러 권의 경전 번역서를 펴냈고 부처님 말씀에 충실한 남방불교 수행도 두루 경험한 공파 스님의 경전 이해가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년 전부터 공파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권미정(30 · 의사)씨는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다.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를 잡을 수 있어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수행, 바른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했다.

“경전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

“경전 하나를 제대로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물음을 제기한 김대광(40 · 자영업)씨는 “불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경이나 논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가게 된다”며 “바른 수행의 길이 수행심신분에 나온다니 다가올 강의를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했다.

성낙석(40. 금융업) 씨도 “원효 스님이 전개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릴 때 밤새워 읽었던 중국 무협지보다 더 스릴 있고 더 스펙타클하다”고 탄복했다.

공파 스님은 말한다. “경전은 머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그래서 스님은 남들이 해석해 놓은 경전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경계한다. 스스로 뜻을 새기고 경전 원문을 해석하며 가슴에 삭이고 삭여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어 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나 일년에 한 경전 읽기를 실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을 외면하고 거지처럼 바깥을 향해 구걸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불제자의 길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대승기신론소 카페(cafe.daum.net/kongpaam)를 통해 온라인 공부 점검도 진행 중인 아미타도량 원효학당은 대승기신론소 강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효 스님이 무척이나 즐겨 인용했던 능가경의 핵심을 두 달 동안 공부하고 대승기신론소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051)611-3808

부산=천미희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5> 출가자는 ‘만인의 연인’

이미 열반하신 어느 노장님께 들었던 이야기다. 해방 전에 출가하신 까닭에 절 바깥에 나갈 때는 일본불교 영향으로 양복도 입을 수 있던 그런 시절에 하루는 도반들과 뭉쳐서 ‘용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갔다. 모두 승려라는 신분을 숨기고 사주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 노장님의 차례가 돌아왔다.

“거참 이상하네. 저렇게 멀쩡하니 생겼는데 장가를 못 가겠네.”

속으로 키득키득 웃었다. 당연하지.

“그런데, 에~ 이게 뭐야. 여자가 없어서 못 가는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가겠네.” 정말 신통하네. 어떻게 알았지. 출가자는 혼자 살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 동시에 모두가 주인이다. 이른 바 ‘만인의 연인’이다. 출가자의 존재의미는 정법을 오래토록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만 하는 ‘등거리외교’가 처신의 기본이다.



얼마 전 어느 일간지에 나온 유명 시인수녀의 인터뷰에서 ‘실속(?)없이 바쁘기만한 만인의 연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럴듯하다. 사람 사는 곳이다보니 가끔 인간냄새 나는 ‘로맨스’류의 이야기를 선어록에서 양념처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태전 선사에게 미모의 기생 홍련 보낸 한퇴지
속치마에 쓴 선시에 감동받고 불교에 귀의

제일 유명한 사건 중의 하나는 태전 선사와 기생 홍련 사이의 이야기일 것이다.

당시 큰 문장가요 선비로 명망이 자자했던 한퇴지는 불교를 비방한 탓으로 중앙에서 좌천을 당해 조주땅으로 내려와 분심을 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화풀이 일종으로 당시 그곳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태전 선사의 스타일을 구기게 할 목적으로 고을 제일의 기생 홍련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기생에게 준 임무라고 해봐야 뻔하다. 작업을 개시한지 백일이 되어도 태전 선사는 꿈쩍도 않았다. 그 고매한 인격에 반해버린 홍련은 선사를 애인이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작전이 실패하니 자기 신변에 대해 노심초사했다.

선사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홍련에게 한퇴지의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 해결방편으로 시 한수를 지어 주었다. 도력뿐만 아니라 글 실력으로 태전 선사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면서 그와 승부를 가릴 참이었다. 결국 예상대로 홍련도 살고 한퇴지마저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짜 실용성까지 겸비한 멋진 선시(禪詩)가 된 것이다.

축융봉 내려가지 않기를 십년(十年不下祝融峰)
색을 보고 공을 봄에 색 그대로 공이네(觀色觀空卽色空)
어찌하여 조계의 물 한방울을(如何一滴曹溪水)
홍련의 잎사귀에 떨어뜨릴 수 있으랴(肯墮紅蓮一葉中)

이건 사건도 사건이려니와 시 또한 의미심장하다. 난해한 다른 선시와는 달리 이해하기도 쉽다. 모든 구절에 두 가지 뜻이 함축돼 들어있다.

기생 황진이가 벽계수를 꼬실 때 읊었다는 “청산리 벽계수야…명월이 만공산하니…” 에서 보듯 벽계수와 명월(황진이의 호)은 본래의 뜻은 물론 두 사람을 함께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태전 선사 역시 미모의 기생을 보고서도 담담한 경지를 ‘색즉시공’이라 했다. ‘홍련의 잎사귀’와 ‘조계의 물 한방울’ 역시 남녀의 성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대단한 안목이다. 그리고 이 시를 한지가 아니라 홍련의 흰 비단 속치마를 펼쳐놓고 그 위에 붓글씨로 일필휘지 써 내려갔다는 상황 역시 상상만 해도 멋이 넘친다. 그 장면은 해인사 큰법당 뒤쪽 한 켠에 벽화(가운데 그림)로 남아있다.

혹 앞으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라도 이 시는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것 같다. 글자 몇 개만 바꾸면 지금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간 날 때 붓글씨 연습도 좀 해두어야 할 것 같다. A4용지에 궁서체로, 프린트로 뽑아줘서는 홍련 정도는 몰라도 한퇴지류의 수준까지 교화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가락동 로데오거리 200M 문정역 문정1동 동사무소 대한미륵창운회 유불선천기도장 성남방향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마조의 즉심즉불(卽心卽佛)

돈교는 선의 표어입니다. 그것이 혜능 이래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서로 표현은 다르고, 스타일은 달랐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부절(符節)처럼, 꼭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 하나로 마조(馬祖道一, 709~788)의 즉심즉불(卽心卽佛)을 짚어보겠습니다.

즉심즉불은 "네가 곧 부처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라면, 그럼 다시 부처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지요. 말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얻기 위해서, 혹은 피하거나 떨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기와를 갈아 거울을 만든다

마조는 스스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부처가 '되려고' 기웃거릴 점교(漸敎)의 부류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정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심즉시불(心卽是佛) 혹은 즉심즉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표어대로 만일 내가 부처라면, 이제 부처의 이름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부처로서 살아가는 일일 것이니, 더 이상 부처니 중생이니 따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불시불(心不是佛)은 어느덧 비심비불(非心非佛)이 되었습니다. 두 언사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이 소식을 <금강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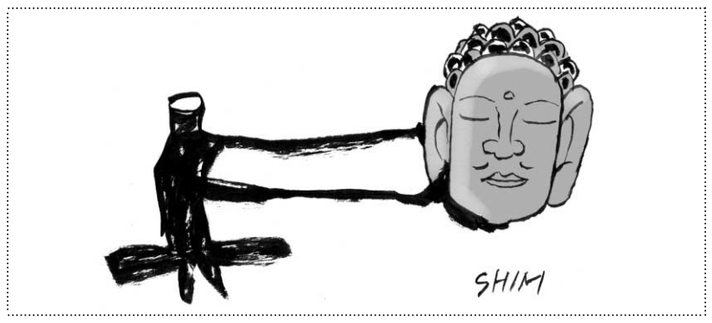
마조에게 이 돈교의 역설을 알려준 사람은 육조 혜능의 5대 제자 가운데 하나인 남악 회양(南嶽懷讓, 677~744)이었습니다. 남악은 첫 눈에 그가 범상치 않은 그릇임을 알고, 이렇게 떠 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무얼 하고 있나." "보시다시피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은 해서 무엇하려는가." 마조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가 되려구요."

다음 날 남악은 마조의 선방 앞에서 기와를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대는 소리에 눈을 뜬 마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얼 하고 계십니까." "보시다시피 기와를 갈고 있지." "뭐하시려고요." "거울을 만들려네." 마조는 크게 웃으며, "원, 농담도. 기와를 갈아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남악은 마조의 말을 잡아채듯 말했습니다. "그렇지. 기와를 갈아 거울이 안 된다면 퍼질러 앉은 좌선으로 어떻게 부처를 기약하는가." 쇠망치로 맞은 듯 얼얼한 마조가 남악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남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레가 안 간다면 소를 쳐야 하는가, 바퀴를 쳐야 하는가." 마조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악이 따끔하게 일렀습니다. "좌선이라고 앉은 부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된 원리는 앉거나 누움에 걸리지 않고, 궁극의 자리는 일정한 틀이 없다. 너의 따지고 가리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태도로 하여 부처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부처의 거리는 기실 아주 가깝다. 현실이 곧 궁극이고, 네가 곧 부처이다(卽心是佛). 지금 네가 그 본원의 걸림 없는 세계를 네 스스로 흩트리고 있지 아니하냐. 너의 가리고 따지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태도로 하여,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한 종종의 장애로 하여 부처의 걸음이 뒤뚱거리고 있다."

이 말에 마조의 눈이 문득 열렸습니다. 그는 진정 자신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에누리 없이 수긍했던 것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기웃거리지 마라



돈교의 깨달음이란 결국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른바 깨달음이란 것을 얻고 나서는, 한 바탕 배꼽을 잡으며, "소 위에 타고 앉아 소를 찾고 있었네."라며 자신의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탓하지들 않습니까.

깨달음은 없다

깨달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법(佛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싱겁기 그지없습니다. 조주(趙州)는 학인이 부처의 진리를 물을라치면, "차나 한잔 들지(喫茶去)"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엔 아무런 신비적인 낌새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싱거운(?) 이 진리에 범신론적 억지나 무리한 형이상학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선은 아무것도 아닌데, 더구나 신학이나 형이상학은 선(禪)의 소식과 십만 팔천 리입니다.

선은 불교를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종교의 창시자에게 '똥 닦는 막대기'라는 불경(不敬)을 서슴지 않겠습니까. 단하(丹霞天然 738-824)는 춥다고 법당의 목불(木佛)을 도끼로 쪼개 캠프파이어를 해 버렸습니다. 놀란 주지가 억장이 막혀 발을 구르자 태연히, "우리 부처님 사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라면서 재를 뒤적였습니다. 목불에 무슨 사리냐고 어이없어하자, 단하는 "사리가 없다면 부처님이 아니지"라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여, 초자연적 실재란 없고, 초월적 깨달음이란 것도 헛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實際)를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욕망의 흔적과 조바심 없이 관(觀)할 수 있을 때, 그곳이 곧 구원이고 법계(法界)입니다. 진리란 피곤하면 눕고 졸리면 자는 것일 뿐, 이밖에 무슨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지은 업(業)이 마음의 창고(如來藏)에 아무런 찌꺼기나 흔적(種子)을 남기지 않고 또 내일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부처입니다.

마조도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道)는 굳이 닦아 익힐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무엇을 오염이라 하는가. 생사(生死)를 의식하여 조작하고 선택하는 일체가 그것이다. 도(道)와 곧바로 만나고 싶은가.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이니라(平常心是道).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하는가. 인위적 조작과 주관적 가치판단이 없고, 의도적 선택이 없는 것, 사물에 대한 고착이나 방기가 없고, 진리에 대한 환상도 없는 바로 그곳을 가리킨다! 경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범부의 행(行)도 아니고 성인의 행도 아닌 것, 그것이 보살행이라고. 다만 이렇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 상황에 따라 응접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도(道)이고 그 세계가 바로 법계(法界)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⑭ 법회 선사의 '역모'

조태호



늑담법회(泐潭法會 ; ?~?): 남악문하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의 제자.

네티즌 교리문답

시다림이 무엇입니까?

문 아는 분이 상을 당해 상가집을 갔는데, 스님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스님께서 죽은 사람을 위해 염불해주는 것을 '시다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다림'이 무슨 말인가요? (궁금이)

답 1 : 타인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괴로움을 받는 것을 "시달림을 받는다" "시달림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은 남이 벌려 놓고 시달림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 때가 많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시달림'이란 단어는 불교의 '시다림(尸陀林)'에서 시원됐습니다.

시다림은 범어의 시타바나(Sitavana)를 음역한 것으로, 범어 시타는 '차가운(寒)'의 의미이고 바나는 숲(林)의 의미여서 한림(寒林)이라고 번역해 쓰기도 합니다.

<사분율(四分律)>에 따르면, 시타바나는 중인도의 마갈타국 왕사성 북쪽에 있는 숲이었습니다. 이 숲은 요즘말로 공동묘지로 성중에 사람이 죽으면 이 숲 시타바나(시다림)에 버려졌습니다. 따라서 시다림은 공포의 장소였으며 질병이 무성한 곳이었죠.

후일 나라에서 이 시다림에 악성 죄인들을 추방시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사분율>에 등장하는 시다림은 고행의 장소로 자주 택한 생매장터입니다.(저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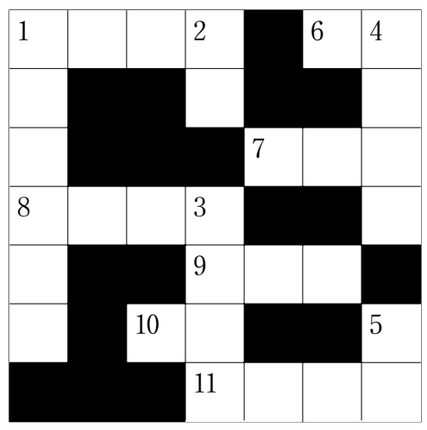
답 2 : 요즈음 우리나라 불가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위해 염불하고 축원하고 때로 설법하는 것을 '시다림 법문'이라고 합니다. 시다림은 사람이 죽어 염습(殮襲)을 하기 전과 염습 이후 발인(發靷), 발인에서 화장, 화장에서 매장까지로 구분됩니다.

사람이 죽은 직후일 경우 스님은 오방례(五方禮)를 합니다. 오방례란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에 계신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절차입니다. 오방례가 끝나면 '무상게(無常偈)'를 독송해 생사 무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힘으로써 가신 이는 물론 상주들의 마음을 생사초월 단계로 승화시켜 주지요. (불타)

답 3 : 보통 스님들은 장의 절차 구비구비에 법문을 해줍니다. 이를 통틀어 시다림이라고 합니다. 장의 시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시다림을 받는다"고 표현했을까요. 따라서 시다림은 공동묘지의 공포와 죽음 직후의 슬픔을 중생의 생사초월을 위한 큰 법문으로 승화시킨 숭고한 뜻입니다. (스님)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든 것 6. 가을걷이 후에 논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의 이삭, 어떤 일의 뒷이야기를 비유하는 말 7. 충북 대청댐 부근의 대통령 전용별장 8. '형설지공'에 등장하는 곤충 9. 열녀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旌門) 10. 외관상 오징어와 비슷한 어류로 화살꼴뚜기라고도 불림 11. 실학자 연암(燕巖) 박지원의 중국 기행문집.

세로

1. 육자대명왕진언 2. 합판, 얇은 판자, 글라스, 메탈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길고 평평한 활면을 구두나 장화에 붙인 것, 또는 이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겨울 스포츠 3.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4.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 5. 차가운 공기.



마음에 숨겨진 대량 살상무기 증오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러시W. 도지어 주니어 | 김지연 옮김
사이언스 북스 펴냄 | 1만8천원

과학적으로 증오심 분석…예방법 모색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건물, 왜 테러리스트의 눈에는 그날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오로지 적으로만 보였을까. 또 1998년 미국 오리건주의 한 고등학교 식당에서 열다섯 살의 킨켈은 왜 친구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증오심이다. 그래서 이 책의 지은이 도지어 주니어는 증오를 '인간 마음 속에 숨어있는 대량살상무기'라고 표현한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인간의 증오심에서 비롯된다.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증오의 과학>은 증오심이라는 인간 특유의 감정 속에 감춰진 수수께끼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증오심이 발생하는 인간 감정의 메커니즘을 생물학적 · 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증오심을 다스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은이에 따르면 증오가 폭발하면 예절과 인내는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은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집단 간에는 끔찍한 전투가 벌어진다고 강조한다.

증오란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서 동정과 연민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포용력은 차단되며, 희생양으로 삼은 상대방의 인간성까지도 말살시켜 버리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해부학 ·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증오는 '뇌의 원초신경계와 고등신경계 사이의 갈등'이라는게 지은이의 설명이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 외부자극과 감정에 즉각 반응하는 원초신경계와, 논리적 이성과 사색을 관장하는 고등신경계가 신경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감정과 이성을 혼동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번식 본능과 연결된 이성에 대한 관심을 낭만적인 사랑으로 미화하기도 하고, 야수적인 적대감과 증오를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인 열정으로 포장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증오심 예방 · 제거 10가지 전략

- 증오의 감정을 구체화 한다. 즉 화, 고통 또는 두려움의 원인을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 타인과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발전시킨다.
- 화와 두려움의 원인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감정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 갈등과 화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시도한다.
- 자신과 타인을 계도한다.
- 가능할 때마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한다.
- 과민반응을 하기보다는 사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 억압된 느낌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증오의 원천에 대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몰두하는 기회를 모색한다.
- 복수가 아닌 정의를 구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다친 이라크인들.

지은이는 증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증오의 원인이 되는 고통과 두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그렇게 하면 뇌 속 이성을 다루는 부위에서 이를 맡아 비이성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증오심은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동물실험 결과, 이 편도체를 제거하면 증오나 분노는 없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감정신호를 적절하게 받아들이거나 전달하지 못해 정상적 상호작용 능력도 없어진다. 결국, 증오나 분노심만을 제거할 수 없기에 증오심을 끌어안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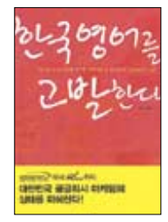
그래서 언론인과 변호사로 활동하며 과학 심리학 사회학을 아우르는 논픽션 저서들을 선보여온 지은이는 증오심을 예방하고 제어할 10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가능할때마다 효율적으로 타인과 협력하라' '화와 두려움의 원인을 타인과 이야기 하라' 등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지은이가 내세운 증오 예방책을 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너무 원론적인 '모범답안'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책은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도 증오를 고찰하고 있다.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고 간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이나 인종차별 범죄, 자살에 이르기 까지 증오의 다양한 사회적 표현 형태를 분석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한국영어를 고발한다
최용식 지음
넥서스 발행/9천8백원

콩글리시 마케팅의 천국 코리아

한국의 관공서와 기업에는 콩글리시가 범람한다.

영문일간지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기자를 거쳐 세종대 강사로 활동중인 최용식씨가 <한국영어를 고발한다>란 책을 냈다. 그는 서울시의 '하이 서울' 이나 삼성전자의 '디지털 익사이팅', 현대자동차의 '드라이브 유어 웨이', 농협의 '휴먼뱅크' 등 행정기관과 대기업이 떠들어 대고 있는 슬로건의 대부분이 잘못된 영어, 소위 콩글리시라고 공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채택한 '하이 서울'의 경우 슬로건의 주체인 서울이 스스로에게 '안녕 서울' 이라고 인사하는 형식이라고 꼬집었다. 지은이는 "현대 마케팅 원칙에서 슬로건은 주체가 되는 국가 · 도시 · 단체 · 개인 · 기업의 가치나 비전, 역사,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라며 "서울의 슬로건은 '우리가 이렇다'고 선언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효자상품 휴대폰 '애니콜'의 광고문구 '디지털 익사이팅'도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 없는 형용사를 연결해 놓았다는 점에서 오류라고 지적했다. 말이 되려면 '디지털 앤드 익사이팅', '디지털리 익사이팅' 혹은 '디지털 익사이트먼트' 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부분에서 1997년 애경의 '섹시 마일드' 샴푸모델로 나왔다가 나중에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이상한 샴푸광고를 찍었다"고 말해 국내 팬들의 반감을 산 미국 영화배우 맥 라이언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똑같이 형용사의 나열이라는 것이다.

또 현대자동차의 '드라이브 유어 웨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부정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매장에서 새로 산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고객에게 '드라이브 유어 웨이'라고 말한다면 영어식 사고방식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슬로건 '완벽을 추구하는데는 끝이 없다' (The pursuit for perfection has no finish line), 크라이슬러의 '영감이 기준이 된다' (Inspiration comes standard) 등의 슬로건을 잘된 사례로 들었다.

농협의 '휴먼뱅크'는 인간적 은행이 아니라 장기은행이 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원래 의도대로 인간적 은행이 되려면 휴먼에 e를 하나 더 붙인 휴메인(humane)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 쪽에서는 "슬로건이나 광고문구가 반드시 문법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고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도 들린다.

<한국영어를 고발한다>는 우리가 당연히 정확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정부나 기업의 영어 표현이 잘못돼 있음을 지적해 전국에 팽배해 있는 영어 열풍과는 상관없이 그간 우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의 영어 학습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일깨워준다.

지은이는 우리사회에 퍼져 있는 영어표현의 오류를 치밀한 설명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고 한국의 영어 문화와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창환 (문막고 영어교사)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십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번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찬찬 무료 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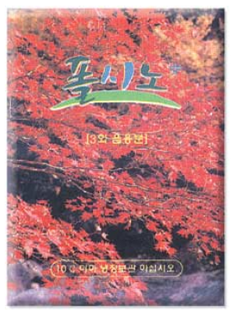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뇌졸증!
민간요법으로 대비하세요.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지가 최선입니다.



폴시노 요법으로 예방하십시오.
일본의 큐슈 가고시마현 지방에서 유래되어 게이쇼엔 양로원 노인들이 실험하고 비방을 증언하여 일본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민간식품 요법으로 이미 수만 명이 실험하였고, 음용한 분들은 아직 한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소개되어 10여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으며, 국내에도 여러 경로로 소개된 방법의 민간 식품입니다. 국내에도 각종 경로로 전파된 정확치 않은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이미 음용한 경험자도 있는 뇌졸증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요법이니 본 요법을 평생 수회만 반복 음용한다면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접해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폴시노 음용자로 등록하여 회원이 되시면 뇌졸증 발생시 보상 지원금을 드립니다.
(구입 금액의 300% 보상지원 : 단, 5년간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 허가 신고번호 : 인천 제3-3-4호, 구로 제조 142호
● 품명 : 폴시노 / ● 주원료 : 매실, 머위, 기타, 혼합물

콜라겐 체감석도 판매합니다 취급점 모집

오성생활건강 사업본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4-3호 하은빌딩 202호
전화 02)542-5214. 010-6347-6200
농 협 100015-51-030669 (예금주 : 서영숙)
국민은행 059402-04-034722 (예금주 : 서영숙)



세상사는 지혜 담은
'정선강의 채근담' 번역

'십현담주해'로 푼
선불교적 시세계



퍼내도 줄지 않는 바다 … 만해

만해 한용운의 풀뿌리 이야기 한용운 지음 | 효림 스님 옮김 | 바보새 | 1만2천원
만해의 시와 십현담주해 김광원 지음 | 바보새 | 2만원

만해 스님은 우리 불교사나 문학사에서 퍼내도 줄지 않는 바다와 같은 존재다. 수행자이자 시인으로, 수난기에 민족을 구하려 했던 독립지사이자 정신적 지도자로서 다양한 삶의 무늬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문학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에, 민족운동가와 수행자로서의 모습이 덜 알려진 면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누구나 만해 스님을 알지만 그 진면목을 아는 이는 오히려 드물다.

이런 점에서 지난 6월 29일, 스님의 열반 61주기를 기해 바보새 출판사에서 선보인 <만해 한용운의 풀뿌리 이야기>와 <만해의 시와 십현담주해>는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다.

<만해 한용운의 풀뿌리 이야기>는 1917년 발간된 만해 스님의 <정선강의 채근담>을 효림 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정신 수양의 방편으로 <채근담>을 택한 만해 스님은 단순한 처세술만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치를 알려준다. "흰머리의 슬픔이 없으려면 젊어서 뜻을 잃지 않아야 한다" "불운에 빠져 곤궁하고 쓸쓸하더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조를 지켜라" 등의 가르침은 발간된 지 9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책에서는 <채근담> 원문은 생략하고 만해 스님의 해설만 가려 '수양과 성찰' '마음 자리' '평가와 토론' '마음의 여유' '처세와 수양의 논리'로 나누어 정리했다. 여기에 효림 스님이 만해 스님의 글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덧붙였다. 효림 스님은 "<정선강의 채근담>은 그 문장이 더할 수없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 일생을 수행하는 승려이자 독립지사로 살았던 스님의 사상과 철학 · 처세술 등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한다.


만해기념관의 만해 스님 흉상.

<만해의 시와 십현담주해>는 의상만해연구원 김광원 연구위원(전주 중앙여고 교사)이 만해 스님의 시를 그의 삶과 사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책이다. 지은이는 "선(禪)의 세계를 기초로 사랑의 원리를 담고 있는 <님의 침묵>은 그 난해성 때문에 아직도 시에 내재된 일관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풀이되고 있다"며 "한시와 자유시, 시조 등 스님의 모든 시는 선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은이는 만해 스님의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십현담주해>을 주목한다. 지은이는 "<님의 침묵>에 실린 90편의 시와 <십현담주해>의 90구(句)를 대조해 본 결과, 이들은 서로 일대일의 순차적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곧 <님의 침묵>의 창작 배경이 <십현담주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례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라는 구절은 <십현담주해>의 '꽃이나 달과 같은 일체의 아름다운 것이 일찍이 모두 없어져야만, 미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옥과 같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은이는 만해 스님의 생애와 정신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불교 사상, 문학사적 위상 등을 다양한 참고문헌을 토대로 살피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불교 종단 현황 한눈에


한국불교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펴냄
비매품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불교 종단이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6개 회원종단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집 <한국불교>를 펴냈다.

각 종단에 대한 소개와 대표적인 사찰, 주요 활동 현황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창립 과정과 역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산사의 하루나 스님이 되는 과정, 강원과 선방의 역할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도 담겨 있다.

법장 스님은 발간사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전통과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02)732-4885


깨달음으로 가는 길
지운 스님 지음
법공양 | 1만원

자비수관 수행법 지침서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는 지운 스님(대구 용연사 주지)이 자비수관의 정의와 구체적인 수행법 등을 담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펴냈다.

'자비수관'이란 위빠사나와 밀교 수행이 가미된 수행법으로, 의식으로 만든 자비의 손(手)으로 몸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연기법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몸의 감각이 사라져감에 따라 감정과 심리도 사라짐을 보고, 근본마음인 불성(佛性)을 깨닫는 것이다. 그동안 남양주 봉인사와 불교TV 등을 통해 자비수관 수행법을 지도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자비수관의 정의, 관찰의 대상과 깨달음의 수단, 수행효과와 이익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글의 각 단락 마지막에는 '되돌아보기'를 두어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독자들이 더 궁금해 할 사항을 풀어주고 있다. 특히 수행 중에 나타나는 단계별 특징과 잘못된 수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일러준다.


암베드카르 평전
게일 옴베트 지음
이상수 옮김
필맥 | 1만1천원

불가촉천민의 해방자 암베드카르

"우리가 고양이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나의 조국이라 부르고, 이 종교(힌두교)를 나의 종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촉천민의 해방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불리는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1891~1956)는 카스트 제도의 뿌리라 여긴 힌두교를 공개적으로 버렸다. 그 후 20여년에 걸친 숙고 끝에 그는 불교를 선택했다. 불가촉천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종교라 여겼기 때문이다.

<암베드카르 평전>에는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그들을 부당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앞장섰던 암베드카르의 일대기가 담겨 있다.

책에서는 특히 20세기 초 인도 해방을 위해 앞장섰던 간디와 암베드카르의 사상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은이는 "1932년 이후 암베드카르는 간디를 진정한 개혁가가 아닌 카스트 제도에 묶인 힌두교의 수호자로 여겼다"며 암베드카르는 진정한 인간해방과 평등을 위해 불교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인도 네루기념박물관 선임연구원인 게일 옴베트가 쓴 책을 이상수 교수(한남대)가 우리말로 옮겼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새로나온 책



■ **<우리가족 환경이야기>**(한국불교환경교육원 펴냄, 비매품)='쓰레기제로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유수)이 지난해부터 정토회 회원 가족을 대승으로 실시한 '가족환경실천단 쓰레기제로운동'의 실천사례를 책으로 펴냈다. 쓰레기제로운동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면생리대 사용하기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 300여명에 달하는 가족환경실천단이 일일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쓰레기제로운동을 실천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토회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쓰레기제로운동 실천현황과 어려운 점, 가정에서의 쓰레기 발생 경로, 처리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의 체험기와 일일점검표 작성법, 실천목록 등이 실려 있어 가정에서의 실천 지침으로도 쓸 수 있다. (02)587-8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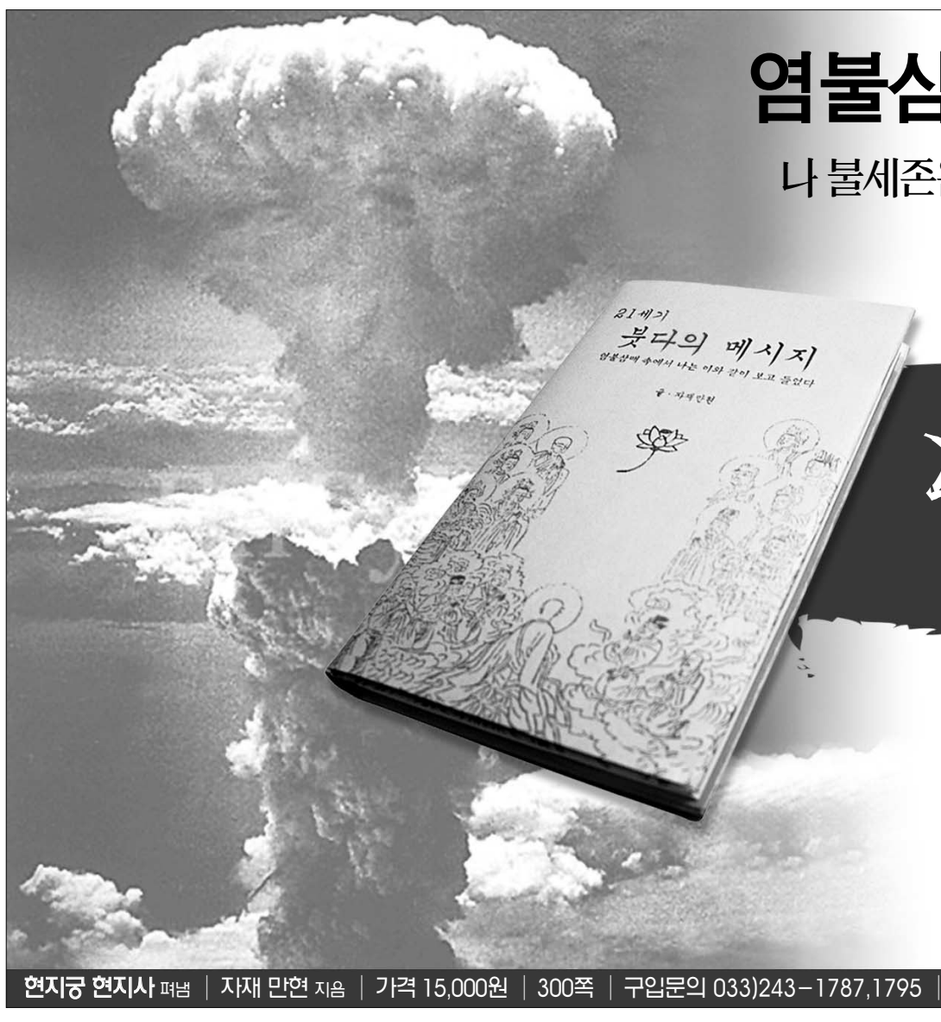


■ **<보리 부처님>**(김연호 지음, 수미산, 1만원)=우리는 선우 제천지회 김연호 회장(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이 두 번째 수필집 <보리 부처님>을 펴냈다. 김 회장은 1973년부터 충북 제천 지역에서 제천불교청년회, 제천불교학생회, 제천거사림회 등의 불교 단체를 창립하고 불서 보급, 군법당 법회 지원, 티베트난민 돕기 운동 등을 펼치며 지역 불교를 이끌어 온 인물. 지난 199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소장 문화재 500점을 국립청주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 책에는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과 일상생활에서의 단상, 포교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보람, 티벳 성지 순례기 등 40여 편의 수필이 담겨 있다.



■ **<사소한 것은 날려 버려라>**(사이토 이사무 지음, 안희탁 옮김, 지식여행, 9천5백원)=사이토 이사무 교수(일본 릿쇼대)가 들려주는 '마음의 응어리 푸는 법'. 사이토 교수는 "하루 5분씩만 '마음의 마사지'를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찰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상처 인정하기,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상대방의 화 풀기, 질투심을 자기 계발에 이용하기 등의 지침이 소개된다.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
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등은 불교사의 미증유한 사자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달포만에 재판돌입, 베스트셀러 1위 (도서총판 운주사 6月 집계)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장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예 부흥 ….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 우리는 수행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혹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현 스님(춘천 현지사 회주)이 전하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자 (현대불교신문)
현지궁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作 'TV부처'(아래)와 김해민의 TV해머모니터1(위).

미디어아트와 불교

현재 용인의 이영미술관에서는 '108번의 삶과 죽음(~8월 3일)'이라는 미디어아트 전시가 진행중이다. 박생광 화백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불교와 샤머니즘 등의 사상을 현대적 기법으로 살린 박 화백의 작품은 영상매체라는 기술적인 언어로 다시금 되살아났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박 화백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비디오 설치 작업 등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구현해낸 것이다.

박 화백 예술철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불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교라는 주제로 하는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됐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비디오 아트를 포함해 웹아트·게임아트 등 미디어아트 분야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지, 불교와 미디어아트를 접목시키는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게다가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로의 여행(~8월 15일)' 전에는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 그리고 선불교가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디어아트 거장 빌 비올라 등의 전시도 함께 선보이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교와 미디어아트에 대해 알아본다.



영상으로 해석한 불교… 또다른 깨달음

공과 색·가상과 현실 두 세계 "새로운 불교예술 전형될 수 있다"

▽미디어아트란?

미디어아트는 말 그대로 미디어를 이용한 아트(ART·예술)다.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수단인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이다. 책이나 잡지 신문 만화 포스터 음반 사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제작되는 예술을 통칭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영상매체를 응용한 예술장르를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디어 아트의 가장 초기 형태는 TV를 이용한 이미지의 변형이었다. 이것은 'TV Magnet', 'Zen For TV' 등 백남준의 초기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초기 미디어아트 작가들은 기술 매체를 단순히 예술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세계의 이미지들을 여러 기술매체를 통해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런 경향은 90년대까지 지속됐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매체 형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후기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경우 여전히 기술매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 작품에서 영상매체는 작가의 '수단'이기보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평이다.

정용도(미술비평가)씨는 "전반기 작가들이 자기 의식세계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구성했다면, 후반기 작가들은 작가의식을 이미지 세계 속으로 편입시켜 버린다"고 말했다. 그 이미지들은 전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로써 관람자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미디어아트 전문가들은 "비디오아트는 화면에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바깥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교-미디어아트 접목하는 작가군

해외에서 활동을 벌여온 백남준은 이미 1960년대에 비디오아트의 길을 열었다. 국내에서도 1977년경 박현기씨에 의해 미디어아트 작업이 시작됐으나, 미디어아트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84년 백남준 작품이 소개되면서부터다.

그러나 현재 국내 미디어아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은 김영진, 김해민, 육태진, 한계륜, 홍성철 등 30~40명 안팎이다. 그 가운데 불교를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TV부처' '미소짓는 부처님' '부처 신 악마 기억' 등의 백남준, '만다라' 작품으로 유명한 박현기 등이 바로 그들. 이들의 작업은 불교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영상에 활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굳이 불교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해민, 육태근, 석영기 등의 작품은 선(禪)의 정신과 통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승준, 이한수 등 신예 작가의 경우 불교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불교사상의 현현을 유도하기도 하기도 한다.

특히 현재 이영미술관에서 '108 Elements For Circle' 등의 영상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이승준씨의 경우, 한 인물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뭉치는 군중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두 개의 프로젝터를 설치해 그 하나는 흩어지는 모습만을, 다른 하나는 뭉치는 모습만을 빠르게 돌려 그것이 하나의 화면에 투시되도록 설치한 것이다. 작가는 "기쁨, 괴로움, 무심 등의 여러 감정 상태가 끝없이 생성되고 해체되지만 그것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아트와 불교 모두 이 시대 예술의 대안"

그동안 미디어아트 작가 가운데는 샤머니즘과 미디어아트를 함께 연구하는 이들이 많았다.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죽은자와 산자의 세계, 저승과 이승, 초월공간과 현실공간을 매개하는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하듯이, 미디어 아트가 가상과 현실 사이에 새로운 교류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판단에서다.

불교와 미디어아트의 관계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미술평론가 이원곤 교수(단국대)는 "성과 속, 공과 색의 세계를 함께 다루는 불교 역시 미디어아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며 "가상과 현실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디어 특성을 살려 두 세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깨달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조각이나 회화 등 타예술매체에 비해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쉽다는 강점도 있다. 미술평론가 박영택씨는 "미디어아트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미지 변화와 해체 등을 살피는 시간예술"이라며 "정지돼 있는 표현매체보다는 메시지 전달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포교효과가 뒤따르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시대 불교예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선(禪)을 근간으로 미디어아트계를 이끈 빌 비올라의 예를 들어, "미디어아트가 이 시대 불교를 새롭게 해석하고 반영하는 불교예술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신재 기자

- 80년대 백남준의 작품 소개되며 미디어아트 국내에 보급
- 초기 작가들 기술 매체를 단순히 예술 표현 수단으로 사용
- 후반기는 의식을 이미지 속에 편입 독립적 존재 표현으로

공 고

본종은 불기 2548(2004). 4. 21. 재단법인 인가를 취득하고, 불기 2549(2005).6 10일 부로 상표법에 의거, 업무표장등록(특허청 등록 제0001689호)을 필한 바.



大韓佛敎元曉宗
대한불교원효종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무단 사용 하였을시
상표법(제 10장 처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고함.

불기 2549(2005)년 7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
(재)대한불교원효종 이 사 장 송기욱(무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전화 02)735-0501 팩스 02)736-3509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정토대경 [무량수경] 강좌!!



말세중생들이여!
대승의 미묘한 법문 들어
깨달음이루시라!

여기 한 납승(세수87세) 있어
그대들과 [무량수경]의 종요로움으로
연꽃피움을 허하노라!

- 석효란(釋曉鸞)

● 강좌시작 : 제1기(선착순)
불기2549(2005). 7. 20(수) 매주 수요일 18:30 ~ 20:30(2시간), 1기당 3개월 예정
● 장 소 : 아미타사(비원앞) ● 강 사 : 석효란 큰스님 ● 수강료 : 3만원(교재제공)
● 문 의 : 아미타사 ☎ 745-3351, 3352
● 오시는 길
- 전철 : 1, 3, 5호선 종로 3가역 ⑦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창덕궁 하차) 109,151,162,171,172,272,1012,7025
비원길 창덕궁(비원)방향 우측노변 '대각사' 표지판 지나서 비원슈퍼 옆 아미타사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사
南無阿彌陀佛 阿彌陀寺
"Namo Amita Buddha" Amita Monastery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69번지 (우)110-360 ☎ 02)745-3351, 3352 / 본사 : 강원도 망경산사 033)374-8007, 9007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0>



어떤 시아버지 이야기

급고독장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마제. 매우 아름답고 품행도 단정하여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어느 날 급고독장자에게 친구인 만재장자가 찾아왔습니다. 수마제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자 며느리감을 찾고 있던 만재장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보게,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주게나."

하지만 급고독장자는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은 독실한 불자집안인데, 친구의 집안은 자이나교의 나체행자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승낙을 미루던 급고독장자는 친구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부처님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처님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흔쾌한 허락으로 장자는 용기를 내어 딸을 시집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재장자의 고향인 만부성에서는 성 밖의 사람들과 혼인 맺으려면 자기들이 믿는 나체행자 6천 명을 초대하여 정성껏 음식을 공양하면서 허락을 얻어야 했습니다. 만재장자도 6천 명이나 되는 나체행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음식을 대접한 뒤에 며느리를 불러내었습니다.

수마제는 시아버지의 명을 받고 단정하게 치장하고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체행자들을 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부처님과 제자들은 모두가 법다운 모습으로 공양을 받는데 저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봅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리 타이르고 권해도 수마제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체행자들은 크게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의 행실치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무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한숨 속에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애초에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며느리가 너무나 완강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제정신을 잃었던 게야. 며느리를 잘못 들여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마침 이때 장자의 오랜 친구가 찾아와 그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네. 어서 부처님을 집으로 모시고 법을 들어보게나."

친구의 권유로 결국 만재장자는 며느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아가, 네가 믿는다는 그 부처님을 나도 한번 뵙자꾸나. 그 분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렴."

자기 때문에 시집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 가슴 아팠지만 옳은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제안이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처님과 제자들을 시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만부성으로 들어오시던 날, 한번도 부처님을 뵌 적이 없는 성의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재장자의 집안에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킨 며느리의 '그 스승'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자의 여법한 공양을 받고 난 부처님은 만재장자에게 오계를 지킬 것과 보시할 것, 그리고 선업을 닦아서 천상에 태어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나아가 탐욕과 번뇌는 더러우니 속히 벗어나라고 이르셨습니다.

뜻 거역한 며느리 타박않고 먼저 마음 연 만재장자
부처님 집으로 모셔 설법듣고 제자되어 혜안 열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장자의 생각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을 받아들일 마음가짐이 갖추어졌음을 보시고 부처님은 이어서 사성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보는 깨끗한 눈을 얻게 된 만재장자는 동쪽 동산에 절을 지어 승단에 바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성의 사람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거역한 며느리를 타박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먼저 연 시아버지 만재장자. 그는 며느리로 인하여 진리의 세계에 발을 딛을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어떤 칭찬의 말을 하였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구나. 너는 내 어머니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절을 '만재장자 어머니의 강당(녹자모강당)'이라 불렀습니다.(보요경, 증일아함경 수타품)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무엇때문에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묘허 스님.

묘허 스님은 1943년생. 1957년 상주 남장사에서 한산당 화엄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63년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5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 성암강백 화상 밑에서 대교이력 및 <전등록>을 이수하고 이후 제방에서 정진하였다. 특히 통도사 보광선원 수선안거이래 11하안거를 성만했다. 1975년 은해사 말사 법주사 주지를 거쳐, 1979년 신탄진 신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대전 신흥사 김해 원명사 단양 방곡사 회주를 맡고 있다.

악의 열매가



지상 백고좌

묘허 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우리가 불교를 믿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깨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가를 잘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깊이 알고 들어가보면 우리의 본래 모습 즉 '자성'인 참나가 불생불멸(不生不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더한것도 없기 때문에 덜한것도 없고, 본래 더러운 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요, 자성(自性)이요, 참나입니다. 바로 이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 불교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나는 불생불멸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나고 죽고 오고감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우리 중생 스스로가 참나를 망각하고 오직 부모에게 받은 이 육체에만 집착해 일생동안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과 종노릇하면서 이 놈만 행복하게 해주려고 업(業)만 짓고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몸뚱아리의 안락만을 위해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것, 이것이 우리네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생사의 근본 , 윤회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업이지요. 이 업이 태어나고 죽음의 근본이 되고 윤회전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뭐라 그럽니까. 전생에 업이 얼마나 많은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아이구 이래도 업이다 소멸되지 않았는지 이런식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대체 업이 뭔데?"하고 물어보면 분명하고 똑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이 본래 우리말이 아닙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국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바로 업(業)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업을 가장 알기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지요 이것도 결국은 현재 하는 일 즉 업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상업이다, 농업이다, 공무원이다 그럽니다. 이것도 일종의 업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일거수일투족 행위 자체도 업 아닌 것이 없지요.

업은 크게 '사업(思業)'과 '사기업(思己業)'으로 나눕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선악시비를 누가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목전에 선악과 시비가 왜 나타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선과 악으로 갈라질까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그다음에 착한 생각, 어진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 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 좋고 나쁜 생각 등 그 생각 자체를 '사업(思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꺼버리면 업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버리면 '작위업(作爲業)' 즉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결정지어진 생각을 우리 몸뚱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위업(行爲業)' 즉 '사기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칭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생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업을 또 나누어 보면 선업과 악업, 무기업 등 세 가지로 다시

2005년 팔공산 동화사 여름 수련회

팔공산 동화사에서는 2005년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부처님 말씀의 지고함을 배우고 익혀, 신심을 청정히 하고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합니다.
이 수련기간을 통해 타성에 빠진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수련회 수련생을 다음의 일정과 절차로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련회 일정 "참된 자아를 찾아서"

	기간	대상자	인원
1차	7월 16일 ~ 7월 17일(1박2일)	고등학생	80명
2차	7월 18일 ~ 7월 19일(1박2일)	중학생	80명
3차	7월 28일 ~ 7월 31일(3박4일)	일반/대학생	60명
4차	8월 4일 ~ 8월 7일(3박4일)	일반/대학생	60명

■ 접수기간 : 2005년 6월 21일부터 선착순 마감
■ 신 청 서 : 신청서 양식은 동화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및 팩스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화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시 전송 후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참가비: 중/고등학교 2만원, 일반/대학생 6만원
■ 접수 방법 및 등록 :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하며,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면 수련생으로 정식등록이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더라도 입금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대구은행 179-05-000614-1 동화사
※입금하실때는 수련회 접수이름과 동일명으로 입금하시고, 입금확인서 사본을 동화사로 송부바랍니다.
■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체육복, 운동화, 이불(침낭) 수건2장(발우공양), 수저, 간편한복장
■ 접수안내: 전화 (053)982-0101, 팩스 (053)985-4405

※자세한 내용은 동화사 홈페이지(www.donghwasa.net)를 참조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칼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칼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익으면 반드시 재난 당한다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가 함께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행위가 선업이고, 자신과 상대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악업이며, 자신과 남에게 해도 득도 모두 안되는 것이 바로 무기업입니다. 무기업은 힘이 없는 업, 무기력한 업을 말합니다. 왜 나같이 힘없는 늙은이를 무기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런 업들을 우리는 몇가지 신체기관으로 짓게 됩니다. 신구의(身口意) 즉 몸과 입과 뜻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바로 신구의 3업이라고 합니다. 첫째, 몸으로는 살(殺), 도(盜), 음(淫)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몸으로는 세가지 업을 짓게 돼 있지요. 둘째, 입으로는 네가지 업을 짓는데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는 탐, 진, 치 세가지 업을 짓지요. 신구의 기관을 통해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악업이 되고 좀으면 선업이 되지요.

업에는 또 나와 남이 함께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공업(共業)' 이 있고, 그 과보를 혼자 돌려 받는 '불공업(不共業)' 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의 3업을 통해서 한번 짓고 저질러 놓은 업은 백겁 천겁 만겁이 지나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때에는 또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선업은 선보(善報),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내가 좋은 일을 해놨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업은 악보(惡報)라 했지요. 나쁜일을 지어 놓았으면 나

생사의 근본은 윤회, 윤회 원인은 업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선악 갈라져
달콤한 유혹도 물리치고 선업 쌓아야

쁜 결과를 가져오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고 덕만 보려는 못된 사람인데 지금은 굉장히 부자인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것을 나눠줄 만큼 착한 사람인데 가난하게 삽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스님이 설명하시는 인과법대로라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법구경>의 구절로 답을 하지요.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때론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반드시 재난을 당한다.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끔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고 말입니다.

악한 자가 지금 잘사는 것은, 잠시동안이나마 그 사람의 지난 업의 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업의 열매가 익었을 때 그 사람의 복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선한 자가 현재 못사는 것도 지난 업의 결과 입니다. 하지만 좋은 업을 짓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순현보(順現報)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업을 현생에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교도소 입니다. 교도소 담장안에 수인의 몸이 돼서 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들, 전생에 진게 아니고 바로 금생에 지은 업 때문에 과보를 받는 것 아닙니까? 나쁜 생각을 생각에서 꺼트렸으면 괜찮은데 그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과보를 받는 것이지요.

둘째,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돌려 받는 업이 있어요. 이것을 순생보(順生報), 순차보(順次報)라고 합니다. 셋째, 금생에 지은 업이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에



좋은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묘허 스님.

도 그 결과 과보가 도래되지 아니하고 저 후생까지 뻗쳐 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것을 순후보(順後報)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바로 그 과보를 돌려받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착하고 선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대로 잘 안 풀려나가는 사람은 지금 짓고 있는 업이 아직 설익은 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놨어도 맛이 있거나 없거나 먼저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야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 맛없다고 아직 익지도 않은 설은 것을 먹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다시말해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익지 않은 설은 업이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덕으로, 지금은 비록 악한자라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이 업은 생유와 본유, 그리고 사유와 중유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 자리잡고 있을때인 입태, 세상에 나오기전까지 뱃 속에 있는 동안의 처태, 태어남의 출태, 이 세가지를 한마디로 생유라고 하고,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을 본유라고 합니다. 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사유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다시 이생으로 돌아올 때 까지를 중유라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생유에서 본유로, 사유에서 중유를 통해 다시 사유를 거쳐 생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에서 사로 가면 돌아가신 것이지만, 사에서 다시 생으로 오니 돌아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윤회와 업연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 금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정확히 나오지요. 불자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때론 달콤한 유혹이 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선업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내생생히 평안하고 더 달콤합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현문 스님 (上)

나는 송광사로 출가하면서 현문 스님을 처음 뵈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면 내복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나는 합섬 내복 안에 런닝셔츠를 입지 않고 있었다. 현문 스님은 합섬내복 안에 런닝셔츠를 입지 않으면 어린 피부가 상한다며 손수 입혀주셨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늘 지켜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의 은사스님 현문 스님을 생각하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지키는 대나무가 연상된다. 스님은 당신 수행에 대해서는 한 치의 여유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을 지녔으면서도 상좌나 이웃에게는 자애롭게 구석구석 마음을 써 주신다.

현문 스님은 상좌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

'상좌 교육을 책임지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 는



그림 · 문병성

말을 자주 하셨고 , 또한 은사와 상좌의 관계는 '은사로서만이 아니라 같이 법을 구하는 구법자적인 도반으로, 인간의 정리(情理)적인 입장에서도 친구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신념이 있다.

그래서 상좌가 강원에 가면 같은 가람 선원에 안거하면서 상좌 공부를 지켜보셨다. 상좌들이 서울 공부를 하게 되자 지금의 상도동 장승백이 약수암 절을 가꾸어 공부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1974년 해인사 강원 치문반 때 일이다. 은사스님도 선원에서 정진을 하셨다. 그 때 해인사는 선원, 강원을 망라해 대중이 많았다. 대중이 많다보니 공양을 할 때면 중좌에 겹중좌를 치고 공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공양하는 시간이면 큰스님과 선배스님들에게 청수를 따르고 공양을 푸고 국을 떠드린 뒤, 공양 중간에도 숭늉을 따르고 찬상을 날라야 했다. 공양이 끝날 적이면 어간 큰스님 앞에 나아가 합장 반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큰스님이 주시는 발우를 받아 선반에 올려놓고난 뒤에 내 발우를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초심자가 큰스님의 발우를 받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을 짓는 일이라 신이 났다.

삼개월이 지나고 후원 소임자들이 방부를 들이자 대중 방은 더욱 좁았다. 새 대중이 들어온 만큼 그 일에 밀리게 되어 공양이 끝나면 스스로의 발우만 올려놓으면 됐다. 대신 선반이 부족했다. 여의치 않은 사람은 벽장 책장에 넣어야 했다. 은연중에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공양을 마치는 죽비도 치기 전에 발우를 올리다 소임자 선배에게 혼이 나기도 했다. 포기할 때도 있지만 오기가 생길 때도 있다. 그날은 작심한 날이었다.

올리려고 하다 옆 도반이 내 팔을 쳐 발우가 떨어졌다. 발우를 들어올리기 전에 어간에 서 있는 은사스님 눈치부터 봤다. 몹시도 표정이 굳어 나가셨다. 당시는 목 발우와 사기발우가 유행했지만 나는 플라스틱 발우였다.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발우는 깨졌고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잠시 후 현문 스님이 후원 객실로 나를 불렀다. 발우가 어찌 되었느냐고 묻기에 조각이 나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스님의 걱정은 컸다. 수행자가 발우를 지니는 것은 부처님의 큰 복을 얻은 것인데, 그 복을 잃은 것도 아니고 깨트렸으니 수행자 생활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느냐며 어디에다 복을 담아 연명할 것이냐고 걱정하셨다. 내

상좌들 교육에 지극정성
자신에겐 빈틈없이 엄격

가 깨진 발우로 공양하기를 여러날이 지나자 은사스님은 새 발우를 사 주셨다.

상좌들을 공부시키면서 애태우는 일도 많으셨다. 그래서 상좌들에게 가끔씩은 "내 죽거든 가슴을 열어 보아라. 아마도 새까맣게 타 버렸을 것이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곤 한다.

현문 스님은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루빨리 스님들을 위한 정립된 교육도량, 신도들을 위해서는 전문수련 도량이 종단차원에서 설립 운영돼야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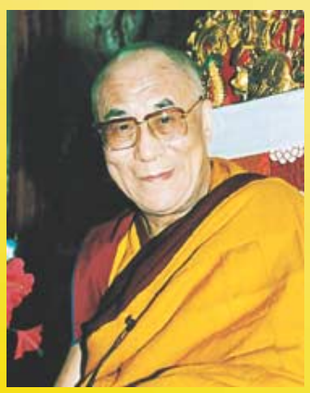
은사스님의 상좌들을 헤아려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공부하고 해군법사로 활동 중인 소령 '정해', 일본 용곡대 대학원 석사와 중국 유학을 한 '정묘', 동경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친 '정원', 대만 중화불학연구소 석사 '정도',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인', 원광대 불교학석사 '정행', 동국대 석 박사 과정의 '정각', 영국 런던대학 동양학연구소 석사 '정여', 박사과정 '정덕', 동대 대학원 '정화' 스님 등이 있다. 공부하는 상좌들이 특히 많은 것은 다 스님이 지극 정성을 기울인 결과라고 본다.

은사스님은 현재 라오스 젊은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즐거움으로 지내신다.

로담 스님은 해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 봉은사 총무와 중앙승가대학 교학국장 · 총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와 현대불교문인협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5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장소 : 인도 티벳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 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 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8년간 공부한 청전스님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게시판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서울 진관외동에 위치한 삼천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새싹 불자를 위해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여름불교학교를 연다. 프로그램은 찬불동요 배우기, 레크리에이션, 다도 등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모집. (02)359-7766

백제 마애불 답사 국립중앙박물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제 마애불을 찾아서' 답사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7월 26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7월 16일까지. (041)833-8563

발마사지 자원봉사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마사지 및 스포츠마사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일자는 주1회며 유경험자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가능. (02)804-4058

청학동 예절학교 지리산 몽양당 청학동 예절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몽양당 청학동 예절학교 행사'를 연다. 행사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되며 각 5박 6일 동안 행사에 참여한다. (02)775-0981

청소년 영어캠프 EBS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영어 캠프 2005'를 개최한다. 제주와 강원캠프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 되며, 접수는 선착순 200명. (02)333-4777

20면 상식 퍼즐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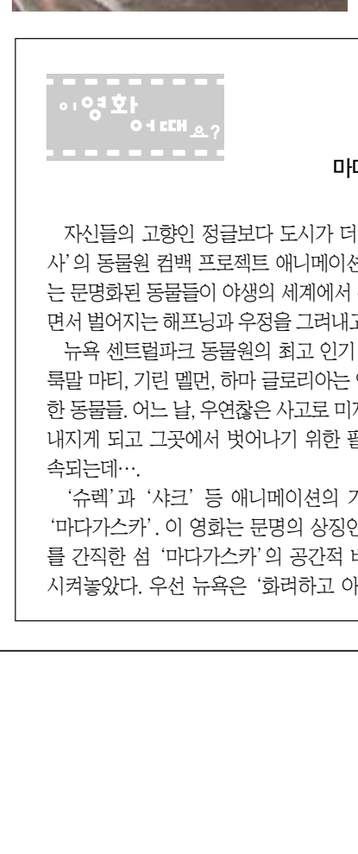
옴	니	버	스		낙	수
마			키			주
니				청	남	대
반	딧	불	이			토
메			열	녀	문	
훔		한	치			냉
			열	하	일	기



장맛 보고 자연 즐기고

토종 장맛도 보고 전원의 운치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만들어 봄은 어떨까. 주5일 근무제 확산을 맞아 간장과 된장을 구입하며 주변관광도 즐길 수 있는 '장 익는 마을 나들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직접 현장에서 영양 만점 '우리 콩'으로 만들어지는 전통 장을 구입할 수 있고 동시에 주변의 자연과 문화유적지, 먹거리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자.

장(醬)이 있는 테마 여행지 베스트 5



● 오색온천으로 더 유명한 한계령 골짜기 마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오색약수골 전통장'** = 여기 장맛은 독특한 향과 개운한 뒷맛을 자랑하는 송이와 표고버섯을 넣어 미식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오색리에는 설악산 등산로 및 철분이 함유된 오색약수터와 온천도 있어 가족 건강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대관령에 위치한 보현사에 잠시 들러 참배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033)672-5089

● 대한민국 '인삼 1번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인삼골 된장'** = 깊은 장맛의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물맛이다. 인삼골 장맛의 비밀은 금강 상류지역의 지하 140m 암반수와 참나무숯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독특한 제조법에 있다. 현내리 주변의 서대산이나 대둔산, 진악산 등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여성들이 등반하기에 적당하다. (041)753-0925

● **'서경들장'**으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이곳은 수도권지역 주부들의 하루 나들이가 가능한 코스로 전통방식으로 장 담그기로 유명하다. 특히 서경리는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됐던 품질 좋은 쌀로 정평이 자자하다. 또 세계도자기비엔날레와 도예촌을 방문해 직접 도자기 제작과정을 실습한 뒤 주변 온천에서 피로를 풀 수 있어 당일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031)632-5678

● 한방과 된장의 절묘한 조화,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구기자장'**은 전체 원료의 8%를 구기자 가루에 재워 새콤한 맛이 특징이다. 황토로 만든 숨 쉬는 용기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숙성시킨 탓에 숙취해소와 시력보호, 혈압조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61)543-0031



전남 보성군 '된장마을' 전경.

● **전남 보성군** 웅치면 중산리 **'된장마을'** = 이 마을은 녹차를 넣은 고추장과 된장 · 간장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매실고추장'과 '콩쪽이 씹히는 장'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지리산 황토 죽염장' 등 장 구입을 겸할 수 있는 나들이 코스가 회색빛 공기에 숨막혀하는 도시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농촌진흥청 조은희 생활지도사는 "패스트푸드보다 몸에도 좋고 영양도 많은 전통 먹거리인 우리의 장맛을 선보이는 곳이 전국에 많이 있다"며 "장 나들이 코스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전원을 즐길 수 있는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적극 추천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이영화 어떠세요?

뉴요커 동물 4총사 좌충우돌 야생체험

마다가스카 감독: 톰 맥그래츠 목소리: 벤 스틸러, 크리스 록 상영시간: 110분 등급: 연소자 관람가

자신들의 고향인 정글보다 도시가 더 좋은 '뉴요커 동물 4총사'의 동물원 컴백 프로젝트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 이 영화는 문명화된 동물들이 야생의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우정을 그려내고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의 최고 인기 스타인 사자 알렉스, 얼룩말 마티, 기린 멜먼, 하마 글로리아는 인간들의 보살핌에 익숙한 동물들. 어느 날, 우연찮은 사고로 미지의 섬 마다가스카로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의 노력과 모험은 계속되는데….

'슈렉'과 '샤크' 등 애니메이션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마다가스카'. 이 영화는 문명의 상징인 '뉴욕'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마다가스카'의 공간적 비주얼을 극명하게 대비시켜놓았다. 우선 뉴욕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컨셉으로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표현들이 많다. 반면 '마다가스카'는 '천연의 야생세계'를 담아내기 위해 곡선과 방사형 배열의 이미지와 풍부한 원색 컬러 등을 사용했다.



정글에서 태어났지만 사육사의 거친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여진 동물원 재롱둥이들의 요절복통 모험담을 담은 '마다가스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길들여진다'는 관습과 환경에 구속받는 인간의 삶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노병철 기자

전시

평화와 상생 바람 분다

지묵 스님 부채선화展 이달말까지



지묵 스님의 부채선화 중 '달마도'(왼쪽)와 '새우도'.

평화와 상생의 바람을 일으켜 항상 시원한 세상을 만드는 부채가 있다면? 보성 대원사 주지 지묵 스님은 서울 종로구 계동 정신세계원에서 부채선화전시회를 7월 31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부채는 총 50여점이며 관람객들이 직접 부채에 선화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과 부채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 일상의 깨우침을 되새기는 법문도 이어진다.

다양한 소재의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새우'. 흔히 불가(佛家)에서 새우는 '은거하는 바다의 늙은이'라고도 불린다. 지묵 스님은 "숨을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새우는 평생 작은 새우로 지내게 된다"며 "마찬가지로 수행자도 자기에게 맞는 수행길을 찾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시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지묵 스님은 최근 평택에 아란야 선원을 열고 참선수행 지도를 하고 있다. 011-9933-2311

현대미술에 투영된 불교

덕수궁 미술관 '20세기로의 여행' 김아타 · 노상균의 불교 작품 눈길



노상균 作 '숭배자를 위하여'.

20세기 현대미술사 흐름을 살펴보는 가운데 불교를 테마로 작업하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로의 여행'(~8월 15일까지)에는 피카소에서 백남준까지 아우르는 20세기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120여 점과 함께 사진작가 김아타, 현대 미술 작가 노상균의 작품이 출품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김아타의 경우, 법당 안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박스 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참선하는 장면을 촬영한 '뮤지엄 프로젝트'로 유명한 작가. 그는 이번 전시에서 열반을 꿈꾸는 몸을 담은 또다른 뮤지엄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시퀸(sequin, 여성용 의복 등에 쓰이는 장식용 둥근 금속조각)으로 불두와 불상 조각의 표면을 수놓은 노상균씨의 '숭배자를 위하여'도 눈길을 끈다. (02)2022-0600

강신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1일 06:00 불교강좌	11일 05:50 한국의 명찰
12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12일 11:20 한국의 명찰
13일 11:05 아름다운 초대	13일 15:50 열린마당
14일 07:05 아침저널	14일 11:20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
15일 09:05 행복한 미소	15일 16:50 고향사랑 건강사랑
16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16일 07:45 불교TV메디컬
17일 10:00 라디오 법회	17일 15:20 산중대담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진시몬의 낭만라디오(7월 16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진시몬이 준비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7월 14일 11:20~12:20)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기능성 명상방석

방석은 장식품이 아니라 과학이다. '기능성 명상방석'은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한 압력분산으로 척추교정 효과는 물론 항균 · 방취 · 방습 기능도 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과 척추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격은 3만 8천원.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부처님 (상)

김효학 (전북 익산시 신룡동)

고등학교시절 자취를 할 때였다. 산과 가까이에 있는 숙소에는 새벽마다 어김없이 맑은 풍경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내가 느낀 불교의 시작이었다.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하루는 시간을 내어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사찰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주문이 무엇이고 대웅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절에 찾아든 나를 불량한 손님으로 나 여기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처음 찾는 사찰이었지만 나의 마음은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했다.

그 이후로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마음이 갑갑할 때는 그 사찰을 찾았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사찰은 가끔씩 들러 마음을 달래곤 하는 나만의 장소가 됐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시는 노보살님으로부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웅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풍경소리를 들으며, 사찰의 고즈넉함에 긴장과 불안을 놓으며 나는 입시를 치렀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나는 재수를 결심하고 상경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과의 차이 때문인지 적응이 쉽지 않았다. 입시공부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로 오게 됐지만, 막상 나에게 닥친 환경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신까지 나약해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고나 할까, 눈은 점점 높아지는데 내 여건은 그것과 점점 멀어져 갔다. 욕심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고, 불안은 그와 함께 나날이 깊어져 갔다.

그렇게 한해가 흘렀을까. 이듬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타지에서 욕심과 불안감에 안절부절할 때에도 그 존재감만으로 마음을 넉넉하게 했던 아버지. 핏줄의 죽음은 상상 이상이었다. 우리 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빨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순도순 지내는 일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어려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본 기억이 없었기에 내 바람은 더 컸다. 이마저도 나의 욕심이었다고 한단 말인가. 세상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아버지 죽음에 마음 달래려 불교 찾아
예불·독경 가슴으로 접하며 환희심 느껴
청년회 활동하며 격주로 봉사활동 참가

그렇게 타지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보낸 날이 얼마였던가. 나는 고인을 가슴에 담으며 생과 사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결국은 생사의 얽힌 사슬을 푸는 종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나는 불교와 다시 마주하게 됐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 속에서 불교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휴일 관악산에 있는 연주암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연주암에는 특정한 불교모임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곳의 어떤 분께서 여기는 산이 높아서 일반 불자들의 모임은 없으니 대신 시내에 봉은사라는 사찰이 있다며 그곳으로 가 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곳을 찾아 청년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대불련에 가입해야 할 나이였으나, 직업이 없는 일명 '백수'라는 신분에 열등감을 느껴서인지 청년회가 좋을 듯 싶었다.

토요일 오후 6시. 청년회 모임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은 조급해져만 갔다. 지하철 삼성역에서 내려 봉은사로 가는 몇 분 동안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충동적인 유혹의 소리가 내면에 울려퍼졌고, 또 한쪽에서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희망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퍽도 많이 갈등을 했다.

그러나 만약 그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너무 궁금한 부분이다.

법회시간인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선남선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러 법우들과 예불과 법회를 처음으로 함께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절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었다. 다들 너무나 당연하게 의식을 치러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자니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넓은 법당 앞쪽에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목탁소리에 일제히 절을 하고 또 일어서는 것을 반복했다. 그날 예불문을 어떻게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예불을 모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나를 맞추느라 한참을 헤맸다.

<천수경> 독송 때는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독경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쫓느라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소리를 쫓아 그 소리를 입과 귀에 가슴에 담기 시작하니 가슴에서 묘한 감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리도 아름다운 소리를 왜 이제야 알게 된걸까. 백지의 머리와 가슴으로 접한 경전은 내 가슴에 환희심을 심었다. 지금 봉은사 청년회의 첫 법회를 생각하면 그 때의 첫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곤 한다.

나는 청년회 활동을 하며 봉사도 배웠다. 청년회 활동 중에 격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부도에 있는 둥지 청소년의 집에 갔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부모와 헤어져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 그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함께 청소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농구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바닷가에서 조개도 잡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득문득 떠올라 마음은 더욱 애틋해졌다.

그렇게 만난지 오래된 사람처럼 가까워져서는, 헤어질 땐 그곳에 남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올 때는 게임프로그램도 사가지고 오겠다고 정순창이란 어린 법우(지금쯤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것이다)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린 것에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계속)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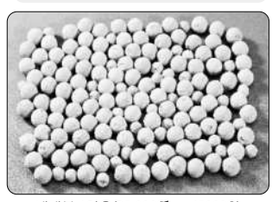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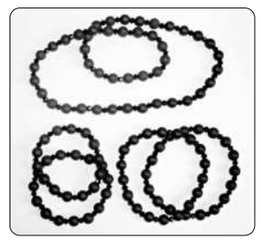
배개볼 1인용 ~~7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영도 큰스님



퇴마승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 의 현 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해 원 사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나만의 차로 간편하게

〈세가지 색 차…〉 펴낸 권혁란씨에게 듣는 '차 즐기는 법'

"차(茶)라고 하면 격식을 차려서 마시는 것, 가까이 하기 힘든 것이라는 선입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는 특별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마셔도 삶에 여유와 행복을 줍니다."

최근 〈세 가지 색 차 이야기〉를 펴낸 권혁란씨(하우스레서피 Tea & Cake 대표). 1970년대 MBC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권씨는 그곳에서 서양의 다양한 차 문화를 접하며 차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티샵(tea shop)'을 운영하며 '차 마시는 즐거움'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권씨에게 '나만의 차 즐기는 법'을 들어본다.

여수령 기자



#허브나 꽃차로 첫걸음을

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스민차나 장미차 등 향이 있는 차를 마셔본다. 향을 즐기다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차에 대한 흥미도 일으킬 수 있다. 녹차와 홍차, 우롱차 등에 허브차 혹은 오렌지나 레몬 껍질을 잘게 썰어 건조한 것을 섞어 마셔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국 홍차에는 라벤더나 캐모마일이, 인도 다즐링 홍차에는 장미꽃잎이 잘 어울린다. 요즘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아이스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뜨거운 물로 만들기**: 2컵 분량의 끓는 물에 2큰술의 홍차를 넣은 뒤 5분간 우린다. 잎을 빼낸 뒤 유리잔에 담고 2컵 분량의 찬물을 붓는다.

▷**찬물로 만들기**: 주전자에 2큰술의 홍차를 넣고 찬물 4컵을 부어 젓는다.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 넣어 쟀다가 잎을 건져내고 다시 차게 보관한 다음 잔에 따라 얼음을 넣어 낸다.

▷**선티(sun tea) 만들기**: 2큰술의 홍차와 4컵의 찬물을 유리그릇에 담아 직사광선에 내놓는다. 3~4시간이 지난 뒤 잎을 걸러내고 얼음을 담은 컵에 부어 마신다.

홍차 다양하게 즐기기

홍차는 19세기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차다. 티백이나 캔 음료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며, 찻잎을 배합하는 방식이나 찻물에 넣는 재료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즐기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 **레몬**: 홍차에 레몬을 넣으면 색이 약간 옅어지지만 떫은맛이 감소해 맛은 더욱 깔끔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레몬을 너무 오래 담가두면 오히려 떫은맛이 강해진다.

▷**설탕이나 시럽**: 단맛을 원할 때는 설탕을, 달콤한 향을 더하고 싶다면 메이플 시럽이나 바닐라향 시럽을 넣으면 된다.

▷**우유**: 우유는 홍차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며 고소함을 더해준다. 밀크티를 만들 때 쓰이는 우유는 저온살균 우유가 적합하다. 실온에 두었던 우유나 전자렌지에 데운 우유를 사용하면 홍차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

▷**잼, 마멀레이드**: 단맛에 과일의 풍미까지 느낄 수 있다. 홍차에 잼 넣은 것을 흔히 '러시안티'라 부르는데, 러시아에서는 진하게 우린 홍차에 잼과 보드카 등을 넣어 마신다.



사진제공=하우스레서피 Tea&Cake

이럴 땐 이렇게!

▷ **차 보관하기**

차를 잘 보관하려면 밀봉된 주석이나 불투명한 세라믹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많은 양의 차를 구입했다면, 가끔 덜어낼 수 있는 큰 용기와 매일 사용하는 작은 보관 용기에 나누어 담는다. 햇빛이 들지 않는 건조한 곳에 두며, 강한 향이 나는 차는 다른 차와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선반에서는 1년 6개월~2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처음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는 4~6개월 내에 마시는 것이 좋다.

▷ **찻주전자 보관하기**

찻주전자는 사용 후 잘 헹구어 엎어놓고 물기를 빼 준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설탕을 담거나 뚜껑을 열어둔다. 차향이 밴 찻주전자는 치약이나 소다를 수건이나 부드러운 수세미에 조금 묻혀 닦아 준다. 주전자 주둥이는 가느다란 나무젓가락 등에 천을 말아 고정시킨 후 닦아 준다.



길성 부녀(父女) 도예전

도예가 길성 부녀(父女)가 함께 여는 대규모 전시회 '정호대전(井戶大展)'이 7월 9~16일 대구 봉산문화회관 3층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길성씨가 2000년 발견한 이도 흙으로 만든 이도다완과 이라

보다완, 도도야다완을 비롯해 길기정씨의 자색다기세트, 자색다관 등이 전시된다. 길씨가 이도다완을 대규모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열린 개막식에는 국회의원 이계진씨와 원로 아나운서 이규황씨,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흡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시 기간 동안에는 매일 대구지역의 차회들의 행다시연이 마련된다. (053)426-1515

조선시대 ⑪



나라의 제도가 정비되고 유교적 학문이 사회를 이끌어 안정되니 자연스럽게 풍류적 기풍이 일기 시작했다. 정철과 윤선도의 등장은 바로 그 좋은 예로, 이들은 오랜 적거생활 속에서도 차를 즐겼다. 이런 기풍으로 한편으로 외방(外防)에 힘쓰지 못하여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환란을 겪게 된다. 전란으로 인해 남녘의 차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많은 다농들이 생산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

더구나 왜구들이 자기장을 강제로 납치하고 수많은 다기들을 훔쳐갔다. 이런 상황은 선비다풍의 퇴조를 가져왔고, 사찰의 차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도 선가(禪家)에서는 조금씩 자급하여 쉬지 않고 차문화를 이어갔으며 이름 있는 다승이 출현한다.

조선-전란으로 선비다풍 퇴조, 다승 출현
中-명인 명품 계속 배출 日-황금다실 조성

중국은 차의 주산지인 장강(長江) 이남의 강소, 복건, 광동, 광서 등을 중심으로 명인 명품들이 계속 배출됐고, 다서도 꾸준히 저술됐다.

일본은 천리휴의 활동이 왕성했으나 풍신수길의 차에 대한 태도를 검박을 바탕으로 하는 차인들과 달라 황금다실을 짓는 등 사치스럽게 변했다.

① 정철(1536~1593): 어려서 궁중에 출입할 때부터 차를 마셔 다시 몇 편이 전한다.

② 김육(1580~1658): 〈유원총보(類苑叢寶)〉에 차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③ 취미대사(1590~1668): 부휴와 벽암대사에게 수학한 선학(禪學)의 대가로, 다시를 남겼다.

④ 윤선도(1587~1671): 긴 유배생활 속에서도 호연정(浩然亭)에서 차를 마시는 풍류를 누린 차인이다.

⑤ 김우옹(1540~1603): 퇴계 문인으로, 다시를 남겼다.

⑥ 중관대사: 임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했고 차를 즐겨 다시를 지었다.

⑦ 백곡대사: 차를 즐겨 마셨으며 다시가 여럿 전한다.

⑧ 웅명우: 명대 차인으로 〈나개다기〉를 지었다.

주고: 명대 학자로 도공과 도토에 관한 〈양선명호계〉를 남겼다.

⑨ 황일정이 쓴 것으로 신·구의 차 이름 백여종 씩을 싣고 있다.

⑩ 원굉도가 찬술한 용정차와 천지차에 관한 기록이다.

⑪ 포르투갈 사람 바리냐니의 글에 일본차에 관한 설명이 전한다.

⑫ 나숙 선사가 술과 차를 의인화하여 쓴 이천여자의 글이다. 이보다 먼저 중국 왕부의 〈다주론(茶酒論)〉과 〈다주사문(茶酒四問)〉 등이 있다.

⑬ 수길의 특별한 배려로 크게 성장했다.

⑭ 임란 중 우리 문화재 강탈과 도공 납치는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이었다. 그 후 일본의 차는 한층 발전했고, 도예도 크게 향상됐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578 다시(茶時)를 행하다(정원이 건의) 1580 정철(鄭澈)이 강원도 관찰사 부임① 김육(金堉)의 출생 ② 1584 취미(翠微) 대사 ③ 율곡의 죽음 1587 윤선도(尹善道)의 출생 ④ @ 김우옹(金宇顒)의 활동 ⑤ 1592 임진왜란 발발 관례 홀기에 철다(啜茶)가 나옴 1593 중관(中觀) 대사 ⑥ 1597 정유재란 1598 이순신의 전사 백곡(白谷) 대사 ⑦	명대	@ 웅명우(熊明遇), 주고기(周高起) ⑧ 1580 사시육상록(고염) 1582 민대기(閩大記) 왕음산~무이차를 높이 평가 1591 〈사물감주(事物紺珠)〉 ⑨ 1595 다록 1597 〈서호기술(西湖記述)〉 ⑩ 장대의 출생	남북조	1578 리휴가 수길의 다두(茶頭)가 됨 1579 일본인의 음다 ⑪ 일본순찰기 ⑫ 1580 수길의 '황금다실' 1586 수길이 상림가(上林家) 방문 ⑬ 1587 수길의 집권 1589 차생산 농가 부역 면제 @ 도공납치, 도가지 강탈 ⑭ @ 우치차의 번성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진실로 감사한 줄 알고 진실로 믿을 줄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 저는 1991년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 이십 며칠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은 평범 속에 비범이라고, 저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같이. 그런데 제일 처음 초기에는 마귀 잡신들이 제 머릿속에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마귀 잡신들도 가끔씩 나오고 성령 분들도 나오고 계십니다. 어떤 치유 방법이 없는지 해서 오늘 찾아뵈었습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를 당신이 마귀라고 그런다면 당신도 마귀지?

▲질문자3: 저도 마귑니다.

▲스님: 왜 마귀라고 생각을 하죠?

▲질문자3: 제가 마귀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일 처음 잡신들 마귀들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여자 생각나게 만들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저한테 충고할 거는 충고를 하고….

▲스님: 그래서 지금 설법한 그 자체가요,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자꾸 그렇게 충동질 치니까 그 가끔씩은 그럽니다. 그리고 작은아이는 선원에 오기 전에 병원에서 두 번 수술을 하였습니다. 심장병인데 지금은 병원에서 수술도 안되고 폐동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스님, 한마음 공부 열심히 하게끔 한마음 내 주세요.

▲스님: 어디서 사십니까?

▲질문자4: 부산에서 삽니다.

▲스님: 부산 혜도 스님을 찾아뵙고 열심히 마음공부 하세요.

▲질문자4: 감사합니다, 큰스님!

▲스님: 그러셔야 이어 나가죠. (대중 박수)

질문자5: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신도입니다.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보통 생활하는 가운데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상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 생각들이 너무 꾸역꾸역 나오는 바람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찾아보지만 그냥 입에서 그 이름만 맴돌 뿐 마음이 잘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게 되지만, 그게 분별심이라든가 저의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질투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임을 알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제가 놓는 작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아까도 얘기했죠. 각색 각종의 용도에 따라서 자꾸 나오는 모든 것을 마음의 선장 주인공에다가 다 일임하고 맡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꾸 굴리면, 안되는 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되는 거를 안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모든 거를 주인공에 맡기세요. 모든 것을 진짜로 믿고 맡기고 침착하게 지켜보세요. 이름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구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 없는 마음의 선장, 바로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질문자5: 알겠습니다.

▲질문자6: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첫아이가 지금 스물일곱인데요, 애기를 낳고 한 30일 지나서 목욕을 하러 갔는데 옷을 벗으니까 막 살갗이 아프고 뭐가 찌르는 것 같고 이렇데요. 그래서 놀라서 집에 왔는데 그 뒤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가슴이 아파 숨을 못 쉬고 열기가 확 올라오면서 말도 안 나오고 머리도 멍멍합니다. 살이 쪘으니까 남들은 꾀병이라고 하지만 오래도록 잠을 못 자고 약을 먹고 이럽니다.

▲스님: 그 믿음이 있으면요…, 부산지원에 나가세요?

▲질문자6: 인제 나간 지 얼마 안 됩니다.

▲스님: 나가시면서요, '선장, 너만이 그거를 다 낫게 할 수 있어.'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6: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잠을 오래도록 못 자고 그러니까 머리가 멍멍해지고 자려고 하면….

▲스님: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면서 작용하는 그 선장한테 진짜로 맡기세요. 주인공 선장한테 꼭 진짜로 믿고 맡기세요.

▲질문자7: 저는 대구지원에서 왔습니다. 저의 아들 콩팥 때문에 저번 달에 친견했습니다. 왔다 간 뒤로 오줌을 낫게 눠요. 그런데 종합 진찰 해 보니까 간이 좀 안 좋답니다. 오줌을 전에는 병원에서 50cc 이렇게 눴는데 지금은 300cc까지 눌 수 있고요. 제가 스님 법문집을 볼 때부터 조금 나아져서 오줌을 지금은 많이 눕니다.

▲스님: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요, 본인더러 관하라고 그러세요.

▲질문자7: 본인이 안 합니다. 자기는 안 낫는 병이라고 포기하고요.

▲스님: 하여튼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으라고 그러세요.

▲질문자8: 저는요, 수술을 아홉 번씩 하고 그래서 몸을 지금 쓰기를 못해 가지고 불편합니다. 스님, 마음 좀 내 주십시오.

▲스님: 어디서 사십니까?

▲질문자8: 서울 봉천동에서 살아요. 저는 여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스님: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시고 열심히 나와 보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일이 왜 안됩니까? 자기한테 다 맡기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죠. 열심히들 하셔서 그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질문자9: 제가 드릴 말씀은 무척 많지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질까 봐서 인사만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스님: 하고 싶은 대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진실하고 그런 거죠.

▲질문자10: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한 중생입니다. 한 달 전쯤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목 밑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했습니다만 상처 부위가 쾌유되지 않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상처가 치유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마음 내 주십시오.

▲스님: 알았습니다.

▲질문자10: 스님 가르침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네. 정진 열심히 하시고요, 자기 마음의 선장을 뿌리라고도 하고 주인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바로 모든 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그 마음의 선장한테 다스림을 받아서 다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편안하게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11: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선원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관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스님을 뵙고 말씀드립니다.

▲스님: 뭘요?

▲질문자11: 제가 몸이 너무 아파 가지고요.

▲스님: 어디가요?

▲질문자11: 아픈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스님: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댔죠? 부산에서 오셨고요. 그러니까 부산지원에 자주 나가시고 관하시는 거 알면 답박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12: 저는 대구에서 삽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4, 5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전국 종합 병원 이곳저곳 여러 곳 스님, 제 가정에 평화가 오도록 한마음 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스님께서 마음만 내 주시길 믿겠습니다.

▲스님: 당신이 생각하는 마음은 당신이 너무 잘 아시겠죠. (삼 배 하는 다음 질문자에게) 한 번만 하세요.

▲질문자15: 스님께서 고행을 많이 하셔서 여러 중생을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바깥양반이 천식으로다가 20년 동안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두 남매가 한마음선원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 보자고 해서 애들하고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숨이 가빠서 단 10분도 앉지를 못하는 양반이라 두 시간을 거기 앉아서 배겨 낼까 걱정하고 왔는데, 그 두 시간 법문을 앉아서 다 듣고 그거를 다 이겨 냈어요. 그리고 스님께 절을 올리면서 "저는 숨이 가빠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을 하세요."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서는 2년 동안 병원을 안 가고 약만 타다가 먹고 그걸 이겨 내고 살다가, 그렇게 몸도 좋아져서 올 정월 초닷샛날 떠났어요.

그렇게 숨이 가쁘고 애를 쓰던 양반이 갈 적에는 저녁을 다 차려서, 외국서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자식들이 다 왔는데, 부엌에 나와서 이게 뭐냐고 그래요.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기에 "애들 과자요." 하니까 "과자여!" 그러고는 그걸 보고서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하고 앉더니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큰스님 가피력으로다가 갈 적에도 애를 안 쓰고 가고 그랬어도 참 저는 이렇게 갑자기 가서 너무나 당황하고 그 아픈 가슴을 어디다가 풀 길이 없었는데, 한마음선원에 와서 그 아픈 가슴이 삭여지는 겁니다. 저는 큰스님을 뵐 적마다 그렇게 고행을 하셔서 이렇게 만 중생을 살려 주시는 데 대해 그 감격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저의 을미생 딸이 여태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스님 말씀이 본인한테 말기라고 하셔서 여태까지 이렇게 말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이렇게 만 중생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옵나이다.

▲스님: 뭐, 짝도 이제 생기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16: 저희가 미련해서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3년 전에 당뇨로 쓰러졌

☞30면으로 계속

모든 것을 진짜로 믿고 맡기고
침착하게 지켜보세요!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이왕 맡기려면 그냥 담뿍 맡기세요!

☞29면에서 계속

는데 병원에 가서 목숨은 건졌으나 뇌사 상태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3년 동안 집에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다시 심장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님! 한마음 내 주십시오.

▲스님: 허,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양면이 다 어려운 건데 어려운 일을, 모든 것을 대치해 나가려면 그저 당신 마음의 선장 주인공한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 듣기에는 이렇게 걱정 없이 그냥 선선히 대답한다고 하겠지만 이 선선히 나오는 대답 하나 하기가 상당히…. 허, 그 도리를 아셔야 할 겁니다.

▲질문자17: 저는 부산에서 온 신도입니다. 저의 남편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출입을 안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 마음공부를 알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남편은 이제 마음이 밝아져서 바깥으로 출입도 자주 하고 찾아뵐 사람 찾아뵙고, 이제 저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 올해 진급도 됐고요, 또 가을에 장가도 가게 됩니다.

▲스님: 어이구, 소원 이루셨군요.

▲질문자17: 스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외려 감사합니다. 하하하….

▲질문자17: 그런데 저의 남편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제가 죽으려고 죽으려고 해도 잘 안되더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죽었습니다. 인제는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가게 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딸아이가 스물일곱 살 먹었는데 어쩐지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불안해하고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옷을 벗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때를 어서어서 벗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저의 남편이 어느 날 울면서 "우리 조상님들 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천도재도 올렸습니다.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예.

▲질문자18: 스님, 반갑습니다. 한마음 도리를 가르쳐 주신 스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친자매처럼 사랑하는 아우가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지금 소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구리에다가 호스를 끼워서 소변을 빼내고 양팔에는 주사를 맞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음 공부를 해 보라고 책도 사 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음을 내서 같이 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힘이 좀 부족한지 빨리 회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스님께서 한마음 내 주시면 빨리 완쾌되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저는 병원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같아선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고장 난 거를 안에서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으로 믿음을 갖고 가야 할 텐데, 거죽으로 내 몸뚱이를 고치려고 방사선을 쬔다 하면 십분지칠은, 즉 말하자면 방사선으로 인해서 콩팥이나 방광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혈소판도 녹아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딴 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병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몸을 그냥 두고서 그 병을 정신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지요. 이왕 죽을 것,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두고 곱게 죽지 왜 그렇게 고생 고생을 하면서 죽어 가야 됩니까? 난 참,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딱할 때가 많습니다.

안으로 믿음을 가져서 통신이 돼서 안의 생명체들이 작용을 해 주게 해야 그게 얼른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암을 앓고 있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가끔 그러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응? 네 몸뚱이에서 나온 거라면 네 몸뚱이에서 고쳐야지." 하면서 관하는 도리를 일러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어이구, 피가 멎고 뭐가 어떻고 또 괜찮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병원에 궁금해서 가본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모두 그냥 살고, 그저 살게 되면 사는 거고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아까워서 그냥 야단입니까? 헌 옷 벗어 버리고 새 옷 입으면 더 좋지요. 허허허….

▲질문자18: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음 공부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3, 6, 9라는 숫자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도리인가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스님에게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 그거는 숫자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공했고 삼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일심으로서, 그 육은 진짜로 믿고 그래야 그 과거삼 현재삼 미래삼, 구정토를 이룰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숫자 없는 숫자니까 그대로 모든 게 공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우리가 마음도 초월됐고 몸도 공했고, 모두가 이렇게 촐나촐나 지금 움죽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그러겠죠.

▲질문자19: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먼 데서 이야기를 듣고 모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괴산군 속면 용화솔리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안양 선원에 다니는 딸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스님을 한번 찾아뵈어라 해서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사느라고 내 몸은 생각 못하고 이렇게 살아나오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냥 한번 고쳐 보려고 뜸을 많이 떴습니다. 그래도 안되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모든 데가, 삭신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큰스님한테 아주 몸을 맡겨 볼까 싶은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 주십시오.

▲스님: 이왕 맡기려면 그냥 담뿍 맡기세요, 그냥. 몸뚱이를 다 그냥 팽개치세요.

▲질문자19: 감사합니다.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면서 작용하는 그 선장한테 진짜로 맡기세요

▲질문자20: 스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스님을 뵙기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뵐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 얼굴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만큼은 정말 옳은 사람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 무슨 잘못으로 인한 건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제일가는 명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고, 선생님들께서는 특수학교에 보내지 그러냐고 말씀들 하시고 그러거든요. 달리 아무런 이상은 없는데 굉장히 산만하고 안정을 못하고 고집대로 다 하고, 아무튼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스님. 정말 다른 건,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밥은 자기가 해서 떠먹어야지.' 하는 그 말씀은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런데 말이요, 어디서 왔소?

▲질문자20: 부산지원에서 왔습니다.

▲스님: 그럼 혜도 스님 잘 알겠군.

▲질문자20: 혜도 스님한테 제가 자라 온 모든 얘기를 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거든요.

▲스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많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댁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는 정신 공부, 즉 마음공부를 닦는데 역점을 둔 거니까 하여튼 거기다 맡기고 그렇게 가면 재도 얌전해질 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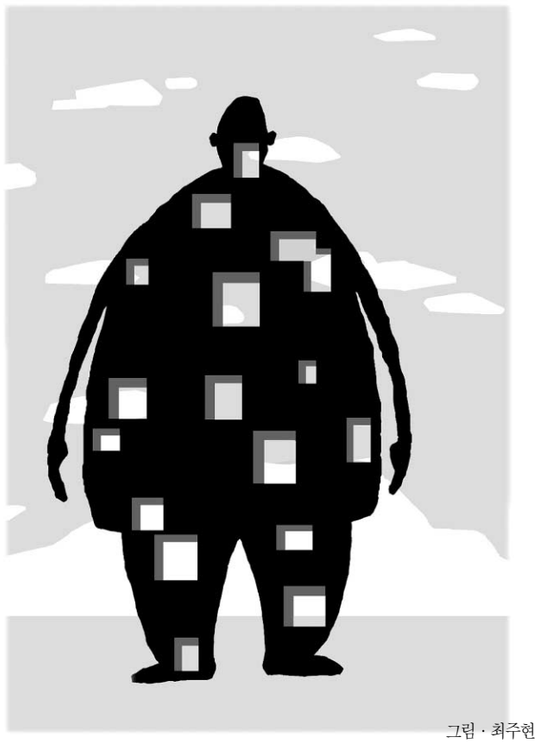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0: 스님,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21: 저는 서울 상계동에서 왔습니다. 우선 스님을 뵙게 돼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는 신도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구한테서 천수경 책자를 받았는데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천수경 테이프도 하나 사 가지고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항상 불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제 둘째 여아가 지금 열한 살인데 생후 6개월부터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상태라 스님께서 한마음 내려주시면 앞으로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그런데요, 빗물을 받으려 해도 그릇을 만들어야 빗물을 받죠? 그죠?

▲질문자21: 예, 그렇습니다.

▲스님: 예,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면요, 저절로 그 그릇에 담길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그릇을 만드세요. 즉 절에 나오면서 관하는 법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애 한테도 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요.

▲질문자21: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 어머니 합창단과 청년회 합창단의 노래공양이 있겠습니다.

▲스님: 그럼, 여러분!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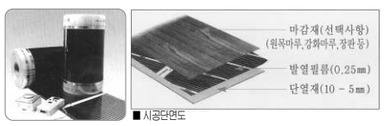
▲대중: 예!

▲스님: 하하하! 더우신데 우리 쾌활하게 서로 한바탕 웃고 헤어집시다.

▲대중: 예! (대중 박수)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82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8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리규사 직수입품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韓·中 秘方針法
● 음양원리 침법 : 우리 인체의 365혈을 단 7혈만 응용하는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던지 침 1-3개만 꽂으면 1분 이내로 효과를 볼 수 있고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비한 가정 의학이다.
● 사상체질 침법 : 사상체질을 정확히 감정하는 법과 체질에 맞는 음식 궁합과 한약재를 처방하고 간단한 체질공식 침법으로 만병을 고친다.
● 평형 침법 : 중국 인민 장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 되어온 1침법으로 사병들을 치료하였던 것을 왕문원교수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 침법.
● 전통활락법 : 220V 전기를 직접 사람이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바로 최고의 기공력을 쓸 수 있다. 사기를 받지 않고 손기가 없다. 전립선염이 낫고 성능력이 회복된다. 마비된 신경이 살아난다. 독소가 배출되고 정상체중으로 회복된다. 디스크 수술 2번에도 사라지지 않던 통증이 사라진다.
황제내경 맥진법과 복진법으로 인체에 모든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암도인 침법을 1시간의 강의로 원리를 통달 할 수 있게 강의하여 드림)
■ 강의시간 : 8월 1일 오후 3시부터 4일까지(4일간)
주 말 반 : 8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7일, 13, 14, 15일까지
■ 숙식제공 4일간 실무교육 : 보시금 1백50만원
(예약전화 외 사절 / 선착순 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번지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041)855-7114, 016-663-2159

통증·근육통 완화
"관절 · 허리통증 · 어깨결림 각종통증"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먹고 2.바르고 3.찜질하고
123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적외선조사기
통증, 근육통완화
1·2·3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공동개발
(주)일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

적성 파악하면 미래가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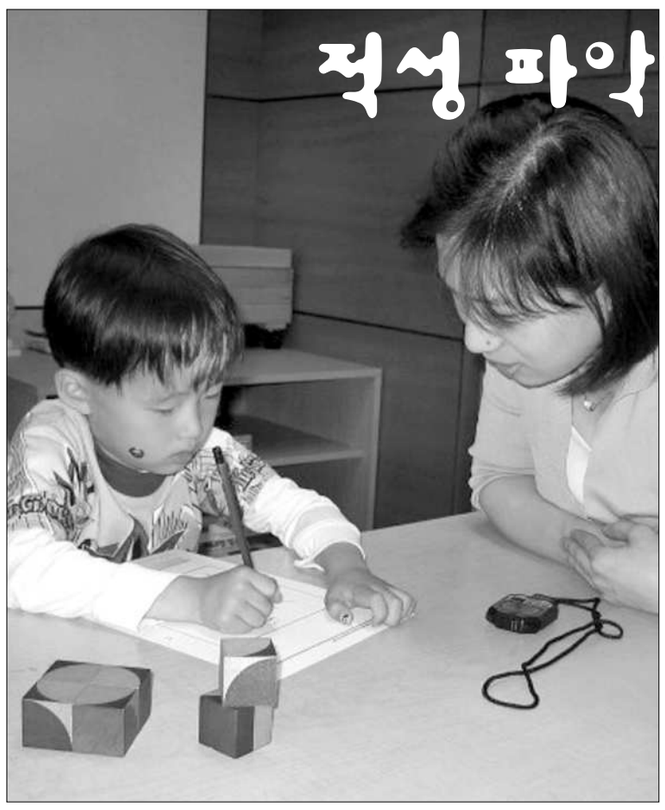
아이들 맞춤교육 이렇게

음악 미술 수학 영어 뭐든지 잘하는 아이를 만들겠다는 엄마들보다 '한 가지 재능을 개발' 시키려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춰 각종 적성검사와 심리 인성검사 심지어 DNA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성검사법이 선보이고 있다. 적성은 부모에 의해서 유전된 부분과 환경이 제공하는 경험에 의해서 발달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불교계에서도 애니어그램 등을 활용한 청소년 명상캠프가 열리고 불교상담개발원 조계사 상담대학 등에서는 MBTI 기법을 교육하고 있는 등 적성 인성검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이에 맞는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엄마들 다재능보다 '한가지 개발'에 관심
적성검사와 함께 유전 부분 파악도 중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 아이의 잠재력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사진은 한국메사연구소에서 창의성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메사연구소

창의성 검사 받을수 있는 곳

이름	사이트	연락처	대상	내용
한국메사연구소	www.nowmesa.org	(02)512-6300	40개월~13세	인지적 · 정서적 능력 측정

MBTI 검사 받을 수 있는 곳

이름	사이트	연락처	대상	내용
한국MBTI연구소	www.mbti.co.kr	(051)741-3370~2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전문교육
진로적성연구원	www.choicest.net	(02)449-6767	중학생~성인	진학 학과 직업 상담
한국심리검사연구소	www.kpti.com	(02)784-0990	중·고등학교~성인	MBTI성장프로그램, 집단검사
한국심리유형학회	www.kapt.or.kr	(011)9935-2689		

DNA 적성 검사 받을 수 있는 곳

이름	사이트	연락처	내용
DNA&TECH	www.dnantech.com	(02)511-0201	탐구성 관련 유전자 검사: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및 탐구성향 정도 파악 성격유형·진로 발달 및 진로탐색 검사
한국영재교육원	www.kant21.net	(02)874-0093	체력 중독 호기심 우울/폭력 비만 유통 당뇨/고혈압/알콜분해/치매/관절 유전자 검사
iDNA Test	www.idnatest.co.kr	1566-1377	자녀사랑 유전자 검사:체력 비만 탐구성 중독성 고지혈증 우울/폭력 천식 강직성척추염 비정상적 성장 관련 유전자 검사와 지능 인성 적성 검사 학습관련 유전자 검사:체력 탐구성 비만 중독성 천식 유전자 검사와 지능 인성 적성검사, 교육상담
씨너지씨엔씨	www.genecnc.co.kr	(02)501-7122	체력, 비만, 호기심, 우울증, 중독성 유전자 검사

적성검사 받을 수 있는 곳

이름	사이트	연락처	대상	내용
한국가이던스	www.guidance.co.kr	(02)555-1521	유아~성인	지능 성격 진로 적성 흥미 자기 개념 등 포함한 종합심리검사
슈레21/ 한국창의성인력개발원	www.shure21.co.kr	(02)6293-1212	유아~초등학생/성인	두뇌특성·EQ·성격·창의적 가족문화 진단·종합두뇌능력·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 진단·창의적 부모 진단·영재판별·창의적 인성 진단·발달특성검사

■적성검사 어디서 어떻게?

40개월~13세까지는 한국메사연구소의 창의성 검사(TCT-DP)가 적당하다. 세계영재학회 회장 클라우스 우어반 교수(독일 하노버 대학)가 20여년의 임상실험을 거쳐 개발한 TCT-DP는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창의성 검사이다. 총 6등급으로 구분해 창의적 잠재력 수준을 파악한다.

TCT-DP는 융통성 독자성 등 인지적 창의성과 의사소통능력 통합력 호기심 도전의식 유머 감수성 상상력 효율성 등 정서적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아이의 인지적 창의성과 정서적 창의성의 균형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5~7세를 대상으로 유아의 수학 기초학습능력 평가와 신체발달 시력 청력 언어발달 정서발달 사항을 진단해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을 검사하는 EMDK도 실시한다.

정우송 대표(한국메사연구소)는 "우리 연구소의 조사결과 조사 대상 부모 100명 중 1/3의 부모들이 자녀의 소질을 모르고 있었고, 안다고 대답한 2/3의 부모 가운데 절반은 자녀의 소질을 잘못 알고 있었다"며 "창의성 검사는 단순히 아이의 적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에 맞는 부모의 역할도 정리된다"고 검사의 장점을 밝혔다.

한국메사연구소는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 표준화 작업을 통한 한국규준을 산출해 우리나라 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검사임을 입증시킨바 있다.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검사를 받으면 된다. MBTI는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검사이다. 16개의 성격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등 네 가지의 분리된 선호경향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 도입됐다.

이러한 심리 적성검사만이 전부는 아니다. 최근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DNA 성격유형검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유전자타입별 분류만이 아니라 타고난 유전자가 지닌 타입을 바탕으로 인성 지능 적성 검사 등과 결합시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씨너지씨엔씨(주)는 체력 유전자를 기준으로 3가지 타입으로 나눠 보완점까지 제시하고 있다. II타입(강한 체력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은 타입)은 운동 학업 대인관계에 두각을 나타낼 타입, ID타입(평범한 체력)은 두뇌가 뛰어날 가능성이 있고, DD타입(무리한 운동이나 일을 하면 심근 경색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타입)은 소극적 내성적이나 따뜻한 마음 감성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유전자별 특성과 아이의 인성 검사 등을 결합해 개인의 타고난 소질, 능력, 건강 등을 미리 파악하는 유전자 검사로 아이의 미래를 컨설팅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영재교육원의 유체인 검사도 도움이 된다. 유체인 검사는 유전자(Gene), 체질(Reconstitution), 인성(Personality) 검사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이다. 한국영재교육원은 "유전자, 체질, 인성 검사는 각각 독립된 검사이지만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보완 검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확도가 높으며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며 유체인 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23)

병(病), 나이 장소 시간에 영향 받아

모든 질병 기본에너지의 균형 깨질때 생겨
피부 근조직 골수로 침범 오장 육부로 이동

지난 회에 이어 혼령이 쓴 병증들을 계속 살펴보겠다. 티베트의서에 나와 있는 열여덟 종의 혼령 중 열 번째는 물주전자형(形) 혼령이다. 이 영이 쓴 환자는 표정이 매우 굳어지고 걸음이 극히 느리며 음낭이 부어오른다. 열한 번째는 저주를 내리는 혼령이다. 이 영이 쓴 환자는 손에 흙이나 나무를 항상 들고 알몸으로 뛰어다니며 입버릇이 험해진다. 열두 번째는 정신을 흩뜨리는 혼령이다. 이 영이 든 환자는 항상 물을 마셔대고 투덜거리며 식욕이 사라져 버린다.

열세 번째 혼령은 좀비혼령인데, 이 영이 씌면 잠귀신이 붙은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졸고 자기 한 말은 다 진실이라고 우겨대며 오한이 멈추지 않는다. 열네 번째는 조상혼령인데, 망자의 혼령이 유족에게 씌어 마치 망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며 입은 항상 말라 있다. 빛을 못견뎌하며 항상 눈을 떠볼 생각을 않는다. 이 혼령이 쓴 환자의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은 옷을 입을 때 항상 왼쪽부터 입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혼령 외에도 교사(敎師)혼령 은자(隱者)혼령 신의(神醫)혼령 그리고 탄트라혼령들이 있다. 이들 네 혼령들은 주로 악신으로 다른 사람을 害하려 조화를 부린다. 그래서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위의 열넷 혼령들과는 달리 이들 네 혼령이 쓴 환자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18가지의 혼령들은 우리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짓 언행 그리고 사고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혼령이 쓴 환자들은 흐리멍덩 초점을 잃고 부산을 떨며 안달을 부리고 혼미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세 기본에너지의 균형이 깨져 건강을 잃게 됨으로써 발병된다고 하였다. 이제부터 질병이 우리 몸에 유입되어 이동하는 경로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병은 피부를 시작으로 피부를 따라 퍼진다. 그리고 근조직으로 파고든다. 그런 다음 혈관과 신경을 통해 몸속을 이동하다 뼈와 골수를 침범한다. 오장(五臟) 즉 심장 간장 폐장 비장 그리고 신장으로 번진 다음 위장 소장 담낭 방광 대장 생식기 육부(六腑)로 내려간다. 한편, 병은 세 기본에너지별로 별도의 경로가 있는데, 룽(병)은 뼈(骨) 귀(耳) 살갗(皮膚) 염통(心臟) 핏줄(血管) 신경 그리고 큰창자(大腸)를 통해 움직이고 때빠(병)는 피(血液) 눈(眼) 땀(汗) 간(肝) 쓸개주머니(膽囊) 그리고 작은창자(小腸)를 타고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왜껜(병)은 필수영양소 살(筋肉) 지방(脂肪) 골수(骨髓) 재생액(再生液) 코(卑) 그리고 혀(舌)를 통해 움직이며, 아래쪽으로는 배설(排尿排便) 허파(肺) 지라(脾臟) 콩팥(腎臟) 그리고 오줌보(膀胱)로 연결된다.

병이 일단 우리 몸을 침범하면 나이 장소 및 시간이라는 세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늙은 사람은 노화로 전반적인 신체에너지 즉 기력이 쇠하여 룽(病)에 잘 걸리기 쉽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것도 기력이 떨어진 탓이다. 어른(성인)들은 기력이 (最高) 정점에 달아 뜨거운 때빠(病)에 잘 걸리기 쉽다. 젊은이들이 패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것은 정점에 달한 기세 탓이다.

아이들은 전반적인 신체에너지가 예민하고 아직 발육중이라서 왜껜(病)에 취약하다. 아이들이 잠이 많은 이유도 신체에너지가 민감하고 발달 중이기 때문이다.

장소와 관련해서는 차갑고 바람 많은 지역에서 룽이 성해 쌓이고 덥고 건조한 곳에서는 때빠가 발달해 성하며 습하고 눅눅한 지역에서는 왜껜이 발달해 쌓인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룽(病)은 여름 밤 그리고 새벽에 발현한다. 그래서 룽병 약은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도록 처방을 내린다. 때빠(病)는 가을 자정 그리고 정오에 발병된다. 때문에 때빠병 약은 한낮과 한밤중에 복용하도록 처방한다. 마지막으로 봄철 해질 무렵 그리고 아침으로는 왜껜(病)의 병증이 발현되며 약은 아침저녁으로 먹도록 처방한다.

다음 회부터는 세 기본에너지 일곱 신체구성성분 그리고 세 배출기능들이 각기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떠한 징후나 병증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경우별로 상세히 살펴보겠다.

■아주대 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원경사
● 주 지 : 장일봉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 65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대한불교대승종에서 탈종을 공고함

2005년 7월 13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1Box(60포 : 20만원)~~ ↓ 1Box(60포 : 15만원)
● ~~2Box(120포 : 35만원)~~ ↓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大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먹물염색)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망,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목조건축물



서광사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자연과 하나된 '아름다운 장엄'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3) 지리산 화엄사





구층암 요사채 기둥은 다듬지 않은 모과나무이다. 근육질의 나무결과 옹이까지 여여하게 드러나 있다(왼쪽). 금정암은 비구니 암자답게 경내로 들어가는 길이 예쁘다(오른쪽).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폐자재로 된 금정암 계단… 자연에 대한 배려 엿보여

화엄사는 지리산을 마지막으로 장엄하는 한 떨기 꽃이다. 이 꽃이 노고단 자락에 피어난 것은 진흥왕 5년(544), 연기조사(緣起祖師)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화엄사의 전성시대는 조선 중기 영조 때, 선교양종대본산으로 승격되면서부터이다. 현존하는 전각들도 대부분 그 즈음에 지어진 것들이다.

화엄사 계곡의 바위들은 거의가 고생대의 화강편마암과 화강암들이다. 하상에 굵은 자갈과 왕모래가 깔려서 물이 맑다. 용존산소가 풍부해서 1~2급수 물고기 일곱 종이 서식하고 있다. 상류 쪽에는 버들치와 갈겨니가 관찰되고, 아래쪽은 갈겨니, 미유기, 동사리, 메기, 미꾸리 등이 관찰된다.

미유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어종이다. 암청갈색을 띤 몸통은 가늘고 긴 원통형이다. 메기처럼 피부가 미끌미끌하고, 머리는 위 아래로 납작하며 2쌍의 입수염이 달려 있다. 주로 수서곤충들을 잡아먹는다. 6월에 부화된 새끼들이 돌 밑에 숨어서 지렁이처럼 꼬무락대고 있다.

계곡 주변과 가로변에는 다양한 활엽수들이 있고, 왼편 산으로는 소나무가 울울창창하다. 때마침 자귀나무엔 연붉은 꽃이 만발했다. 밤에 잎들이 마주 붙기 때문에 부부 합환수(合歡樹)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하지만 독신수행자들의 공간인 사찰에서는 그런 까닭으로 별로 심지 않는다.

보제루는 단청을 하지 않아 더욱 고색창연하다. 누하주는 막돌초석 위에 그랭이로 서 있는데, 느티나무가 대부분이다. 판벽과 기둥에는 온통 뽈나비들이다. 겨울을 난 어미가 봄을 맞아 처음 뿌린 자식들이다. 뽈나비들이 목조건물 벽에 즐겨 붙는 것은 나무로부터 미네랄을 취하기 위함이다.

보제루를 돌아나가면 올라오는 동안 좁았던 시야가 일순간에 넓게 펼쳐지면서 불보살의 경계가 열린다. 길이 끊어진 광대무변에 동서쌍탑, 대웅전, 각황전, 석등, 그리고 효대와 사사자석탑까지 극적인 반전으로 나타난다.

각황전은 화엄사의 여의주 같은 건물이다. 우람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이 뛰어나고 비례가 안정되어 있다. 오랜 세월에 단청이 바랜 부재들은 세월의 목향까지 은은히 풍기고 있다. 각황전의 이러한 '아름다운 위엄'은 지리산을 건축문화로 재구성해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임진왜란 때 장륙전 화재와 함께 파괴된 화엄석경은 지금 대웅전 옆 영전으로 옮겨져 봉안되어 있다. 석경의 재료인 납석(蠟石 : Pyrophyllite)은 경상계 안산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열수변질(熱水變質)에 의해 생성되는 광석이다. 삼국시대 이후 불상이나 작은 탑을 조성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으나, 건축물의 내화재(耐火材)로서도 훌륭하다. 따라서 화엄석경은 경전신앙과 법당장엄 목적 외에 내화 목적으로 조성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본다.

각황전 뒷 숲은 내화수림대로 확연히 구분돼 있다. 이 내화수림대의 특징은 동백숲-참나무-소나무로 숲을 구획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내화숲은 산불이 전각으로 번지거나 경내의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 한다.

특히 내화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동백나무를 이용한 것은 나뭇잎이 불에 강한 가죽질(革質)이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수관이 밀생하여 바람의 이동을 차단하는 데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효대에 있는 사사자삼층석탑과 석등은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풍수비보(風水裨補)의 석조물이다. 노고단의 한 지맥이 각황전을 향해 불 같이 달려오는 것을 조용히 잠재워주는 역할을 한다.

구층암 요사채 기둥은 다듬지 않은 모과나무이다. 근육질의 나무결과 옹이까지 여여하게 드러나 있다.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고상한 해석도 그럴듯하지만, 산중에 살면서도 나무 한 그루 함부로 베어 넘기지 않으려는 자연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구층암 해우소는 풀과 분뇨를 섞어서 발효시키는 전통해우소이다. 그 거름으로 사중에서 채전밭을 가꾸고 있다. 건너편 산 중턱에 자리한 금정암에도 전통해우소가 있다.

흰줄표범나비 한 마리가 채전밭을 날아다닌다. 흰줄표범나비는 주로 양지 바른 곳에서 개망초, 까치수영, 쑥부쟁이, 누리장나무, 마타리, 솔채꽃 등의 꽃에 앉아서 꿀을 빤다. 이 나비는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면 여름잠에 들었다가 가을에 다시 나타나는 습성을 갖고 있다.

구층암 옆 물 맑은 계곡에는 물까마귀가 산다. 물까마귀는 번잡하고 소란스러움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수행자들의 벗이 될 만한 새이다. 물까마귀는 이름 그대로 몸 전체가 진한 흑갈색을 띤 텃새이다. 물속에 들어가 유영을 하면서 물고기를 사냥하기 때문에 몸이 작고 날씬하다.

산에서는 물 따라 길이 난다. 물을 따라 난 이 계곡길은 오랫동안 노고단으로 가는 종주길이었으나, 성삼재로 찻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뜸해졌다. 그 덕분에 길 주변의 생태계가 튼실하게 되살아났다. 탐방로 주변은 소나무군집, 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 신갈나무군집 등으로 나타난다.

이따금 멧돼지와 고라니가 암자의 채전밭까지 내려와 장난을 치고 가는 바람에 암자의 공양주 보살들이 기가 찬다.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 북한산 반달가슴곰 8마리를 방사하여 현재 지리산에는 전에 살던 토박이를 포함해 모두 20여 마리가 살고 있다.

탐방로를 되돌아 내려오면 아담한 금정암을 만난다. 비구니 암자답게 경내로 들어가는 길이 예쁘다.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덮지 않고, 번들거리는 돌계단도 놓지 않고, 잔디와 폐자재인 침목만을 이용하여 한껏 재치를 부렸다. 담장도 한껏 낮추어 눈맛을 돋우고 있다.

지장암 뒤에 피안앵(彼岸櫻)이라는 별호를 가진 올벚나무(천연기념물 제38호)가 있다. 육신은 비록 늙었지만, 해마다 청명을 전후해서 꽃을 피워 몸단장을 한다. 원래 이보다 더 큰 올벚나무가 한 그루 있었으나 화엄사 적묵당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베어냈다고 전한다. 얼마나 컸던지, 그 나무로 적묵당 안마루를 죄다 깔고도 남았다고 한다.

지리산의 산신인 선도성모를 모시는 남악사 앞에 늙은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수관이 느티나무와 흡사하여 일찍이 마을의 정자나무로 많이 활용되어온 나무이다. 소금끼에 강해서 주로 바닷가 마을에서 서낭나무로 모셔지기도 한다. 그렇고 보면 팽나무가 지리산중에 있어도 그렇게 생뚱맞게 보이지는 않는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① 각황전 뒤 내화숲을 조성하면서 동백나무를 이용한 것은 동백잎이 불에 강하기 때문이다.
② 구층암 옆 계곡에는 물까마귀가 산다. 물까마귀는 번잡하고 소란스러움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수행자들의 벗이 될 만한 새이다.
③ 미유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어종이다.
④ 흰줄표범나비는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면 여름잠에 들었다가 가을에 다시 나타난다.

